



10

주체 101 (2012)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1(2012)년 제10호

(루계 제780호)

차례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노래하노라

10월의 추억(시).....	박 상 민(3)
우리 당(시).....	심 복 실(4)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가사).....	최 준 경(5)
혁명적인 가사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다(평론).....	김 봉 민(5)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9)
《ㄷ.ㄷ》의 강령은 오늘도(시).....	곽 명 철(9)
그이가 우리의 원수이다(시).....	조 광 철(10)
령장의 선언(시).....	홍 민 식(10)
심장의 고백(시).....	김 재 원(11)
단편소설 백리과원에서.....	림 병 순(13)
아름다운 미채(시).....	백 하(12)
주체문학의 대강	(23)
수령님과 벼이삭(시).....	박 성 일(23)
혁명의 천하지대본(혁명일화).....	(24)
최후의 승리로 힘있게 추동하는 투쟁의 진군가(평론).....	김 정 평(25)
가을의 노래(시).....	황 성 하(27)
○소식○ 정일봉문학상이 새로 제정되었다.....	(8)

《우리 당이 지닌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 혁명과 전
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업적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존함과 결부
되어있으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존함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입니다.》

김 정 은

단편
소설

어머니는 령길에 서있다	홍 남 수(35)
의리	오 광 천(57)
하늘과 땅	김 영 길(71)

수

자그마한 연필 하나에서	리 명 현(33)
--------------------	-----------

필

시에 대한 생각	변 영 옥(55)
----------------	-----------

◇ 시 ◇

백두산을 안고살자(1)(련시)	황명성, 서진명, 김남호, 리명옥, 위명철, 주 경, 김선화(28)
------------------------	--

최후승리의 바다가...	박 정 애(32)
때는 왔다 최후의 결전이다	김 춘 길(34)
인민의 이름으로 부른다	허 수 산(46)
추억에 실린 못 잊을 나날(련시)	주 정 웅(52)
꽃비단 북비단	리 동 수(54)
극형에 처하라!(풍자시)	조 영 사(80)

○ 평 론 ○

진실한 동심이 비낀 풍만한 시세계	리 동 수(47)
세부형상과 회상수법의 효과적리용	김 순 림(68)

상식	(51), (70)
----------	------------

표지2면: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노래)

3면: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선전화)

10월의 추억

박 상 민

아직도
회의장을 뒤 흔들던 만세소리
귀가에 쟁쟁히 울려오고
기쁨의 눈물에 젖은 얼굴들이
눈앞에 삼삼히 어려와
아버이수령님 해방산기슭
2층집 마당가를 거니서라

별들도 유난히 밝은 깊은 밤
해방산기슭 그 어디선가
이슬젖은 밤새소리 풀벌레소리
못 잊을 추억을 불러오고
우리 당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한
회의실 창가의 불빛은
새날의 려명을 불러 밝은데

감회도 깊으신 아버지수령님
기쁨에 젖어 추억에 젖어
은하수 비껴간 북쪽하늘가를 바라보시여라
그리도 바라던 조국해방과 당창건의 이날을
보지 못하고 이역땅에 묻힌
혁명전우들을 못 잊어
피어린 그 나날들을 못 잊어

그해도 10월이었다
그밤도 10월의 밤이었다
기어이 일제를 타도하고 나라를 찾자고
열혈청년들 주먹을 높이 들어
《ㄷ.ㄷ》를 못던 화전의 작은 집
온 세계를 전취한듯 희열에 넘쳐
만세를 웨치던 휘발하강변의 밤

그 밤하늘의 별마냥
우리 혁명의 첫 기슭에
영생의 별로 빛나는 못 잊을 전우들
얼마나 찾고싶던 조국이었던가
기어이 찾은 조국에서
얼마나 창건하고싶던 당이었던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인 당

항일전의 기나긴 세월
어느 하루인들 잊은적 있었던가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해방된 조국의 무궁번영을 위해
우리 당의 뿌리가 되고 성돌이 되어
목숨바친 그들을 못 잊어
수령님 잠 못드시는 해방산의 밤

해방된 조국엔 있어야 했다
혁명의 참모부인 당!
우리 혁명엔 있어야 했다
백전백승의 기치인 당!
우리 인민에겐 있어야 했다
삶의 영원한 품 어머니당!
그 소원이 이룩된 10월의 밤이거니

끝없는 추억에 잠기신 수령님
마당가의 나무들레를 몇번째로 도시는가
오늘의 이날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친
투사들의 고결한 삶을
력사의 갈피만 아닌
나무에도 년륜으로 새겨주시려는듯
문득 걸음을 멈추신 수령님

—동지들!
동지들이 목숨바쳐 찾은 조국에서
동지들의 념원인 당을 창건하였소
동지들은 우리 당의 억센 뿌리였고
동지들은 우리 당의 만년성돌이였소
우리 당은 동지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यो
온 누리를 울리는 수령님의 심중의 말씀이여!

오, 수령님 바라보시는 밤하늘
그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져내려
태양의 품에 안겨드는
못 잊을 해방산기슭 10월의 그날은
그이의 품에서 우리 당이 태어난 날이었다
우리 당 창건자 **김일성**동지
그이는 불패의 우리 당이었다!

우 리 당

심 복 실

가난에 울고
망국의 노예로 천대받고 억압받던
우리 겨레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고
재생의 운명을 꽃피워주기 위해
눈과 비와 새벽이슬에
늘 옷자락이 마를새 없던
그 어머니가 우리 당이었다

땅의 노예였던 농민들에게
땅의 주인된 권리를 주고
착취와 억압에 짓눌려살던 로동계급을
주인의 운명으로 바꾸어주고
인민들을 새 조국건설에로 이끌며
낮도 밤도 없던 어머니가 우리 당이었다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
군대와 인민을 불러일으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쳐부시고
채더미가 된 이 땅우에
강철의 의지와 담력으로 찬란한 미래를 설계한
강의하고 신념이 굳센 어머니가 우리 당이었다

그 사랑 그 신념을 지닌
그런 어머니가
조국과 인민을 품안고 가는 그 길과 날은
아지랑이 피어웃는 봄길만도 아닌
열매주렁진 풍요한 가을날만도 아닌
비오는 두렁길도 석수내리는 막장길도 있는
때로는 피로움도 있는 날이었거니

그 사연많은 길과 날들이 있어
삶은 별처럼 빛나고
조국은 비약의 폭풍을 안고
강성부흥의 래일을 향해 질풍처 달리나니
그날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온 어머니
그이는 우리 당의 창건자 **김일성**동지
그이는 우리 당의 령도자 **김정일**동지
조국과 민족의 어버이로 한생을 사신분

7월의 피눈물에 젖은 그날에도
군대와 인민을 한품에 안으신 어머니는
더욱 강해야 했기에
고난의 행군의 나날 쪽잠과 췌기밥전설을 남
기시며
고난의 행군길 천만리를 락원의 억만리로 열어
놓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국과 인민의 어버이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

그 어머니를 알아 당을 안
조국과 민족의 휘황한 미래를
더 굳게 약속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우리 당은 영원히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라는 엄숙한 선언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변의 신념이거니

12월의 피눈물에 젖은 나날
눈물을 씻어주며 사랑의 품에 안아주신
한없이 정다웁고 뜨거운 그 품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하늘가에
백두산대국을 우뚝 세워 누리에 빛내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

그이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경사로운 우리 당의 창건절을 맞는 이 환희
그대로 노래가 되고 금나락이 되어 설레나니
그 품에서 태어나고 그 품에서 자라날
조국의 미래는 얼마나 밝고 창창하랴

아, 우리 당
온 세계가 경탄하며 우러르는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
온 세상이 흠모하며 따르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제1비서로 높이 모신
복받은 삶들이 우러러 목메여 부르는
어머니 우리 당 조선로동당이여!

가 사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최 준 경

백두에 날리던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 아로새겼다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기발
혁명의 폭풍을 헤쳐왔어라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천만심장 하나같이 뭉쳐나간다

향도의 이 기발 따르는 길에
이 세상 못 넘을 령이 없어라
불구름 헤치고 락원 세우며

인민들 세기의 영웅 되였네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백전백승 주체위업 펼쳐나간다

해와 별 빛나는 맑은 하늘에
이 기발 세대를 이어 날린다
목숨은 버려도 우리 영원히
주체의 당기를 놓지 않으리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사회주의령마루에 길이 빛나라

평 론

혁명적인 가사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다

—가사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에 대하여—

김 봉 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한편의 혁명적인 시는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김정일**애국주의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부강조국건설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 선군조선의 하늘가에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가 장엄하고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있다.

노래가 창작되어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그 영원한 생명력을 남김없이 파시하며 시대적요구에 맞고 전투력이 강한 명작중의 명작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치며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전당, 전군, 전민을 사회

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고무추동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특히 시대정신이 맥박치고 전투적열정이 나래치는 호소성이 강한 가사작품들을 창작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가사는 다른 문학형식들에 비하여 짧으면서도 대중성과 선동성이 강하여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새로운 투쟁으로 불려일으키는데서 커다란 힘을 발휘한다. 투쟁이 있는 곳에는 혁명적인 노래가 있고 혁명적인 노래가 있는 곳에는 혁명적량만이 차넘치고 전투적열정이 끓어넘치기마련이다.

노래가 어느 시대에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며 계속 불려워지자면 시대정신을 옹계 구현하여야 한다. 가사형상에서 시대정신을 옹계 구현하는것은 그 가사의 사상예술성과 함

께 생명력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가사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는 시대정신을 옳바로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창작된지 수십년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천만군민을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새로운 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백두에 날리던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 아로새겼다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기발
혁명의 폭풍을 헤쳐왔어라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천만심장 하나같이 뭉쳐나간다

우리 수령님 백두에서 높이 추켜드신 주체의 붉은기, 그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긴 우리의 당기.

우리의 당기에 새겨진 마치와 낫과 붓은 우리당이 무엇을 제일로 내세우고 누구를 위하여 복무하는 당인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당기는 근로하는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 혁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고 이끌어주며 그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위대한 우리 수령, 위대한 우리 당의 품을 상징하고있다.

지난날 력사밖으로 밀려나 짓밟히우고 천대받으면서도 그것을 숙명처럼 감수하고 살아온 우리 인민이었다. 허나 오늘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자기 운명의 주인, 력사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어 자기 운명을 개척해가고 력사의 전진을 떠밀어나가는 가장 힘있는 존재로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겨주신 그날부터 우리 당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 근로하는 인민대중모두를 크나큰 품에 안아 따듯이 손잡아주고 일깨워주며 혁명의 한길로 이끌어주었으며 세기적인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 력사의 주인,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었다.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기발》, 이 표현속에는 이 땅에 생을 둔 천만사람모두를 안아주고 보살펴주며 력사의 준엄한 폭풍우를 헤치며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우리 당에 대한 칭송의 감정이 함축되어있다.

하기에 오늘 우리 천만군민은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 부르며 그 품에 자기의 운명도 미래도 모두 맡기고 한마음한뜻으로 따르고있으며 마치와 낫과 붓을 새겨안은 주체의 붉은 당기는 천만심장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는 단결의 기치, 승리의 기치로 되고있다.

향도의 이 기발 따르는 길에
이 세상 못 넘을 령이 없어라
불구름 헤치고 락원 세우며
인민들 세기의 영웅 되였네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백전백승 주체위업 펼쳐나간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력사의 준엄한 폭풍우를 헤쳐오며 심장에 간직한 진리가 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를 따르는 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과 의지이다.

돌아켜보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엄혹한 시련의 년대들을 넘어왔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구름을 헤치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가렬한 싸움도 벌려야 했고 재더미만 남은 폐허우에서 허리띠를 조이며 제힘으로 사회주의락원을 건설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도 벌려야 했다.

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어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심장에 새기고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곳곳이 이겨냈으며 빛나는 승리와 영광을 우리 당 붉은 기폭에 새겨어왔다.

준엄했던 지난 세기 90년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우리는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고말았을 엄혹한 시련을 헤쳐야 했다. 그 고난의 나날에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저와 동요를 몰랐고 쓰러졌다가도 더 좋은 래일을 그리며 백번 천번 다시 일어나 사회주의를 지켜냈고 강성국가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아나갔다.

무슨 힘이 그러한 기적을 낳게 하였던가.

그것은 믿음이였다. 우리 장군님에 대한 믿음, 우리 당에 대한 믿음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 당을 따르는 길에 승리가 있다는 철석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고난의 나날에 조선로동당의 붉은 당기를 승리의 기치로 더욱 높이 추켜들고 선군의 한길을 드팀없이 걸어왔으며 시련의 폭풍우를 맞받아헤치며 더욱 세차게 휘날리는 붉은 기폭아래 자신들의 심장을 따라세우며 고난을 헤쳐왔다.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확신을 안고,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랑만을 안고 위대한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며 시련을 헤쳐온 그 나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력사의 진리를 심장속깊이에 더욱 굳게 새겼나니.

위대한 장군님은 곧 우리 당이라는 그 신념을.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을 따르는 길에 승리가 있다는 그 확신을.

《향도의 이 기발 따르는 길에 이 세상 못 넘을 령이 없어라》라는 가사의 구절은 력사의 폭풍우를 헤쳐오며 확증된 이 철의 진리를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주고있다.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천만심장마다에 간직된 조선로동당의 붉은 당기는 오늘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도도히 굽이쳐가는 총진군대오의 진두에서 더욱 펄펄 힘차게 나뭇기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백승을 떨치며 나아가는 주체혁명위업의 대오에 더 높이, 더 억 세계, 더 힘차게 나뭇기는 우리의 붉은 당기.

그 붉은 기폭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더 좋은 래일, 광명한 미래를 확신하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힘찬 발걸음에 자신의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의 힘찬 곡조에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따라세우고있는것이다.

해와 별 빛나는 맑은 하늘에
이 기발 세대를 이어 날린다
목숨은 버려도 우리 영원히
주체의 당기를 놓지 않으리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사회주의령마루에 길이 빛나라

오늘 우리 혁명은 주체혁명위업계승완성의 새 시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 들어섰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상과 령도, 풍모와 덕망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그대로이신 선군조선의 태양 **김정은**동지를 우리 혁명대오의 진두에 높이 모신 공지와 환희에 넘쳐, 새로운 신심과 용기에 넘쳐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령마루에로의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다.

혁명은 한두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된다. 그러므로 혁명투쟁에서 혁명위업을 개척한 수령들이 이룩한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사상과 령도를 이어나가는 문제는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한생이 어리어있는 붉은기, 조선로동당기를 높이 추켜드리고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우리 혁명을 이끌어가고계신다.

우리 혁명대오의 진두에 높이 휘날리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붉은 당기발, 그 기발은 우리 혁명이 앞으로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하고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갈것이며 그 길에서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으리라는것을 선언하고있다.

《해와 별 빛나는 맑은 하늘에 이 기발 세대를 이어 날린다》는 구절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심장의 맹세를 담고있다.

우리 혁명이 같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며 넘어야 할 시련의 고비 또한 헤아릴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시기 조선로동당기발을 단 결과 승리의 기치로 높이 들고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장군님을 따라 천만리 혁명의 한길을 꺾어온것처럼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이 기발을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변함없이 걸어갈것이며 우리의 붉은 당기에 승리와 영광만을 수놓아갈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시여,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의 현명하고 탁월한 령도가 있어 우리 가는 앞길에 그 어떤 험산준령, 천만산악이 막아선대도 우리 천만군민은 오직 주체의 한길로 곧바로 나아갈것이며 그 어떤 력사의 폭풍우속에서도 주체의 당기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높은 령마루에로 전진해갈것이다.

《목숨은 버려도 우리 영원히 주체의 당기를 놓지 않으리》, 가사의 이 구절은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서 열화같이 불타고있는 드팀없는 철의 신념의 반영이다.

이처럼 가사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는 형상에서 높은 시대성을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대진군에 펼쳐나선 우리 천만군민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널리 불리워질 시대의 명작으로 되였다.

정일봉문학상이 새로 제정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천재적인 예지와 탁월한 사상리론, 비범한 력도력과 숭고한 덕망으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인류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문예사상과 리론을 발전풍부화시킨 《주체문학론》을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고 실천적모범으로 명작창작의 본보기들을 마련하시였으며 작가들을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내세워 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선군시대를 대표할수 있는 기념비적명작들이 수많이 태어나고 주체문학예술발전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지금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필

생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주체의 문학을 더 활짝 꽃피워나갈 불같은 결의와 신심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성국가건설에서 우리 문학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 강화발전을 위하여 정일봉문학상을 새로 제정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돌려주시였다.

정일봉문학상은 장, 중편형식의 문학작품과 동맹기관지를 비롯한 출판물에 발표된 문학작품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과 그 창작가를 표창하여 수여하는 문학상이다.

정일봉문학상 수여대상에게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명의로 된 상장과 메달을 수여한다.

정일봉문학상은 우리 당의 주체문학, 선군문학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며 작가들을 선군시대의 명작창작으로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될것이다.

가사는 또한 강렬한 전투성을 구사함으로써 사상예술성이 높은 가사창작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시대를 힘있게 추동하고 사람들을 시대정신으로 무장시키는데서 가사의 뛴뛰는 전투성이 주는 감흥은 매우 크다.

가사의 전투성은 형상에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사상 감정을 어느만큼 강렬하게 담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가사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에는 격동적인 시대에 살며 투쟁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투적기상이 힘있게 맥박치고있다.

특히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당과 수령에게 맡기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가 되려는 천만군민의 드높은 정신세계를 힘있게 노래하고있다.

혁명적인 정신과 기백, 이것은 가사의 전투적인 성격을 규정짓는 기본요소이다.

작품은 1980년대에 창작되었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투적인 정신과 기백을 훌륭히 담고있는 것으로 하여 수십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전투성이 강렬한 가사, 사람들을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명작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가사의 구절구절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당을 따라 혁명의 한길에 자

신의 생명도 청춘도 희망도 모두 바쳐 싸워가는 선군시대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정신력과 높은 전투적기백을 느낄수 있다.

가사에서는 3.3.5조의 음수률로써 힘있고 박동적인 운률형상을 창조하고있으며 요란한 정치적표현이 아니라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기발》, 《못 넘을 령이 없어라》, 《세대를 이어 날린다》, 《목숨은 버려도》, 《놓지 않으리》 등과 같이 인민적이면서도 통속적인 표현을 적극 살려쓰고있다.

인민적이면서도 통속적인 표현은 작품의 혁명적 열정을 전인민적감정으로 승화시키고 작품의 전투적호소성을 더욱 높이고있다.

가사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는 시대의 주동적인 감정을 담은 시대의 명작, 해당 시대뿐아니라 먼 후날에까지도 천만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혁명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혁명적인 가사로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앞으로도 가사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와 같이 시대정신이 높고 전투력이 강한 가사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치며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적극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당이 혁명에서 참모부의 역할을 수행하며 당의 역할에 따라 혁명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혁명이 력사의 기관차라면 당은 혁명의 기관차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혁명가들은 당을 중시하고 당을 꾸리는 일에 것처럼 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된후 우리는 유격대안에 조선인민혁명군 당 위원회를 내왔다. 그것은 카륜에서 조직된 첫 당조직의 확대발전으로 이루어진 결실이었다. 우리의 자주적인 당조직은 그후 조국광복회 국내조직인 조선민족해방동맹과 농조, 로조들에도 뿌리를 뻗치었다.》

우리가 조국에 개선한후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당창건의 위업을 수행할수 있었던것은 항일 혁명의 장구한 나날 당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ㄷ.ㄷ》의 강령은 오늘도

곽 명 철

못 잊을 화전의 밤
어두운 밤하늘에 화불마냥 타오른
《ㄷ.ㄷ》의 위대한 강령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세기와 세기를 이어
변함없는 투쟁의 강령

보이는듯싶어라
86년전 그날
신념에 넘쳐 《ㄷ.ㄷ》의 강령을 선포하시는
수령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던
피땀은 열혈청년투사들의 그 모습

정녕 화전의 작은 집 처마는 낮았어도
《ㄷ.ㄷ》의 뜻은 얼마나 높았던가
정녕 《ㄷ.ㄷ》의 성원은 많지 않았어도
세계제국주의와 대전을 선포한 대용단이어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세상을 안아올
크나큰 의지의 심장이어

강령은 짧았어도
그 수행의 로정은 얼마나 멀고 험난했던가
화전에서 첫 자욱을 땀 《ㄷ.ㄷ》의 투사들
한사람한사람 쓰러져도
《ㄷ.ㄷ》의 강령은 변함없었거니

가슴마다에 새긴 강령은
투사들 가슴가슴에 맥박치는 심장
온넋에 새긴 《ㄷ.ㄷ》의 강령은

그날 그들이 바라본
온 겨레가 행복하게 살 해방된 조국의 앞날

얼마나 시련도 많았고
가슴아픈 희생도 많았더니
허나 수령님 내놓으신 《ㄷ.ㄷ》의 강령따라
간악한 일제를 멸망시켰고
이 강령으로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
았고
이 강령으로 우리 조국을
주체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지 않았더니

강령은 오늘도 드팀없이 수행되고있다
《ㄷ.ㄷ》의 위업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선군령장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위업으로
《ㄷ.ㄷ》의 대오는 더 백배해졌고
우리를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세월은 흐르고흘러
세대는 바뀌고 바뀌었어도
《ㄷ.ㄷ》의 강령을 변함없이 추켜드신
또 한분의 선군령장 **김정은**동지가 계시어
최후의 승리는 멀지 않았거니

아, 환희에 넘쳐 격정에 넘쳐
우리는 소리높이 온 세상에 웨치노라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계시어
《ㄷ.ㄷ》의 강령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투쟁의 기치여라

그이가 우리의 원수이시다

조 광 철

오, **김정은**동지!
그이가 우리 공화국의 원수이시다
천만군민의 심장과 심장들이
높이 더 높이 받들어모신분
환희와 격정으로 설레이는 이 강산에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우리의 **김정은**동지

동서해 푸른 물도 감격에 설레이고
대양과 대륙을 넘어넘어
메아리쳐 울리는 축하의 환호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그이가 우리 공화국의 원수이시다

솟아 삼천리강토를 굽어보는
백두산악처럼 존엄높은 그 기상
정일봉의 우뚝처럼
천하를 주름잡아 떨치는 그 발걸음

봄빛이여라
해빛이여라
사랑과 정에 넘친 그이의 미소는
세계를 밝게 비치는 친화력으로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매혹케 하였나니

김정은원수!
우리 그이만을 굳게 믿노라
멸적의 총검안고 명령을 기다리는 병사들
우리 식으로 쇠물을 뽑고
세계를 굽어보는 자존심을 안고사는

최첨단돌파전의 젊은 인재들

번영하라 우리 조국이며
강철의 혁명무력 백두산장군은
원수별 빛나는 최고사령관기 펄펄 날리라
함남의 불길 타번지는 일터와 전야마다에서
환희와 긍지로 높뛰는 심장으로
후손만대의 질푸른 미래를 맞으라

피끓는 가슴들아
신들메를 조이고 발걸음 쩡쩡 더 높이 올리며
세계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자
백배로 강해지고 천백배로 뭉쳐진
우리의 힘 당할자 누구냐

아, 강철의 령장 **김정은**원수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유훈을 지켜
백두산대국을 세상에 떨치시리
통일의 축포 터쳐올리고
주체의 강성국가를 온 세상에 선포하시리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처럼
강대한 조선의 천만년부강을
억척으로 담보해줄 그이께 우리 자기 운명 맡기
였거늘
세계여 인류여 부러워하라
오, 선군령장 **김정은**동지
그이가 우리 공화국의 원수이시다

령 장 의 선 언

홍 민 식

온 세계가 초점을 맞추고
온 인류가 파장을 맞추던
김일성광장 열병식장에 올려퍼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축하연설

벽차오르는 이 가슴
그 영상 우러러 눈물에 젖던
그날의 그 환희 그 걱정
어제런듯 이 가슴에 물결쳐오누나

주체100년사를 총화하시고
천리혜안의 예지로
우리 혁명의 새로운 미래의 전략을 밝히시는
령장의 선언 한마디한마디가
피방울되어 온몸에 흘러드누나
새힘과 용기로 용솟음치누나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리상을
기어이 이 땅에 꽃피우시려는 그 의지

그 고결한 충정
그 숭고한 도덕의리앞에
산천초목도 머리를 숙이고
동서해의 푸른 격랑도 숨을 죽이는듯

그 언제 있었더나
정치파동의 동란으로 얼룩진
세계정치사의 어느 갈피 어느 시대에
수령의 위업이
이렇듯 빛나게 이어지고
이렇듯 더 활짝 꽃피난적이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라고 하신
금옥같은 명언에
그 고결한 충정
그 숭고한 도덕의리가 비껴있고

그렇듯 간절해도
심오한 혁명의 철리를 담은
그 한마디에
우리의 신념 우리의 의지가 있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승리가 있어

그것이면 겹쌓이는 시련도 다 이기고
그것이면 누구도 아직 가보지 못한
험한 길도
우리 배심 든든히 곧바로 헤쳐가려니

여기선 열병광장 여기서
다 보여오누나
수령님의 념원
장군님의 리상이 현실로 꽃피난
강성부흥 내 나라의 휘황한 래일이
기쁨속에 누려가는 인민의 행복한 모습이

아, 환희와 격정에 설레는
이 마음속에 아직도 떠날줄 모르는
김정은동지의 친근한 그 음성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 삶과 투쟁의 기치인 그 선언
하늘이 듣고 땅이 들었다
온 세상이 들었다 력사의 그 선언을!

심장의 고백

김 재 원

나의 자서전엔 밝혀있어라
당별 조선로동당

몇줄밖에 안되는 나의 자서전에
조선로동당원이라고 밝혀질 때
내 삶 얼마나 리상높이
자유의 창공에 나래쳐올랐던가

어버이수령님과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나를 키워준 어버이모습
당은 내 운명의 품
아침마다 받아안은 당보의 사설들은
고향집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인듯

없어라 세상에
조선로동당원!
이보다 더 고귀한 삶과 영예
이보다 더 신성한 존엄과 긍지

하기에 나는 아무때나
그리고 가볍게 밝히지 않노라
목숨같은 내 신념과
내 삶의 근본을

오로지 불패의 당의 위업을 위해
결사옹위 제1선에 나서야 할 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부르는 곳에
주저없이 목숨도 바쳐야 하는 때

그렇다!
한몫 기꺼이 바쳐야 할
그러한 때 그러한 순간에
나는 내 목소리로 똑똑히 밝히리라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모시고
김정은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로동당의 당원이라고!

아름다운 미래

백 하

아직은 그 누구도 몰랐다
봄날의 해빛이 왜 그리도 유난스럽던지
대동강 맑은 물이 왜 그리도 설레었던지
만수대언덕 가까이
우렁이 일어난 아동백화점

층마다 동심이 넘치는
상품진렬대앞에 서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쏟아지는 해빛속에 밝게 웃으시며
매장안을 다 돌아보시고나서
사색어린 눈길로 말씀하시여라
—층마다에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꾸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설계도에도 없던 어린이놀이터
그 누구도 생각해본적 없는 어린이놀이터
일군들 서로 얼굴만 마주볼뿐
그러자 다정히 하시는 말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는데
어린이들이 즐길 놀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그제야 모두 가슴 젖어드는 뜨거움
그처럼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그이
얼마나 다심하신가 얼마나 세심하신가
그들은 그려보았다 층마다 꾸린 놀이터들에서
놀이감을 불안고 즐길 어린이들을
그 모습 보고 마음놓고 매대들을 찾을 어머니들을

하지만 그때에도 그들은 아직 몰랐다
그 놀이터에서 그 어떤 희열이 움터나는지
거기서 그 어떤 찬란한 패일이 일어서는지
매대마다 풍성한 상품을 쌓으며
온 매장이 기쁨넘쳐 흥성이는데

너무도 놀라웠어라
그림맞추기 조립식집짓기 꼬니놀이감
갓가지 처음보는 지능놀이 놀이감들

아동차 미끄럼다리 기차굴간 놀이기재 ...
수십중에 수천점의 어린이놀이감들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시었거니

그 어느 아동백화점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본적 있었던가
화려한 불장식이 눈부신 속에
어린이들을 부르는 색고운 미끄럼대
저마끔 다투어 뛰어들 기차놀이굴간
넋을 잃고 조각을 맞출 집짓기놀이감
머리를 싸쥐고 수를 찾고찾을 꼬니놀이감

그 모습들을 어서 보고싶으시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신기한 동화세계같이 꾸린 놀이터를
보고 또 보시며 만족하시었어라
백화점에 오면 어머니들도 아이들도
여기부터 먼저 찾을것이라고
우리 어린이들이 지능놀이에 취해
그만 집에 갈 생각도 잊어버릴것이라고

환히 환히 웃으시여라
손수 놀이감들을 쓰다듬어보시며
이르시여라 매대들에도 번듯이
지능놀이감매대를 새로 꾸려주자고
아,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의 태양
어린이들의 지능을 따뜻이 계발시켜
조국의 빛나는 미래를 가꾸시려
바치시는 그 은정 한량없는 그 사랑이여

해빛밝은 만수대기슭에 자리잡은
사랑넘친 평양아동백화점
이제 여기에서 이 나라의 슬기로운 지혜가 움트고
여기서 발명가들과 과학자들이 자라나리라
오, 여기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빛나는 예지와 사랑의 빛발속에
아름다운 미래가 당겨오리라



림 병 순

바다가에 펼쳐진 백리과원의 가을풍치는 볼수록 장쾌하였다. 구름에도 들에도 잘 익은 사과알들이 가지가 휘도록 주렁졌다. 앞에도 옆에도 과일나무 숲이다. 가도가도 끝이 없을듯싶은 과원의 바다. 온 여름 푸른 잎에 싸여있던 과원은 마치 조명을 받은듯 온통 붉은 색조로 변하였다. 바다바람이 슬슬 불어올 때마다 실려오는 달콤하고 향긋한 과일향기, 나무가지사이로 언뜻언뜻 비쳐지는 사과 따는 처녀들의 모습, 랑랑한 노래소리...

달리는 차안에서 취하신듯 바깥풍치를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윽고 야산쪽으로 시선을 돌리시었다. 멀리 구월산의 희미한 웅자가 보인다. 그 지맥들이 유유히 흘러내려 나지막한 야산지대로 변하면서 바다가에는 커다란 꽃이 형성되고 아름다운 포구가 생겨났다. 바다기슭에 누워있는 길고 하얀 백사장, 원래 이 지대의 바다풍치가 서해에서는 보기도문 경치이지만 바다가에 펼쳐진 백리과원으로 그것은 더욱 절경을 이루었다.

승용차가 완만한 도래굽이를 지나자 가까운 바다우에 기묘한 형국의 쌍바위가 나타났다.

그이께서는 잠시 그 바위에 시선을 멈추시었다. 신통히 두사람이 나란히 서있는 모양이었다.

《저 바위를 형제바위라고 합니다.》

수령님의 현지도도를 수행하고있는 도당의 책임 일꾼 차두림이 말쑥드렸다.

그이께서는 느슨히 미소를 지으시었다.

《옛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두 아들이 어머니가 너무 보고싶어 저기에 와서 돌로 굳어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쌍암동이란 이 고장지명도 바로 그 전설에서부터 생겨난것 같습니다.》

《음...》

이 고장 녀인들의 고달픈 과거가 어려있는 바위였다. 옛날만이 아니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시기에도 이 고장 녀인들은 고생도 많이 하고 남모르는 눈물도 많이 흘렸었다.

그이께서는 아픈 심경의 금선을 튕겨주는 옛 전설의 여운에 실려 더한층 깊은 상념에 잠기시었다.

실로 이 지대는 어느 고장보다 전쟁의 피해가 혹심하였다. 나라의 곡창지대가 황폐화되었을뿐 만아니라 녀인들의 가슴속에 서려있는 원한의 상처는 비할수없이 컸었다.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끝나자 도의 농사를 추켜세우기 위하여 은천과 룡연, 웅진에도 가시였고 나무리벌을 지나 머나먼 연백벌도 찾으시었다.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농사일을 의논하시던 현지도도의 그 바쁘신 나날에 유가족들도 수없이 만나보시었다. 원쑤놈들의 만행으로 남편과 자식들을 잃고 눈물과 비분속에 살아가고있는 녀인들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그이께서는 아픈 마음을 누르시며 그들을 위안하고 힘을 내도록 고무를 주시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에 맺힌 원한의 상처야 어떻게 쉬이 가서지랴.

그래서인지 마음의 상처를 안고있으면서도 밝은 얼굴로 살아가고있는 녀인들을 만나시면 더없이 기쁘고 대견하시었던것이다.

그때 등성이길에서 만났던 녀인도 바로 그런 녀성이었다.

《쌍암동》이란 도로표식판이 얼핏 차창을 스치었다.

그것을 보시자 삭막해진 기억을 더듬으시는 수령님의 눈앞에 가름하고 아련해보이는 너인의 모습이 생생히 되살아올랐다. 너인은 길가의 풀밭에 애기를 눕혀놓고 숲속에 들어가 사과나무 주변의 잡초들과 잡관목들을 베고있었다. 남편이 심어놓은 애어린 사과나무들이 잡관목에 묻히는것이 가슴이 아파 볼수가 없다고 말썹올리는 너인을 묵묵히 바라보시는 수령님께서 한가슴에 차오르는 뜨거운것을 간신히 누참히시였었다.

《두림동무, 저 등성이길에서 만났던 너인이 생각나나?》

전후시기부터 도당에서 일하고있는 차두림이었다.

그러나 그는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 눈시울만을 찢프리였다.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마 그 너인도 지금은 환갑나이가 지났을것이다.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등성이길가에서 만났던 그 너인이 수령님의 안중에 오늘따라 감회깊이 되살아오르는것은 여기에 이미 백리과원이 꾸려져서 만이 아니었다.

모진 상처를 안고있으면서도 연약한 몸으로 남편의 생전의 뜻을 이어가고있던 그 모습이야말로 피눈물을 삼켜가며 나라의 곡창지대를 가꾸어가던 수많은 이 고장 너인들의 모습이였다. 남편대신 총과 보탑을 틀어쥐고 전쟁을 이긴 너인들...

차두림은 끝내 기억을 살려내지 못하였다. 다년간 수령님의 현지지도를 수행해오면서 그이의 안색과 표정을 보고도 심중의 깊은 생각과 의도를 알아차리려고 애써온 그였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러간 오늘까지 수령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그 너인조차 자신의 기억에서는 사라져버렸으니 차두림의 심정은 저으기 송구스러웠다.

그 너인은 지금 어데서 무엇을 하고있는지?...

×

과원 한복판으로 큰길이 지나갔다. 아카시아 나무들이 울타리처럼 우거진 길가에는 들국화들이 피어나 한창 생기를 돋구었다. 숲을 헤치며 메세들이 무리지어 날았다.

얼마쯤 달리니 너인들이 사과나무밑에 널려 사과를 따고있었다. 커다란 다래끼에 사과를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오가는 모습이 보이였다. 수확이 한창이였다. 과원안의 작업반앞마당에 사과들을 쌓아놓고 둘러앉아 선별하기도 하고 상자에 포장하기도 하면서 바빠 일손을 놀리고있었다. 여기저기에서 랑랑한 웃음소리와 곱고 청높은 노래소리

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정말 보기만 해도 흐뭇한 과원의 류다른 정취였다.

차창턱에 한팔을 기대시고 그 명랑한 모습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는 수령님의 부드러운 입가에는 밝은 미소가 피여났다. 한뼉 눈물과 시름에 잠겨 살던 이 고장 너인들의 후손들이였다.

어느덧 그이의 마음은 절로 과원으로 끌리시였다.

《여기서는 포장작업이 한창이군. 한번 들어가 구경을 하고 가지 않겠소?》

잠시후 승용차는 속도를 죽이다가 서서히 사과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멈춰섰다.

순간 너인들의 환희에 찬 목소리가 퍼지고 사방에서 나무가지들을 마구 휘여제끼며 처녀들이 모여들었다.

선별을 하고있던 아낙네들이 머리수건을 벗어 들고 어쩔바를 몰라하는데 처녀들이 엮어질듯 출입구쪽으로 달려가 어버이수령님께 인사를 올리였다.

그들에게 에워싸이신 수령님께서 줄곧 환히 웃으시며 선별장가까지로 걸어오시였다.

《수고들 합니다. 동무들이 일하는걸 보고싶어 들리였소.》

그이께서는 정겹게 그들을 둘러보시고 선별장에 쌓여있는 사과더미에 눈길을 돌리시였다.

물을 길어오던 너인이 황급히 물통을 내려놓고 바빠 수령님가까이로 달려왔다. 그는 걸어올렸던 팔소매를 내리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리였다.

그이께서는 문득 그의 얼굴모습을 여겨보시였다.

어디선가 보신듯 한 모습이다. 반듯한 이마와 그밑에 곱게 휘여든 차분한 눈썹, 아래턱이 뾰주름하고 가름한 얼굴...

수령님께서 한층 눈시울을 좁히시였다.

《우리 리옥금반장입니다.》

지금껏 그이의 팔소매를 부여잡고있던 애어린 처녀가 소개를 해드리였다.

《어버이수령님,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에 우리 작업반을 찾아주시여 정말 고맙습니다.》

반장의 소박하면서도 진정에 넘친 인사를 받으신 수령님께서 그의 어깨를 정겹게 두드려주시였다.

《아니요, 고맙다는 인사는 내가 해야지. 동무들이 이렇게 과일풍년을 보여주니 난 피로가 다 풀리는것만 같소.》

그이께서는 포장장소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대단하구만...》

《수령님, 올해는 과원이 생김이래 가장 수확이 높을것으로 예견하고있습니다.》

리옥금반장이 작업반의 예정수확고를 차근차근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잠시 속계산을 해보시며 사과무지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주위에 과일향기가 진동하였다. 사과들이 알알마다 반들반들 윤기가 도는게 보지만 하여도 군침이 돌았다.

수령님께서서는 사과 한알을 집어드시고 향기를 맡아보시었다.

《〈북청〉이구만. 맛이 좋지?》

《그렇습니다.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나무모가 이렇게 자라서 한창 사과가 열립니다.》

《음...》

리옥금반장이 따로따로 쌓여있는 사과더미들을 가리키며 품종들을 알려드리었다. 붉은 바탕에 연한 푸른색이 섞인 《북청》과 온통 붉은 바탕과 퍼르르레한 사과들이었다.

그이께서는 모든 더미에서 사과들을 집어드시고 알당 크기와 무게를 가늠해보시고나서 이렇게 사과가 잘되었으니 성수가 나겠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그렇습니다. 과일풍년이 드니 노래와 춤이 절로 납니다.》

나이든 녀인이 우선우선한 목소리를 돌구자 옆에 섰던 녀인들의 얼굴마다에 밝고 환한 웃음발이 퍼지었다.

그이께서도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그래, 노래도 풍년이다... 방금 들어보니 노래들도 참 기막히게 부르더군, 정말 멋이 있소.》

그러자 처녀들이 신바람이 나서 저마다 자랑을 늘어놓는다.

《수령님, 저 금순동무는 노래경연에도 나갔답니다.》

《그것 참, 대단하군. 사람들이 노래경연을 아주 좋아하지?》

당황해진것은 금순이였다. 갑자기 두볼을 활짝 붉히며 어쩔줄을 몰라하던 처녀는 수집은 어조로 자기는 도예비심사에 갔었다고 가만히 아뢰었다.

《그래 심사에 합격이 되었겠지?》

수령님께서 금순이한테로 고개를 약간 숙이시고 다정하게 물으시자 처녀는 그저 고개만 가로저었다.

《퇴짜니다.》

《왜?...》

《노래곡목을 잘못 선택했다는겁니다. 목소리는

정말 고운데 노래가... 제가 락심할가봐 그러는것 같았습니다.》

그이께서는 못내 서운해하시며 도대체 노래곡목이 뭐길래 퇴짜를 맞았는가고 웃으며 물으시었다.

처녀가 노래곡목을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입속말로 제목을 되뇌이시었다. 이미 여러번 들으신바 있는 노래였다.

《그 노래야 동무들의 생활을 담은 노래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처녀들이 낮에는 꽃보며 웃고 저녁에는 꽃속에서 노래부른다는것이 꼭 우리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노래를 제일 사랑합니다.》

한 처녀가 눈을 치뜨고 금순의 역성을 들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어떻다는건가?》

《뭘... 처녀요 꽃이요 하는것이... 말하자면 시대감이 없다는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수령님께서서는 고개를 젓히시고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시었다.

《그래도 목소리가 고운데 끝까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제가 감히... 메세야 과원안에서 노래하는게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메세라...》

수령님께서서는 나직이 뇌이시며 위안하듯 금순의 작은 어깨를 살뜰히 쓰다듬으시었다.

이윽고 사과들이 주렁주렁 열린 과원안을 살펴보시던 그이께서는 리옥금반장한테로 시선을 돌리시었다.

《과원을 가꾸자면 품이 들고 일손이 많이 가지?》

《수령님, 그렇습니다. 봄에는 꽃눈이 제대로 피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여름날엔 비나 바람에 열매가 떨어질가봐 잠을 못 잡니다. 정말 애기를 키우는 품보다 더 듭니다.》

선뜻 앞에 나서며 스스로없이 말씀드리는 녀인을 보자 나어린 처녀가 곱게 눈을 할기였다.

《어머니도 참... 아무려면 애를 키우는것보다야 힘들가?...》

《애, 네가 뭐 아이를 키워나 봤니?》

《어마나...》

눈을 할기던 처녀가 부끄러워 비명을 지르며 수령님의 옷자락뒤로 머리를 숨기었다.

어느덧 수집음도 다 잊고 허물없는 사이가 된 녀인들의 소박한 모습을 보시는것이 못내 기쁘시여 그이의 입가에서도 즐거운 미소가 사라지지 않

으셨다.

《정말 동무들이 수고를 하지.》

《수령님, 여기에서는 우리를 보고 메세들이라고 한답니다. 사철 과원을 떠날줄 모르는 메세와 같다는겁니다.》

《메세들이라...》

그이께서는 또다시 나직이 뇌이시며 가볍게 고개를 저으시었다. 수수한 작업복을 입고 과원을 가꾸느라 궂은일, 마른일 다 맡아하고있는 이들을 어찌 메세에 비하겠는가? 이들이야말로 과원의 참된 주인들이었다. 저 처녀들은 과원의 아름다운 꽃이고...

한동안 녀인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 길가에 놓여있는 물통에 시선이 미치자 양수설비가 안되였는가고 물어보시었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물을 길어오나?》

옥금반장은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이 옥고 양수기가 고장났다고 말씀올리자 그이의 안색이 흐려지었다. 과원을 가꾸자고 해도 많은 품이 들겠는데 물까지 길어오자면 얼마나 힘들것인가?

《양수기를 고쳐달라고 제기를 하지 않았소?》

리옥금반장이 몹시 송구스러워진 얼굴로 또다시 망설이다 나직이 아뢰었다.

《수령님,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 요즘에는 여름철과는 달라 용수를 쓰지 않습니다. 저 물통은 작업반 세면장에 물이 떨어져서 내가의 물을 길어오던것입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서는 이미 반장의 얼굴에서 양수기때문에 애태웠을 말 못하는 심정을 헤아려보시었다.

《아니요. 많고 적은것이 문제가 아니라 녀성들이 힘들게 물을 길어오는것을 보고도 레사롭게 생각하는 일꾼들이 문제야. 정 그렇다면 양수기를 고쳐주지 않는 남정들에게 물지계를 지워야지.》

《수령님, 남정들이 물지계를 질게 뵙니까? 안 집니다.》

《허허, 그런 남편들에게 궂박궂박 밥을 지어 대접한단 말이요? 나같은 안 그러겠소.》

수령님께서서는 룡조로 받으시며 가볍게 한손을 저으시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밥이 좀 늦어지면 투정부터 한답니다.》

이야기를 하고있던 녀인이 제절로 쑥스러워 말끝을 삼키자 모두 유쾌하게 웃음을 터치었다.

그이께서도 빙긋이 미소를 지으시었다.

《수령님, 물때문에 너무 마음쓰지 말아주십

시오. 옛날에야 우리 녀성들이 동이로 물을 길어 오지 않았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은...》

리옥금반장은 잠시 말끝을 끌다가 계속하였다.

《...저희들이 가꾼 사과를 맛보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처녀들이 허물없이 수령님의 팔소매를 부여잡고 그래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였다.

《소원이라... 허허, 그렇다면...》

반장이 과일그릇에 잘 익은 사과들을 담아 수령님께 드리자 그이께서는 혼연히 한알을 집어 드시고 한조각 베어 맛을 보시었다. 맛이 달고 물이 많은 시원한 《북청》이였다.

녀인들이 성수가 나서 저마다 깨끗한 사과들을 골라 과일그릇에 담느라고 분주히 오고갔다.

수령님께서서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시고 그들을 지켜보시었다. 사철 과원을 떠나지 않고 사과나무들을 가꾸느라 애써오는 그들이 그토록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니 절로 마음이 후덕워지시었다. 찬바람을 무릅쓰고 이른봄부터 잔가지들을 다듬고 꽃눈을 틔워 알알이 정성을 기울여 키워온 사과였다. 누구나 사과의 진미는 가늠하지만 그속에 깃들어있는 이들의 수고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으랴.

녀인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점도록 지켜보시는 수령님의 심중은 즐거움만이 아닌 측은한것이 갈마들어 몹시 아프시었다. 집에서 여러가지 부담을 안고 부대끼는 녀성들이네 물지계까지 지자니 얼마나 힘들것인가? 녀성들이라고 왜 그 힘든 부담을 레사롭게 감수해야 하며 일꾼들은 그것을 어찌서 레사롭게 여기고있는것인가? 방금전에 금순이가 하던 말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

군의 책임일꾼들로부터 실패를 료해하시고 가까운 파수밭들과 과일가공공장들을 다 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며칠째 쌓인 피로로 하여 잠시 결상등반이에 몸을 기대시었다. 과일도 레년에 없이 잘되였고 과일가공공장도 만부하로 돌리고있었다. 단지 마음에 걸리시여 내려가지 않는것은 녀성들이 아직 많은 부담을 안고있는것이였다. 그 넓은 과원에 거름을 주는 작업은 많은 경우 녀인들의 등짐에 의거하고있었다. 그런데다가 양수기를 놓고도 물지계를 지도록 하니 그것이 문제였다.

그이께서는 오시는 길에 들리셨던 쌍암작업반의

로력당경지면적을 추산해보시고 수첩에다 《과일군에 양수기를 보내줄것》하고 써놓으시었다. 가공공장들의 설비를 현대화하고 과수밭에서 작업하기 편리한 새형의 룬전기재들도 보충해주어야만 하였다. 특히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문제들을 꼼꼼히 생각하고계시는데 출입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차두림이 방으로 들어섰다.

《수령님, 쌍암작업반에서 보낸 사과들은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그이께서는 차두림을 마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그 사과들을 받아들고 기뻐할 어린이들의 귀여운 모습이 떠올라 수령님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시었다. 자신께서 맛보시는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작업반녀인들이 정성껏 골라올린 사과였다. 그러니 오늘은 그들의 소원이 다소 풀린셈이였다.

이어 차두림이 이곳 일군들과 협의회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었다.

《아무래도 과일을 제때에 실어나르자면 현재 있는 룬전기재들로써는 부족할것 같습니다.》

그이께서는 흔연히 결론을 주시고 또 제기된것이 없는가를 알아보시었다.

《저... 〈갱생〉 승용차 몇대만을 주셨으면 합니다. 과원이 백리구간에 널려있는것만큼 한번 밑에 내려가재도 힘이 든것 같습니다.》

《양수기는 제기된것이 없소?》

《없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다시 자리에 앉으시여 묵묵히 생각에 잠기시었다. 지금 있는 양수기들은 오래되어 고장이 많았다. 그래서 과원의 용수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성들이 애를 먹고있었다. 일군들이 그것을 모를수가 없었다. 만약 일군들이 《갱생》 승용차대신 양수기를 보내달라고 제기하였다면 그이의 심정은 그리도 아프지 않았을것이였다. 자기들이 밑에 내려가는것을 힘겨운 부담으로 여기지만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줄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 여성들을 그저 한 가정의 주부로밖에 치부하지 않으며 물지계를 지는것을 옛날부터 내려오는 여성들의 숙명으로 간주하고있는 것이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의 처사가 몹시 서운하시었다.

《그리고 쌍암동에서 만났던 녀인도 찾았습니까.》

차두림이 서류 한장을 꺼내어 그이께 올리였다. 거기에는 그 녀성에 대한 간단한 경력과 함께 남편에 대한 자료도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지체없이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어보시었다. 그 녀성이 분명하였다.

《이름이 조성실이란 말이지? 나이도 비슷해. 지금은 어디서 살고있소?》

쌍암작업반에서 오래동안 반장사업을 하고있던 녀인은 얼마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 사연을 말씀드리자 수령님께서는 매우 서운한 기색으로 한동안 서류장만을 들여다보시었다.

《지금은 그의 딸이 어머니대신 작업반장을 하고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로 오면서 만났던 그 반장이 아니겠소?》

《그렇습니다.》

《음... 오늘은 딸이 반장을 한단 말이지...》

그러고보니 차분하게 균형이 잡힌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어머니와 비슷하였다.

《길가에서 울던 아이가 이제는 중년이 되었소.》

그이께서는 나직이 뇌이시며 눈길을 드시었다. ...전쟁의 포성은 사라졌으나 길가의 논밭이나 야산들에는 미제의 폭탄에 파헤쳐진 웅덩이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승용차는 잡초들이 우거진 등성이길을 올랐다.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길옆의 풀밭우에서 서너살쯤 난 아이가 목을 빼들고 줄곧 숲속의 한곳을 쳐다보며 자지러지게 울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차를 멈추시고 아이한테로 가까이 걸어가시었다. 발은 머리카락을 모아 제비꽂지처럼 땀은 처녀애였다. 몇오리의 머리카락이 이마밑으로 흩어져 눈물에 젖은 눈시울에 찰싹 달라붙었다.

그이께서는 아이를 안으시고 잠시 달래이시었다.

그때 잡판목을 헤치며 한 녀인이 황황히 달려왔다. 손에는 낫이 들려있었다. 성급히 아이를 받아안으려던 녀인은 그 순간 아이를 달래이신분이 다름아닌 아버지수령님이심을 알아뵈자 놀라 다급히 머리수건을 벗으며 공손히 허리를 굽히었다.

《뭘나무를 합니까?》

《아닙니다. 사과나무들이 잡초에 묻혀서...》

잡초들이 우거진 속에 사과나무들이 듬성듬성 서있었다. 키가 한길이 되나마나한 어린 나무들이였다. 가지들은 가늘고 몹시 섬약해보이였다.

《이 나무들을 언제 심었습니까?》

녀인은 반듯한 이마를 수그리고 생각을 더듬더

니 한 5년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였다. 해수에 비하면 너무나 어리였다.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 사과나무들도 전쟁을 겪느라 주접이 든 모양입니다.》

《수령님, 원래 여기에서는 해풍이 세서 사과가 힘들것 같습니다. 한창 꽃눈이 자라야겠는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이께서는 한동안 사과나무가지들을 유심히 살피시였다. 꽃피는 계절에도 이 사과나무들에서는 꽃을 볼수가 없을것이다. 가지에는 아직 꽃눈이 틀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난 그래도 여기에 큰 과원을 만들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녀인은 그저 눈시울만 밀어올리였다.

《왜 그렇니까? 내가 공언한 생각을 하는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따금 꽃눈이 자라다가도 하루아침사이 비바람에 다 떨어질 때는 막 속이 상합니다.》

어느덧 녀인은 다소 주눅이 사라져 자기의 심정을 기탄없이 털어놓았다.

《꽃눈이 떨어진다... 옳습니다. 여기는 바다바람이 세고 늘 안개비가 내리는것만큼 무엇보다 그걸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난 이 고장 풍토에 맞는 나무모와 농약을 연구하도록 연구사들에게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시름에 싸여있던 녀인의 얼굴이 차츰 밝아졌다.

《사실 저의 주인도 전쟁전에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와서 사과나무를 심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구월산으로 가던 주인은 그만 원썬놈들에게 붙잡혀서...》

녀인은 잠시 아이를 보듬을뿐 침묵을 지키였다.

실로 사연이 깊은 사과나무였다. 남편의 녀원이 깃들어있고 포성을 들으면서 가꾼 사과나무여서인지 수령님께서도 류다른 생각에 젖어드시였다. 살기가 어려운 때에 남편대신 사과나무를 가꾸느라 애쓰고있는 녀인이 정말 대견스러우시였다.

《아주머니, 정말 옳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엮고 무성한 저 잡초들을 다 베버릴 생각을 하였습니다?》

《수령님, 주인이 심어놓은 사과나무들이 잡초에 묻히는것이 가슴이 아파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수령님의 말씀대로 여기에 큰 과원이 생기고 사과들이 주렁주렁 열리면 돌아간 저의 주인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아련해보이지만 성미가 여간 웅골차지 않았다.

후더위오르는 가슴을 눅눅히며 묵묵히 녀인을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도 이윽고 미소를 지으시고 한창 재롱을 부리고있는 아이의 손을 다정히 움켜쥐시였다....

지금까지 이름조차 모르던 녀인이여서 더 서운하시던 심정이였다. 그것이 이번에 만나신 그 녀인의 딸로 하여 다소나마 가셔지는듯 하셨으나 생각할수록 그들모녀와의 상봉은 실로 공교로왔다. 옥금반장이 그 녀인의 딸인줄 모르고 레사롭게 헤어졌으니 살뜰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한것이 못내 아쉬하시였다.

《수령님, 이곳 일꾼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차두림의 간절한 목소리에 수령님께서도 고개를 돌리시였다.

《수령님을 모시고 풍년과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싶습니다.》

그이께서는 쾌히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음... 그 소원을 풀어줍시다.

로력혁신자들을 다 부르시오.》

수령님께서도 창가에 서시여 저 멀리 바라보는 쌍암동의 과원에 시선을 멈추시였다.

오직 당을 믿고 이 백리과원을 가꾸어온 녀인의 모습이 무성한 과원의 숲에 어려왔다. 남모르는 고생인들 얼마나 많았으랴. 그래서 더 애석한 심정을 누를길이 없으시였다. 그가 만약 곁에 있다면 거칠고 매듭진 투박한 손에 금반지라도 끼워주고싶으시였다. 그러면 그 아쉬운 심정이 다소 풀릴수가 있을는지?...

×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몹시 심뇌어린 안색으로 오래동안 깊은 상념에 잠겨계시였다. 촬영장에 나선 수십명의 혁신자들속에는 녀성들이 한명도 없었다. 과원에 오시여 녀성들을 만나보시면서 대견해하시고 측은해하시던 그 심정은 커다란 아픔으로 변하면서 참을수 없는 피로움과 노여움에 가슴이 답답하시였다. 한뼘 수수한 작업복을 입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과원을 떠나지 않고 굶은 일, 마른 일 다 맡아하며 애쓰고있는 녀성들이였다. 어디에 가보나 과수밭을 가꾸고있는 사람들은 거의 녀성들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촬영에서 제외되였다.

이곳 일꾼들은 녀성들을 혁명을 같이하는 동지로 여기기는커녕 초보적인 료리마저 고갈된것이다. 그 그릇된 관점으로 하여 녀성들을 촬영장에 내세울 아량마저 없었던것이다. 생각할수록

자신께서 당한 아픔처럼 마음이 쓰라리시었다.

고뇌에 잠기신 그이의 눈앞으로 낮에 만났던 쌍암작업반 녀인들이며 메새야 과원에서 노래하는게 제격이 아닌가고 수집어하던 금순의 실망어린 모습이 어려왔다. 그들만이 아니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고운 색깔의 옷대신 사철 파르스레한 작업복에 머리수건을 쓰고 논두렁길을 걷고있는 재령벌에서 만났던 처녀작업반장... 그들의 모습이 연줄연줄 그이의 눈앞에 덧쌓이면서 쓰리신 마음을 더욱 허비였다.

혁명, 그자체가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면 오늘 우리 여성들에게 줄수 있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차두림이 조용히 방안으로 들어섰다.

《수령님, 양수기는 매일까지 다 고쳐주기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수도물이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수령님의 안색에 비긴 심려만은 가셔지지 않으시었다. 양수기는 고치면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군들의 여성들에 대한 그릇된 관점은 쉬이 고쳐지지 않을것이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회의에서나 토론에서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끼고 내세워야 한다고 얼마나 말하였는가? 그러나 여성들을 존중하지 않는 일군들한테서 참된 혁명적동지애에 대하여 기대할수도 없는것이다. 웅심이 깊은 바다물처럼 가식도 없고 변할줄도 모르는 도량이 큰 사랑, 인간애로 충만한 그런 사랑만이 진정 여성중시의 옳은 관점을 가지게 될것이다. 여성이 없다면 한 가정의 행복만이 아니라 나라의 행복도 나라의 부흥도 생각할수 없다는 생활의 철리를 진정 체득하기 전에는...

그이께서는 오늘따라 더욱 뇌리에 파고드는 시름깊은 문제들을 파헤치고 해결방도를 찾으시다가 이윽고 차두림이한테로 눈길을 돌리시었다.

《두림동무, 오늘 촬영대에는 수십명의 혁신자들이 올랐소. 그런데 여성동무들은 한사람도 끼여있지 않았소. 과원을 가꾸는것은 거의 여성동무들이 아니요?》

낮으나 몹시 근엄하신 음성이었다.

그 순간 차두림의 얼굴은 불길에 닿은듯 화끈해졌다. 또다시 실책을 범하였다는 무거운 자책감에 마음은 그지없이 웅색하였다. 명단을 보면서 수령님의 깊은 심정을 미처 헤아릴수 없었던것이다.

《일군들이 여성들을 혁명동지로 믿어주고 내세워야 한다고 말은 잘하지만 그건 체면이나 지

키자는 걸치레에 불과하단 말이요.

그러니 촬영장에도 내세울 생각마저 못하거던...》

차두림은 깊은 가책에 잠겨 더한층 몸을 웅송그리었다. 그것은 자신의 머리속에 화석처럼 굳어져있는 그릇된 녀성관때문이었다.

《더구나 이 고장 녀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애국자들이 홀린 피자옥을 피눈물로 씻어가며 나라의 곡창지대를 가꾸어왔고 백리과원을 일떠세웠소. 지금도 그렇지, 아무리 대서특필로 자랑을 해도 그들의 공로는 다 쓰지 못할거요. 그런데 기념촬영에도 다 제외되었거던... 가슴이 아프오.》

수령님의 갈리신 음성은 고개를 숙이고 간신히 숨을 몰아쉬고있는 차두림의 가슴벽을 울리며 끊임없이 메아리쳐왔다.

잠시 방안을 거니시던 그이께서는 다시 자리에 돌아오시여 얼마동안 결상등받이에 몸을 기대신채 마음을 진정하시었다.

《우리가 해방되어 선참으로 여성들에게 줄수 있는것은 바로 인간적인 사랑이었소. 나라는 해방되었으나 우리 여성들은 여전히 온갖 고역과 질곡속에서 살아가고있었소.》

조국이 해방된 이듬해였다. 그때까지 우리 여성들은 온갖 사회적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그래서 여성의 권리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법령을 발표하였다. 바로 우리 여성들이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갈 혁명동지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때 여성들에게 줄수 있는것은 오직 그 믿음과 사랑뿐이었다.

그래서 김정숙동무는 《녀성의 노래》까지 짓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노래를 제일 사랑하였다. 어디에 가나 이 노래를 불렀었다...

그러자 아득히 사라졌던 추억의 화폭들이 어제런듯 생동하게 부각되었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정숙동지와 함께 평양시안에 있는 제사공장을 찾으시었다. 현장을 돌아보시고 한 직장의 휴계실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창문밖에 걸음을 멈추시고 점도록 안을 들여다보고계시었다. 수령님께서 가까이로 가시며 무슨 구경을 하고있는가고 물으시었다. 그러자 녀사께서 조금 옆으로 자리를 비키시며 하시는 말씀이 여성들이 기대를 돌리는것도 불만하지만 저 모습을 보니 우리 여성들이 정말 장하고 막 힘이 생긴다고 존안에 웃음을 함뱉 답으시는 것이었다.

수령님께서 호기심에 잠기시어 안을 들여다보시었다. 방안에서는 녀성들이 모여앉아 흑판앞에 《녀성의 노래》를 쓴 커다란 걸개를 걸어놓고 그 노래를 배우고있었다. 목청을 돋구며 손세까지 쓰면서 성수가 나서 노래를 부르고있는 녀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수령님의 존안에 희색이 퍼지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 녀성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노래까지 가지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었다. 그 후 녀사께서는 보안간부훈련소에 가시여서도 이 노래를 부르셨고 농촌녀성들과 마당질을 같이 하시면서도 이 노래를 부르시었다. 그것은 순전히 흥취를 돋구기 위한것이 아니었다. 녀성들의 가슴마다에 새로운 자각과 존엄을 심어주고 혁명의 한 길에 묶어세우시려는 뜨거운 인간애와 충정의 분출이였다. 그 사랑은 곧 믿음이였다.

《그런지가 수십년이 되였소. 지금 우리 녀성들은 어디에 가보나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혁명의 초소마다에서 큰몫을 훌륭히 수행하고있소. 혁명이 발전함에 따라 그들의 임무는 더 무거워지오. 그런 녀성들에게 우리가 줄수 있는것은 무엇인가?》

수령님께서서는 여기에서 문득 말쑤를 끊으시고 한층더 절박한 안색으로 차두림을 지켜보시며 생각을 이으시었다.

시대도 변하고 혁명임무도 달라졌으며 그에 따라 우리 녀성들의 사회적활동도 한 가정의 울타리에서 멀리 벗어났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것은 우리 일부 일군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그릇된 녀성관이다.

《두림동무, 우리 녀성들은 한 가정의 안해이기 전에 나라의 주부란 말이요. 그들을 떠나 가정의 행복은 물론 나라의 행복이나 부흥도 생각할수가 없소. 그런데 우리 일군들의 생각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있소. 그 그릇된 녀성관이 문제란 말이요. 우리 녀성들이 없다면 나라에 빈자리가 생긴단 말이요, 빈자리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저력있는 음성으로 마지막말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듯 절절하게 말씀하시었다.

×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일군들을 만나 여러가지 사업을 포치하고 돌아오던 차두림은 현관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수령님께서 드신 방 창문으로 불빛이 환히 새나왔다. 그이께서 아직까지 집무를 보시는것이 마

음에 썩여 그는 한자리에 그대로 서있었다. 달밤이어서 주위는 대낮처럼 밝고 고요하였다.

그는 망설이다가 손목시계를 보고나서 조용히 2층계단으로 올랐다. 출입문앞으로 다가선 차두림은 옷깃을 바로하고 방으로 들어섰다.

수령님께서서는 긴 결상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시고 레시바를 끼신채 잠드셨는지 눈을 감고계시었다.

그는 정숙을 지켜드리기 위하여 문가에 서있다가 소리없이 발길을 돌리었다.

《두림동무, 왜 나오오?》

그는 급히 다시 몸을 돌리었다.

《수령님께서 휴식하시는줄 알고…》

그리고나서 밤이 깊었다고 나직이 말씀올리었다.

그이께서는 일이 있어 왔겠는데 어서 가까스로 오라고 손짓을 하시며 결상에서 몸을 일으키시었다.

《난 지금 노래를 감상하고있소.》

그이께서는 레시바를 벗으시며 한번 들어보지 않겠는가고 말씀하시었다.

《수령님, 밤이 깊었습니다. 주무셔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도 잠이 안 오누만.…”》

그이께서는 레시바를 차두림에게 주시면서 약간 소리를 높이시었다.

레시바에서는 조용히 전주가 울리더니 이어 정서깊은 밝은 선율이 흘러나왔다.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심었더니 마을에 꽃이 피었소
봄철에는 구름꽃 하얗게 피고
가을에는 알알이 붉게 익었소
…

수령님께서서는 결상에 기대신채 노래를 들으시었다.

《무슨 노래인지 알겠소?》

《저… 낮에 쌍암작업반처녀가 노래경연심사에서 퇴짜를 맞았다는 그 노래가 아닙니까?》

《그래 어떻소?》

《아주 정서가 깊고 재미가 있습니다. 문제될것이 없을것 같습니다.》

《암, 그거야 물론… 아마 수준이 좀 어리니까 퇴짜를 놓았겠지.》

《제가 왜 퇴짜를 놓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웃으시며 차

두림을 만류하시더니 뜻밖에 이 노래를 누가 작곡했는지 아는지 물어보시는 것이었다.

차두림은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 그저 수령님을 우러르기만 했다. 너무나 의외로운 물음이었었던 것이다.

《작곡가는 바로 이 고장 출신이요. 그는 명곡을 많이 지었는데 해방후에는 〈녀성의 노래〉를 지었고 60년대에는 이 노래를 지었소.》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지금껏 그런 문제에 대하여서는 전혀 생각밖이던 차두림이었다. 그래서 인지 놀라움보다 자책이 앞섰다.

그이께서는 레시바를 받아 탁상우에 놓으시고 회고에 잠긴 추연한 어조로 작곡가를 만나보시던 이야기를 하시었다.

《그의 어머니는 젊어서 멀리서 당하고 갖은 수모와 천대를 받아왔다오. 그런데 해방이 되자 녀맹사업에 그리도 극성을 부렸다오. 그 모습을 보면서 작곡가는 〈녀성의 노래〉를 지었소. 60년대에는 백리과원을 꾸려나가는 이 고장 녀인들의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노래하고싶었다는 것이었소. 녀성들에 대한 진정이 없었더라면 이런 노래들을 지을수가 없소.》

차두림은 옥죄이는 자책감으로 하여 간신히 이 새로 숨을 내쉬었다. 사실 자신은 농촌이나 노동현장에 나갈 때마다 녀성동무들을 만나면 그저 입버릇처럼 수고한다는 말을 하기가 일쑤였다. 그것은 녀성들에 대한 진정에서라기보다 자신의 체면이나 지키는 외교적인 인사치레에 불과하였다. 그는 그것을 부정할수가 없었다.

그이께서는 잠시 입안의 소리로 노래가사를 음미해보시었다.

《작곡가는 이 고장 녀성들을 것처럼 자랑하고 있지만 여기 일꾼들은 그런 녀성들을 촬영장에 내세우기조차 꺼려하고있소. 잘못되었소. 생각할수록 분하단 말이요.》

어느덧 그이께서는 질책어린 아픈 심정으로 되뇌이시며 등받이에 몸을 기대이시었다.

방안에는 엄숙하고 긴 침묵이 지속되었었다.

이윽고 차두림은 피로가 실린 수령님의 안색을 우러르며 어서 주무실것을 말씀드리고 나직이 래일일정에 대하여 문의하였었다.

《아무리 바빠도 래일은 녀성혁신자들을 만나야겠소. 그들이 촬영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섭섭해하겠소. 나까지 그들을 외면할수가 없지. 순간이나마 그들을 위안하고 고무해준다면 여기에 와서 땀 흘렸던 마음이 다소 풀릴것만 같소.》

억제할수 없는 세찬 걱정이 차두림의 한가슴에

밀려들어 끝없이 고평치면서 기쁨만이 아니라 가실길 없는 깊은 죄책감을 자아냈다.

쌍암작업반의 과원안은 아침부터 나들이 옷차림을 한 녀인들이 모여들어 명량한 명절분위기에 휩싸였다. 어느 작업반의 로력혁신자들도 다 모여왔다. 자기들이 가꾼 과일들을 고르고골라 정성껏 바구니나 상자에 담아가지고온 녀인들과 주변에 흩어져 꽃을 꺾고있는 처녀들, 그런가하면 빙 둘러서서 황홀한 옷차림을 매만지며 웃고 떠드는 녀인들.

과일을 포장하던 작업반실앞에는 촬영장이 준비되어있었다. 영광의 시각이 가까와오고있었다.

확성기에서 울려나오는 밝은 노래선율이 쾌청한 하늘가로 퍼져갔다.

...

아 처녀들 아침낮에 꽃보며 웃고
저녁에는 저녁에는 꽃속에서 노래부르오

...

금순이가 소담한 들국화를 아름이 벌게 꺾어들고 목청을 돋구어 노래를 부르며 옥금반장한테로 달려왔다.

《반장동지! 이 꽃들이 어때요?》

옥금반장은 금순이가 안겨주는 꽃을 받으며 어딘가 모르게 난색을 지었다.

《왜 그래요?》

《난 이미 꽃다발을 준비하였는데... 그러니 이 많은 꽃을 어떻게?...》

처녀들이 저마다 금순의 말에 호응해나섰다.

《이 들국화는 우리 과원에 피어난 꽃이 아니냐요? 이 꽃이야말로 우리들의 진짜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구요. 꽃다발은 반장동지가 드리지만 우리모두가 드리는거나 같지요 뭐. 그러니 우리 마음이 담긴 꽃들을... 그렇게 하지요?》

옥금반장은 입가에 얇은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동무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나도 찬성이야.》

그는 여러가지 색깔의 들국화를 품어안고 하들하들하고 생신한 꽃잎에 살뜰히 불을 대었다. 하긴 들국화야말로 과원의 녀인들과 흡사하였었다.

번듯한 옷차림을 할 날이 별로없이 수수한 작업복행색으로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힘들다고 투정질조차 할줄 모르는 그들이었다. 그러나 그 수고를 누가 알기나 하였던가? 오직 수령님께서만이 알아

주시고 오늘과 같은 영광을 안겨주신다고 생각하니 절로 눈곱이 젖어오르는 것이었다.

《어마나? 반장동지 우는게 아니예요?》

《울긴?...》

《혹시 또 어머니 생각이 난가보지요?》

《애도 참... 너무 기뻐서 그러지...》

옥금반장은 얼른 손끝으로 눈곱을 문다지며 수집어 두볼을 붉혔다.

《하긴 반장동지의 기쁨이야 오죽하겠어요.

아버이수령님께서 어머니의 소원대로 과원을 가꾸어온 딸을 만나보고싶다고 하시었다지요?》

금순이가 묻자 처녀들이 또다시 반장을 예뻐하고 좋아서 웃고 떠들었다.

문득 과원밖에서 승용차의 동음이 바람결에 실려왔다.

순간 과원안은 엄숙하고 긴장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사람들이 서둘러 옷깃을 여미고 촬영장에 자리잡느라 잠시 불비였다.

이옥고 승용차가 과원입구에 이르자 차문이 열리며 수령님께서 활기있는 걸음으로 걸어오시었다. 과원안의 엄숙한 분위기를 깨치며 만세의 환호가 터지었다.

한손을 드시고 답례를 보내시는 수령님께서 명절옷차림을 한 녀성혁신자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촬영장가까이로 걸어오시었다.

커다란 꽃뭉음을 들고 리옥금반장이 그이앞으로 정중히 마주나가 허리를 깊이 숙여 큰절을 올리었다.

차두림이 조성실아주머니의 딸이라고 알려드리자 그이께서는 회억이 실린 정겨운 눈길로 반장의 얼굴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시었다. 어제 만났을 때 류다른 인상속에 안겨왔던 그는 지금 연분홍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못 잇을 추억을 되살려주고있었다. 그들모녀의 모습이 어찌면 그리도 신통한지.

그이께서는 반갑고 기쁜 마음을 누를수가 없으시었다.

《그러니 반장동무와는 벌써 세번째 만나는셈입니다. 길가에서 울던 얘기가 이렇게 중년이 되어 어머니를 대신하여 과원을 가꾸고있으니 얼마나 장하오.》

꽃뭉음을 받으신 수령님께서 옥금반장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고 한손을 다정히 그의 어깨에 얹으시었다.

《어머니를 그후에 찾아보지 못했는데 대신 반장동무를 만나보니 서운하던 마음이 다소 풀리는 것 같소. 정말 기쁘오.》

급기야 걱정이 사무쳐올라 리옥금은 눈물을 머금은채 머리를 숙이었다.

뜨거운 정을 담아 전후시기에 여기에 와서 유가족들을 만나던 이야기를 하시는 수령님의 안광에 아픈 추억의 그늘이 비끼자 촬영대는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여기저기에서 녀인들이 웃고름을 들어 눈곱을 훔치었다.

《그때 반장동무의 어머니는 얘기를 풀숲에 놓혀놓고 남편이 심은 과일나무를 가꾸느라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옥금반장이란 말입니다.》

리옥금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내리었다.

《오늘은 동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피가 스민 이 땅에 이렇게 훌륭한 백리과원을 꾸려놓고 과일풍년을 마련하여 나를 크게 고무해주니 정말 고맙소, 장합니다. 난 이에 대하여 감사를 줍니다.》

촬영장에서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그이께서는 녀인들이 진정하기를 기다리시었다.

환호소리가 잦아들고 촬영장이 조용해지자 수령님께서 심중하고 낮은 음성으로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오늘 화려하게 옷차림을 한 동무들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과원을 가꾸고 가정도 돌보느라 좋은 옷차림을 하고 나설 날이 있었겠소. 그래서 내 오늘 동무들이 하루라도 명절옷을 차려입고 즐겁고 뜻깊게 보내도록 하자고 녀성혁신자들과 같이 기념촬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내가 동무들을 위해줄것이란 이것뿐입니다.》

녀성들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힘들어도 그 모든 부담을 레사롭게 여기면서 오직 꽃눈을 많이 틔워 수령님께 과일풍년으로 기쁨을 드리자고 애써온 자신들이었다. 그 남모르는 작은 수고를 이토록 값높이 여기시고 분에 넘친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는 믿음과 사랑에 목메여 흐느끼며 그들은 비로소 녀성으로서의 긍지를 새롭게 받아안는 것이었다.

흐느낌은 오래동안 그칠줄을 몰랐다.

그이께서는 가볍게 손짓을 하시며 이 기쁜 날에 우리 웃으며 사진을 찍자고 달래이시고 먼저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촬영장 앞좌석에 앉으시었다.

한낮의 해별은 한결 파스하였다. 주렁진 사과들이 해별을 받아 더한층 윤기를 돋구며 싱그럽고 달콤한 향기를 풍기었다. 과원안의 숲속에서 메새들이 지저귀었다. 영광의 이 시각을 노래하듯 한껏 목청을 돋구며...

주 체 문 학 의 대 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창작과 건설에 대한 정책적지도이며 정치적지도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구현한 문학창작과 건설의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며 작가들과 광범한 대중이 문학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정치적으로 이끌어주고 밀어준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작가들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창작활동을 벌려 나갈수 없다.》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는 작가의 창의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문학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보다 힘있게 이바지하도록 이끌어나가기 위한것이다.》

《당이 문학사업을 옳게 지도하자면 작가들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짜고들어 그들의 창작발성을 적극 계발시켜나가야 한다.》

수령님과 벼이삭

박 성 일

가을날...

누렇게 무르익어 설레는 벼바다
한가운데 서계시는 우리 수령님
벼이삭 손에 들고 환히 웃으시며
오늘도 우리 농장 못 떠나시네

이 벼바다에 뜨거운 정 쏟으시며
그리도 많이도 걸으신 논두렁길
평생 쌓인 피로 여기서 다 푸시는듯
평생 행복한 순간을
이 벌에서 맞으시는듯

땅이 없어 남알 네가 없어
만경대초가집의 타개죽 끓는 소리
어리신 마음에 아픈 못으로 박혀졌고...
혈전만리 눈보라길에선
한흙의 미시가루를 대원들과 나누셔야 했고...
전화의 어려운 나날엔
인민들과 함께 조밥도 드셔야 했구나

남알 네가 무엇이기에
아버이수령님의 신발에는
때없이 논두렁의 흙이 묻어야 했고
우리 수령님의 집무실 책상우엔
벼종자 네가 자주 놓여야 했던가

우리 수령님에겐
그토록 소중한 벼이삭이기에
나라의 국장에도 병사의 군모에도
벼이삭을 휘감아주셨고
우리 수령님 너를 위해 지팡이 감추시며
쉬임없이 들길을 걸으시였더라

인민때문에
조국때문에
이 난알과 평생의 인연을 맺고사신 수령님
한평생 로고가 다 실리어
깊이 고개숙인 벼이삭들아

눈비에 날리시던 그 옷자락에 감겨들어
어리광치듯 설레이는 벼이삭의 바다여
그 자옥에 뿌리박고 영글은 벼이삭이기에
손으로 차마 어루쓸수 없어
두볼 먼저 대여보는 마음이어

한평생 험한 길만
걸고걸으신 우리 수령님께
인민이 펼쳐드리고싶던
금나락 설레이는 벼바다여
천만년 이 나락속에 모시고싶은
수령님 아, 우리 아버지수령님!

혁명의 천하지대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김정일** 동지의 령도 밑에 당사업도 잘되고 국가사업과 군대사업도 잘 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우리 당을 중심으로 일심단결되어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있으며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고있습니다.》

주체98(2009)년 10월 8일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한지 엇그제같은데 벌써 반세기가 되어온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일군들의 가슴속엔 뜨거운 격정이 솟구쳤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근 반세기, 장구한 기간 그이께서는 우리 당을 명실공히 아버지수령님의 당으로, 선군혁명위업을 향도하는 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나라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치며 강성국가대문을 활짝 열어제낄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해놓으시였다.

이런 가슴벅찬 생각에 감동을 금치 못하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당을 령도하여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릴수 있는것은 동지들이 나를 진심으로 받들고 성심성의로 도와주었기때문이라고 뜨거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혁명앞에 쌓으신 자신의 불멸의 업적은 뒤에 놓으시고 모든 성과는 사랑하는 전사들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는 일군들의 심장을 높뛰게 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싸워나갈 때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일심단결은 혁명의 천하지대본!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을 깊이 새겨볼수록 그 심원한 뜻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안겨왔다.

일심단결, 이것은 곧 혁명승리의 근본담보이며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이다. 그러므로 적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을 제일 무서워하며 그것을 허물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더욱더 교활하게 감행되고있는 적들의 책동을 폭로하시면서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들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그 어디를 가보아도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령도자를 신뢰하고 따르고있으며 자신께서 바라는것이라면 주저없이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좋은 인민이라고, 자신께서는 인민덕을 보고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이 이룩되었다고 하여 절대로 자만자족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언제나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견결히 고수하고 그 위력을 더욱 높이 떨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힘을 넣어야 한다고 힘있는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이 불패의 무기를 더욱 강화해나가는 길에 우리 당의 백승의 위력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바쳐 우리 당을 인민대중을 위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셨기에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유산이고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우리의 일심단결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 의하여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하나로 뭉쳐나가는 우리 천만군민의 앞길에는 이겨내지 못할 시련과 난관이란 있을수 없다.

오늘 세계 진보적인류는 조선의 일심단결을 부러움과 경탄의 눈길로 보고있으며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혁명의 천하지대본을 마련해놓으신 백두산위인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최후의 승리로 힘있게 추동하는 투쟁의 전군가

—가요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에 대하여—

김정평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산악같이 일떠선 위대한 우리 조국의 힘찬 기상,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노도쳐 전진하는 우리 천만군민의 불타는 신념과 의지를 담은 전군가가 힘차게 울려퍼져 모두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향하여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는 혁명의 힘찬 나팔소리, 승리의 북소리로 힘차게 울려퍼지는 가요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윤두근 작사).

가요를 받아안은 우리 천만군민모두의 가슴은 세찬 걱정과 흥분에 휩싸여있다.

가사의 구절구절을 새겨볼수록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을 경축하는 역사적인 열병식장에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최후의 승리로 부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애국의 호소가 가슴에 뜨겁게 되새겨진다.

그날에 하신 그이의 연설의 구절구절이 가사의 구절마다에 새겨져있고 그이의 우렁우렁하진 음성이 노래의 선율마다에 뜨겁게 습배여있다.

진정 가요는 정책적대가 뚜렷하고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사상정서적주장을 강한 호소성과 전투적 기백이 넘치는 풍만한 예술적형상으로 노래한것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견인력과 감화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문학은 눈부시게 발전하는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여야 한다.》

가사창작성과의 중요한 비결은 당의 의도와 시대의 요구를 얼마나 민감하게 포착하고 반영하는가 하는데 있는것이다.

가사는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역사적인 시기에 선군조선의 천만군민은 무엇을 심장에 안고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 하는 시대적문제를 안고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를 따라 선군의 기치드높이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나가야 한다는것을 심오한

사상정서로 무게있게 밝히고있다.

가사는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강령과 호소를 민감하게 반영하였으며 그것을 고도로 집약하여 정론적으로, 호소적으로 노래한 총진군의 나팔소리이다.

바로 여기에 이 가사가 거둔 성과가 있는것이다.

가사는 최후승리의 목표에 대한 형상적해명에 초점을 두고 그 투쟁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과 천만군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짚막하면서도 정교한 서정구조속에 집약화하였다.

일심의 천만군민 정신력 폭발시켜
조선은 강성국가 진군복 울려간다
나가자 백두산대국아 당중앙 부름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앞으로

가사의 1절에서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위대한 당중앙의 부름따라 강성국가건설의 진군복을 힘차게 울려가는 조선의 심장의 웨침을 격동적으로 노래하였다.

일심단결은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혁명승리의 근본담보이다.

인구가 많고 령도가 크다고 하여 강국이 되는것이 아니며 방대한 경제적잠재력을 가졌다고 하여 국력이 강한것도 아니다.

나라와 민족의 밝은 전도와 미래를 확고히 담보하는 국력중의 제일 국력은 일심단결이며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불패성의 상징이다.

일심단결이야말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빛나는 승리와 세기적인 변혁을 안아오는 원동력인것이다.

하기에 가사에서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 떨치고 불굴의 정신력으로 전진해가는 사상의 강국임을 격조높이 토로하고있다.

불패의 군력으로 백승을 떨쳐가며

조선은 강성국가 총대로 떠받든다
나가자 백두산대국아 선군의 기치높이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앞으로

2절에서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백승만을 떨쳐가며 강성부흥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내딛는 내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떠받들려는 천만국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소리높이 구가하고있다.

가사를 다시금 음미해볼수록 총대이자 혁명의 승리이고 사회주의승리라는것이 확정적이면서도 궁지높은 서정으로 안겨오고있다.

그렇다, 무적의 총대우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강성번영이 있다.

오늘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강성국가건설을 무적의 총대로 굳건히 보위하는 불패의 군력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우리가 제국주의자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하며 강성국가건설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것도 군력이 강하기때문이다.

보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지축을 울리며 보무당당히 행진한 우리의 영웅적인민군장병들의 힘찬 발걸음과 무적의 철갑대오가 이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되고있지 않는가!

가사의 3절에서는 1절과 2절에서 축적된 감정을 더욱 승화시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일떠세워나가는 조선의 억센 기상을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새 세기 산업혁명봉화를 추켜들고
조선은 강성국가 기상을 떨쳐간다
나가자 백두산대국아 태양기 축복안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앞으로

새 세기 산업혁명은 우리 힘, 우리 기술로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하는 투쟁의 기치이다.

과학기술의 높이이자 국력이며 경제강국이다.

우리는 고난의 행군시기와 같이 어려운 시기 경제전반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한계단한계단 추진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과 불멸의 업적을 오늘도 가슴뜨거이 되새기고있다.

21세기 기계공업의 표본공장으로 자랑떨치고 있는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에 의하여 기계제작공업에서 일어난 경이적인 사변은 최첨단돌파전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데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이 있다는것

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이렇듯 가사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에서는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라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치여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굳센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고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드시고 내 조국땅우에 기어이 인민의 행복이 활짝 꽃피는 주체의 강성국가, 세상에서 제일가는 백두산대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과 확고한 결심을 완벽한 시형상으로 깊이있게 밝혀낸 여기에 시대의 진군가로서의 가사의 심오한 철학성이 있으며 예술적 일반화의 깊이가 있는것이다.

가사는 작품의 주체사상적해명으로 지향될수 있게 때 절에서 해결하여야 할 형상과제를 뚜렷이 설정하고 해명하면서 집약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체계성있게 전개함으로써 서정구조에서의 정연한 짜임새를 보장하였다.

1절에서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의 위력을 노래하였다면 2절에서 무적의 총대로 위용떨치는 불패의 군력에 대해 노래하고 3절에서는 나라의 경제력을 평가하는 기본척도로 되는 과학기술의 위력에 대해 밝혀줌으로써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을 강성국가건설의 3대기둥으로 내세운 우리 당의 의도가 보다 명백하고 뚜렷하게 서정의 흐름을 펴나갔다.

가사는 또한 정책가요의 가사로서의 특성에 맞게 우리의 투쟁목표가 명백하게, 정확히 반영된 언어표현들을 잘 살려씀으로써 그 예술적형상을 높은 수준에서 펼쳐보이고있다.

가사의 제목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라는 표현은 매우 정론적이면서도 호소성이 강하다. 명령조로 된 이 표현은 그대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부르심을 받들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는 혁명의 힘찬 나팔소리와 같은 박력과 기백을 안겨주고있다.

뿐만아니라 1절에서 《당중앙 부름따라》와 2절에서 《선군의 기치높이》 그리고 3절에서 《태양기 축복안고》라는 언어표현은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따라 선군의 기치드높이 나아가고 절세의 위인들의 축복속에서 번영하는 내 조국의 모습이 함축된 적중한 언어형상이다.

특히 《백두산대국》이라는 표현은 백두산의 넓

가을의 노래

황 성 하

높푸른 하늘
눈부신 해빛
가을의 언덕에 서니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사과바다

정든 내 고향처럼
이 가을에 또다시 너는 나를 불렀구나
목메이게 풍겨오는 과일향기에
마음조차 한껏 젖어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이여
너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맞는구나

곧게 뻗은 새길은
사과숲으로 감추어지고
창가에 과일나무아지 스키는 문화주택들에선
잔치날인듯 웃음소리 노래소리
드넓은 사과숲을 껴안고 솟아난
그림같은 공장들의 희한한 새 모습...

환희로이 들레며 흐르는 대동강은
예나제나 다름이 없건만
땅이여 가없는 과원이여
너 정녕 열기설기 주름잡던
원흥리의 해묵은 그 밭이더냐

다시 보자 과원이여
키낮은사과나무 가지가 휘도록
주렁진 열매들이 이 벌 끝까지 펼쳐진 땅
말 못하는 나무들도
온종일 팔을 들고 하많은 사연을 아뢰는듯

나는 듣노라
무수한 열매들이 잎 성긴 가지들이
끝없이 설레며 목소리 합쳐 웨치는 소리
인민을 위해선 하늘의 별도 따오는 위대한 사
랑이
흙이 되고 즙이 되고 자양이 된 땅이라고

고생을 많이 한 우리 인민이
행복의 열매를 마음껏 따안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자신의 마음속에 익혀오신 꿈을
여기에 펼치신 우리 장군님
리상의 그 열매들이 무르익은 이 언덕에 서시여
보고 또 보시며 기쁨속에 제시던 아버지의 그
심중을
아, 무엇으로 정녕 다 헤아릴수 있으랴

그때부터
너의 기슭에 넘쳐나는 기쁨의 노래여
무르익은 열매의 바다가 설레이는 소리
과일종합가공공장에서 맛있는 음료들과 화장
품들이
흐름선을 타고 쏟아지는 소리
풍요한 가을의 노래가 되었거니

아, 우리 장군님
인민위해 바치신 그 사랑 그 헌신으로
이 땅엔 인민의 행복이 꽃피었구나
생활의 풍성한 열매가 끝없이 주렁지는
가을의 노래가 태어났구나

과 기상이 나래치는 우리 조국,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들의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
부심이 한껏 습배여있는것으로 하여 천만의 심장
을 세차게 울려주는 명시어이다.

가사의 예술적형상은 또한 정론적이며 호소성이
강한 가사형식에 맞는 운률조성을 깊이있게 탐구
하고있는것이다.

가사는 3.4, 3.4조의 음수물로써 기백있고 약동
적인 운률을 보장하고있으며 대구법, 반복법과 같
은 표현수법도 유용하게 쓰고있다.

가요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는 이
와 같이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

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라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명언이 그대로 불
길처럼 맥박치고있는것으로 하여 영웅조선의 기상
과 지향을 반영한 혁명의 진군가로 오늘의 총진군
대오앞에 힘차게 울리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들끓는 현실에 더 깊이 들어가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와 같은 시대의
훌륭한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 군대
와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
쳐 백두산대국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며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나
아가도록 적극 고무추동하여야 할것이다.

백두산을 안고살자(1)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영원히 고수하고 빛내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인들은 지난 6월말부터 7월초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백두밀영고향집 그리고 삼지연과 보천보일대를 답사하고 현지에서 서정시창작전투를 진행하였다.

편집부는 그들이 창작한 시작품중에서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련시 《백두산을 안고 살자》의 표제로 묶어 련재한다.

백두산에 올라

황 명 성

어깨엔 외줄배기병사
꿈 많던 흥안의 시절
내 올랐던 백두산
다시 찾으니 감회도 새로워

만병초잎새에도 불을 대어보며
산정의 하얀 부석도 만져보며
장군봉에 오른 이 마음
왜 이다지도 뜨거워지느냐

그날에 애앓았던 병사
머리에 흰서리 내렸건만
다정히 전우라 사랑 주고 동지라 믿음 주시여
그립던 백두산에 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그 사랑 그 믿음

백두바람에 몸을 맡기고
천지의 푸른 물로 목을 추기니
내 병사시절로 되돌아가는듯
툭툭 흥벽을 치는 젊음넘친 심장의 박동

나는 백두산에서
심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너는 제대를 모르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병사다!

세월을 이어 받아안은 이 영광
내 한생 길이 빛내가리라
또 한분의 백두산의 장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는 그 길에

어디 있느냐
무적의 나의 근위련대여
펼 펼쳐 날리는 군기앞에
선서다진 이 병사도 세워달라

여기 백두산에 불러주신
최고사령관동지의 품에 안기여
용암처럼 뿜어쏘는 열정이어
천만봉 눌러딘고 달려갈 기상이어

걸음걸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빛나는 위훈만을 새겨가려니
근위병사의 영원한 삶
아, 내 한생의 시작도 끝도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있구나!

백두밀림아 밀림속 길아

서 진 명

설레는 가슴 진정할수 없구나
이제는 귀밀머리 희숙해진
옛 청년답사대원 나를 알아본듯
푸른 잎새 흔들며 반겨맞아주는
푸르청청한 백두의 밀림아

밀림을 누비며 뻗어간 행군길아
숨을 쉬어도 숲의 정기어린
백두의 청청한 공기로 숨을 쉬고
물을 마셔도 투사들이 마시던

사연깊은 샘을 마시고
길을 걸어도 투사들이 앞서걸은
전적지의 길을 걷기때문이다나

스스로 놀랍기만 하구나
바라보이는 백두는 지척인듯
쿵쿵 심장은 흥벽을 울리고
내 짙는 걸음걸음에 힘이 넘쳐나
행군대오의 앞장에 서서 걷는 이 마음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 가고가리라
불같은 맹세로 젊은 피 끓이며
첫 답사길을 걷던 피끓던 그 시절은
추억속에서만 그려보던 그런 시절이더나

고맙구나 고마워
세월의 물결에 실려 멀리도 가버렸던
그날의 젊음을 청춘의 열정을 되살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르는
대오의 앞장에 나는 서있거니
다시 한번 불러보자
아, 백두산 혁명의 성산아!

진정 내 이 길을 걸으며
마음의 신들메 힘껏 조이지 않았더라면

최후의 승리를 향한 행군길에서
이처럼 대오의 기수마냥
젊음에 넘쳐 앞장서 걸을수 있으라

10년 20년...
년륜에 년륜을 더 새겨안을수록
더 왕성하게 하늘을 받들고 키를 쫓구는
이팔나무들아 전나무들아
너는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선군조선의 태양만을 우러르며 살
내 신념의 역센 기둥

먹내 싱그러운 글발을 안고
나를 불러세우는 구호나무들아
너의 그 구호문헌들은
백두에서 시작된 혁명의 한길을
변함없이 가고갈 내 가슴에
끝없이 쫓구칠 열정의 샘이며 삶의 좌표

내 이제 고향도시로 돌아간대도
백두밀림아 밀림속 길아
너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함께 있으리
그러면 나의 삶은 언제나 너처럼 푸르리라
혁명의 최후승리 그날로 이어진 너의 길로
내 한자육의 헛디딤도 없이 곧바로 걸으리

나는 백두산이 준 심장을 지녔다

김 남 호

백두산!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네우에 오르기를 소원했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우에 올라
투사들의 값높은 삶을 지녔던가

내 또한 것처럼 너를 그렸고
불같은 소원을 안고 네우에 오르나니
구름을 치뚫고 솟아오른 신비의 절정
하늘가에 거연한 조종의 산이여
혁명의 열정에 끓는 이 심장을
크나큰 품에 안아준 백두산이여

백두의 거센 바람
이끼푸른 절벽을 안고선

내 마음은 지금 예전같지 않구나
숨결도
맥박도
생각도

불도가니마냥 온 천지를 들끓이며
향도봉마루에 태양이 솟아
눈부신 해발이 누리를 휩싸고
내 온넛이 이름 못할 승엄함에
화산처럼 불타오르누나

오, 삼가 머리 숙어지는
백두의 성스러움이여
여기선 태양이 제일 가까워
만병초도 눈속에 피어서 웃고

천지의 호심은 티없이 맑아
우주대공에 그윽한 정기 뿜어라

여기서 태양을 우리러
내 심장의 매혹 한껏 터치며
삼천리 내 조국을 더 뜨겁게 안아라
혁명에 끝까지 충직할 맹세
백두의 번개처럼 벼려 만나니

끓어라 고동쳐라 나의 심장이어
백두가 안겨준 붉은 녀트로
내 언제나 태양 제일 가까이에서
그 태양을 지켜 길이 삶을 빛내는

백두의 초병되리

이 한몸 성스런 위업에 바쳐
다해갈 충정과 의리
가슴에 바다같고
붉은 맹세는 피로 끓어라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찬란히 빛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 없인 순간도 못사는 삶
그이를 위해 고동칠 붉은 심장을
백두산이 나에게 주었다
나는 백두산이 준 심장을 지켰다!

장군봉의 메아리

리 명 옥

필필필
붉은기 날리며 장군봉에 오르는 대오
우리를 반기는 백두의 환호런가
터치는 바람
아, 장쾌하고 거세찬 백두의 바람

거악의 메부리들을 흔들며
천지의 안개를 휘감아올리며
순간에 천리수해로 내닫는 바람아
나는 너에게 온몸을 맡기고
백두를 호흡하노라

번개여 더 높이 붉은 칼을 쳐들라
우뢰여 더 세차게 진감하라
하늘땅을 울리는 그 우뢰는
항일의 김대장을 받든 열혈의 투사들
그들이 남긴 심장의 메아리는 아니던가

잊지 말라고
혁명의 참뜻을 잊지 말라고
눈보라 지동치는 2월의 백두산정에 터치신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의 호탕한 웃음소리는
백두의 바위와 풀과 나무들에 새겨져있고

불의를 향해 천하를 호령하던
백두산3대장군의 거룩한 숨결소리는
이 조선을 떠메고 나서신
김정은동지의 우렁찬 발걸음에 있어라

천하를 품어안은 백두의 도량은
그이의 자애깊은 마음에 다 넘쳐있어라

오, 백두산상에도 산상
여기 장군봉정점에선 다 들려오고 다 보여온다
세기를 호흡하시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심장의 박동소리
강산에 울리는 그이의 발걸음소리
기어이 가당을 최후승리의 그 앞날까지

무궁한 힘 열렬한 정신
김정일애국주의로 천만의 심장 하나로 뭉치게
하신
그이의 불타는 심장의 열원은
정녕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그 시원이 있어라

오, 백두산
김정은장군님을 받들어
혁명위업계승의 억척의 뿌리를
백두에서 지심깊이 내리운 우리 대오
그 대오 가는 앞길엔
승리만이 영광만이 있으리니

붉은기여 필필필
더 세차게 백두의 바람을 안으라
장군봉의 메아리를 기폭에 새기라
우리에게 또 한분의 백두의 천출위인
김정은장군님이 계신다

눈은 녹고 녹아도

위 명 철

사계절 흰눈을 떠인 곳이라기에
삼복에도 그러라 했더니
정녕 놀랍구나
계곡에 산상에 그늘진 곳에
녹지 않은 흰눈

너무도 신기해
두손모아 담아들고
보고 또 보는 흰눈
차거운게 눈이라 하지만
뜨거움을 더해주는 눈이어

이 눈이었지
고향 만경대를 떠나 눈길 천리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
리라시던
그 맹세 안으신 수령님따라
이 나라 빨찌산들이
혈전의 자욱을 새겨안은 눈

이 눈이었지
혁명의 사령부를 응위해
백설의 광야에 선혈을 뿌리며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고동친
애국의 심장의 박동이 다 숨배인 눈

때로는 빨찌산의 식량이 되었다
이 눈
때로는 빨찌산들의 이불이 되었다
이 눈
때로는 혁명과 배신을 가르는 시금석이 되었다
이 눈

두손 모아 담은 눈은 녹아
물이 되어 땅을 적셔도
가장 깨끗하고 변심없는
충정의 삶의 자욱 새겨안은 흰눈은
이 가슴에 이글거리는 불덩이마냥 남아있고

눈은 녹아 땅에 떨어져도
그날의 항일의 투사들처럼
수령결사옹위 이 하나의 맹세로 불타는
나의 녀 나의 심장에
방울방울 피방울로 흘러들거니

아, 백두에서 시작된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전통
영원히 대를 이어가며 빛내라고
삼복철에도 녹지 않는 눈
내 심장에 안아보노라
백두의 눈 녹지 않는 눈을!

눈과 꽃

주 경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니
눈과 꽃이 함께 있구나
마치 봄이 겨울을 지켜주는듯
겨울이 봄을 안아주는듯

폭신한 풀이끼 덮인 산정엔
만병초... 백리향... 금매화...
바람에 향기를 날리고
등성이며 골짜기마다엔
녹을줄 모르는 흰눈의 세계

눈보라 날리는 엄한속에서도

만병초는 눈속에서 피어웃고
한여름날에 올라도
흰눈은 녹을줄 모르나니

신비로운 자연의 이 조화
내 정녕 알길 없어도
가슴뜨겁구나
지금도 저 흰눈우엔
내 조국의 해방과 번영을 위해 남기신
백두산위인들의 그 자욱 못 잊어
백두여 너의 산정우엔
눈과 꽃이 함께 있구나

장군봉의 이름 모를 꽃에 부치여

김 선 화

억세여라
네 파아란 잎새
부드럽고 연연해도
그지없이 아름답구나
네 하이얀 꽃송이
예쁜 이슬마냥 작아도

사시절 흰눈이 녹지 않는 곳
사시장철 모진 바람 휘몰아치는 곳
한줌 흙도 바이 없는
천연부석 토양삼아 뿌리내려 망울터친
백두에도 장군봉에 피어웃는 꽃이여

네 이름
아직은 내 알지 못해도
나는 네가 한없이 사랑스럽구나
나는 네가 더없이 자랑스럽구나

내 마음속에 소중히 너를 안고 가노라
네결에 어느때나 나도 함께 피리라
천지의 물안개에 깨끗이 꽃잎 씻고
떠오르는 해돋이에 꽃술 곱게 단장하고
태양 우러러 향기풍기는
너처럼 내 살리라
아, 장군봉의 꽃이여!

최후승리의 바다가...

박 정 애

장재도
무도
여기에선 머나먼 꽃이건만
이 가슴에 파도치는 바다

뜨거운 네 물결우에 달려오누나
풍랑사나운 바다를 헤치던
수수한 그 목선이
우러르면 뵈을듯싶구나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며
배우에 허물없이 앉아계시던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그곳이 어디기에
그처럼 스스럼없는 모습으로
그리도 담대무쌍하게 찾으시랴
아기를 안으시고 볼도 다독여주시며
아기의 미래를 축복해줄수 있으랴

못 잊어 감격에 못 잊어
걱정의 파도를 일으키는 바다여
이슬에 옷자락 적시시며
섬방어대 감시소에 오르시던 그 자욱
병사들과 군인가족들 한식술처럼
사랑의 품에 안아 사진을 찍어주시던 그 모습이여

이 땅의 최대열점지역
다치면 터질듯 한 일촉즉발의 준엄한 시각에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
백두산악같은 배짱을 지니신
그이는 위대한 승리의 선언을 안고계시였다

만일 침략자들이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분계선장벽을 허물고
남으로 남으로 노도치는 철의 대오
연평도를 단숨에 불바다로 만든것처럼
원썹들의 소굴을 송두리채 날려보낼
그 순간을 눈앞에 보시는 그이

—우리의 령토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즉시적인 섬멸적반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가라!
그이께서 내리신 명령

오, 백두의 천출명장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그이 헤쳐오신 서해를 안은
군민의 마음에 조국통일을 이룩할
원썹격멸의 바다가 설레인다
바다우에 또 하나의 최후승리의 바다가!...

자그마한 연필 하나에서

리 명 현

《아버지! 의정이란게 뭐나요?》

연필갑에서 꺼낸 수지연필의 상표를 보던 아들이 문득 나에게 하는 질문이다.

한번 물어보기 시작하면 자기 의문이 풀릴 때까지 몇번이고 거퍼 질문을 들이대며 끝장을 보는 아들의 기질을 아는터이라 나는 빙긋이 웃었다. 그리고 차근차근 말해주었다.

《그건 나라의 주권기관에서 토의결정하게 되는 문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아니나다를가 다시 들이대는 질문.

《그럼 왜 연필의 상표를 의정이라고 달았나요?》

아들의 두번째 질문은 왜서인지 가슴속에서 좀처럼 체험하지 못했던 류다른 감정이 부풀어오르게 한다.

의정과 연필!

세계 어느 나라 력사의 갈피에 주권기관의 중요 의정으로 연필문제를 상정한적이 있던가.

선군장정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인민생활을 위한 경공업부문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100(2011)년 5월 평양수지연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그 소식을 듣고 공장을 찾았을 때의 감동이 지금도 생생하다.

평양수지연필공장은 모든 설비들이 현대화되고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참으로 멋쟁이공장이었다.

놀라움에 가까운 탄성이 연방 터져나왔다.

그때 기대에서 흘러나오는 수지연필을 하나 집어 들고 이름을 들여다보던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금빛 활자로 찍혀진 의정이라는 글발.

이 땅에 해방의 감격과 환희가 끓어번지던 그 날들이 감회로이 떠오른다.

온 나라 강산에 민족재생의 기쁨이 물결치던 그때 우리 인민에게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은 인재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신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온갖 착취와 멸시

를 받으며 글 한자 못 배웠던 우리 인민이 자식들에게만이라도 연필을 쥐여주어 공부시키고 싶은 간절한 소망도 헤아려 후대들을 인재로 키우는 데서 필요한 연필문제는 단순한 실무적문제일수 없다 하시며 그것을 주권기관회의의 중요한 의정으로 상정시키시어 후세손손 길이 전할 후대교육발전의 귀중한 초석을 마련해주시었다.

그 의정과 함께 그후 여러가지 훌륭한 교육적시책들과 혜택이 있어 내 나라는 이 세상 으뜸가는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가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 찾아오셨던 그날을 회고하며 조립직장장이 감격에 젖어 하던 말.

《새 제품의 종류수와 질을 가늠해보시고 대단히 만족해하시던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수지연필을 생산한다고 하여 나무연필생산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어린 학생들이 처음부터 글씨를 곱게 쓰는 습관을 붙여주는데는 나무연필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때 나의 가슴속에서는 이름할수 없는 걱정외의 파도가 세차게 물결쳤다.

온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보살피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어린 학생들의 글씨를 바로잡는 문제에까지 마음을 쓰신 우리 장군님!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때부터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하시며 후대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이으시어 우리 장군님께서 교육발전을 위해 기울이신 사랑 우리는 해를 두고 이야기해도 다하지 못한다.

나라의 수재양성과 교육을 위해 국가적인 교육망도 꾸려주신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산간마을의 학생들을 위해 사랑의 컴퓨터도 보내주시고 우리 대학생들이 세계 최첨과학기술을 소유하라고 전자도서관도 세워주시었다.

어찌 그뿐이라.

대학생들의 신체단련을 위해 세계 일류급의 수영관도 세워주시었다. 자금을 아끼지 말고 세계적인 최첨단설비로 장비된 온실도 꾸려줄데 대한 사랑의 조치도 취해주시었다.

때는 왔다 최후의 결전이다

김 춘 길

복수로 끓는 심장에
증오로 불타는
천만군민의 가슴에
엄숙히 내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

—우리의 평토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즉시적인 섬멸적반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가라!

백두령장의 담력과 배짱을 안고
온 나라 병사들과 인민들
돌격의 진지를 차지하였다
단숨에 남해의 한끝까지 달려나갈
멸적의 투지를 안은 우리의 무력
원췌들의 소굴을 조준경에 넣었다

오, 기다리던 시각
민족의 숙원 쌓이고쌓인 원한을
풀 시각은 왔다
천백배로 끓어넘치는 복수의 용암으로
원췌들을 이 땅에서 영원히 불태워버릴

우리는 백두령장의 병사거니

원췌놈들 감히 이 땅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단숨에 적의 소굴을 짓밟개버리리라
무자비한 보복의 성전에서
살아남을 원췌는 한놈도 없다

최후결전의 시각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과 그 추종자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통일의 새아침을 맞이하리니

그날 세계는 보게 되리
김일성, 김정일선군조선의 하늘가에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를
제2의 7.27전승의 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날을

오, 그날을 앞당길 때는 왔다
최후결전의 시각은 왔다



이 토 록 사 랑 을 기 울 이 시 고 도 위 대 한
장군님께서서는 청년과학자들이 자체의 지혜와 기술
로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렸을 때에는 그리도 기
뻐하시며 그들을 친히 만나시여 고무격려도 해주
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다.

나라의 교육문제에 깃들어있는 위인들의 사랑의
력사를 갈피갈피 더듬느라니 나는 온몸이 숭엄한
격정에 휩싸이게 되었다.

절세의 위인들의 사랑의 력사가 바로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더 밝고 더 창창히
이 땅에 흐르고있다.

우리는 너무도 생생히 가슴마다에 간직하고
있다.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
합단체대회에서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후대사랑의 뜻을 정
히 받들어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울것이라고 내외에 엄숙히 천명
하시던 고귀한 말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계시여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새 세대들에게는 영원토록 밝은 미래만이
있을것이니.

나는 다시금 수지연필의 상표이름을 들여다
본다.

그 어떤 단순한 단위로는 표시할수 없는 천군만
군의 무제가 마음에 확 안겨든다.

그렇다!

오늘날 강성국가건설을 담보해주는 과학기술
의 발전을 위한 교육문제, 연필문제는 어제도 오
늘도 래일도 언제나 이 땅에 **김정일**애국주의의 열
풍을 세차게 일으켜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이끄심따라 나아가는 내 나라, 우리 공화국의 영
원한 의정으로 남아 길이길이 사랑의 력사를 전해
가리라.



홍 남 수
그림 김 광 석

뭐라고요? ×령도로관리원녀인을 취재하러 가는 길이라고요?

허허, 일도 참. 그 녀인이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 정말 반갑다구요? 기자선생도 참... 할수 없군요. 그럼 제 우리 어머니가 령으로 오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

제가 열한살나던 해였습니다.

×시에서 살던 우리는 도시를 떠나 령아래의 산기슭에 새로 지은 아담한 집에 이사집을 풀어놓았습니다.

방안 두칸과 부엌이 달린 집은 아직 송진내가 풍기는 널판자로 일매지게 울타리를 둘러쳤는데 방안벽은 꽃무늬의 도배지를 발랐고 노란 장판구들은 미리 불을 때놓아 온기가 돌았습니다. 부엌도 가마를 올려놓고 불을 때기만 하면 밥을 지어 먹을수 있게 다 꾸려져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사집을 정리하고나서 부뚜막에 가마를 올려놓고 아궁이에 불을 지켰습니다. 불은 연기 하나 내지 않고 잘 들었습니다.

산중의 낮은 얼마나 짧은지 주위를 눈에 익히기도 전에 밤의 장막이 자그마한 우리 집을 뒤덮었습니다. 가뜰이나 싱숭생숭한 마음을 다잡을수가 없어 저녁밥을 먹자마자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은 점점 더 초롱초롱해졌습니다.

방안은 아늑하고 등을 댄 구들은 따끈하였지만 마치 빈집에 들어온듯 썰렁한 느낌이 들었던것입니다. 집가까이에서 《캥!》 《캥!》 하는 산짐승 울음소리가 청송맛게 들려왔습니다.

벌떡 몸을 일으킨 나는 겁먹은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건 무슨 소리나?》

《여우울음소리다.》

《엄마, 우린 여기에 왜 왔나요?》

나의 물음에 어머니는 입을 다문채 물끄러미 나를 마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머니는 호— 하고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왜서인지 어머니의 침묵을 선뜻 깨뜨릴수가 없었습니다.

이 령은 나의 아버지와도 깊은 인연을 맺고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전 그 령넘어 최전원에서 군사복무를 하던 나의 아버지는 초소로 기여든 적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리던중 척추에 심한 부상을 입고 갓 스무살에 제대된 영예군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그 령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곤 하였습니다. 굵이굵이 령길과 아찔한 천길 낭떠러지며 칼벼랑들 그리고 봄여름내 무덕무덕 피어나 령길을 장식하던 이름모를 들꽃들이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그 령을 지켜싸운 인민군용사들의 이야기며...

지금도 나의 망막속에는 그 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매번 새로운 감정에 휩싸이며 축축히 젖어 오르던 아버지의 눈시울이 깊이 새겨져있습니다.

아버지는 총상자리가 도지면서 갑자기 침상에 눕기 전까지 (나는 영예군인인 아버지가 어쩌서 부디 그런 일을 하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도로관리원이었구요.

어머니는 자기 직업에 무척 애착을 가지고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깨끗이 쓸어놓은 길로 출근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나도 마음이 즐겁고 깨끗해지는것 같아요.》

늘쌍 어머니가 하던 말이였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한테서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한번도 탓해본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든 도시를 떠나 낯설고 물설은 곳으로 이사를 온 어머니에 대해서는 리해할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지 얼마 되지 않는 때에...

사실 나는 이사를 올 때 짐을 싣는 사람들을 막 무가내로 막아나섰습니다.

《신지 말라요. 우린 이사를 가지 않겠어요.》

내가 어찌나 고집스레 그랬는지 사람들은 주춤망설이며 큼직한 보따리를 들고나오는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어머니한테로 막 달려가 울먹울먹 말했습니다.

《엄마, 이사를 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요.》

어머니는 뜻밖인듯 바르르 떨리는 시선으로 나를 마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 앉으며 내 손을 꼭 잡아쥐더군요.

《철남아, 우린 좋은데로 이사를 간단다. 이제 이사를 가서 네가 좋아하는 감나무를 많이 심자. 좋지?》

어머니의 입술에 떠도는 한줄기 미소와 눈속에 비끼는 애정때문인지 나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끄덕끄덕하였습니다.

짐을 다 싣고 차가 떠날 때 어머니는 운전칸에 탈 자리가 있었지만 적재함에 올랐습니다. 도시는 우리의 시야에서 점점 멀어져갔습니다. 무심결에 어머니를 쳐다보니 어머니의 두볼로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내리고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좋은데로 이사를 간다면서 왜 울까?...

이렇게 생소한 땅에 집을 품 첫날밤은 어머니를 리해할수가 없는 어린 총각애의 뒤번저지는 상념속에 깊어만 갔습니다.

며칠후 어머니는 나와 한 약속대로 어린 감나무를 얻어다 집앞에 세그루씩이나 심었습니다.

《어머니, 이 나무에서 감이 언제 열리나요?》

어머니의 일손을 돕던 나는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감나무에 버팀목을 세워주며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나갈 때쯤이면 감이 열린다고 대답하면서 이렇게 덧붙이였습니다.

《네가 군대에 나갔다 돌아올 때면 이 감나무도 몰라보게 자랄게다. 철남아, 사람은 일생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된단다. 그것이 먼 후날에 가서 즐겁게 되새겨볼 추억으로 되지. 너의 추억의 한페이지에 이 감나무가 푸르게 살아있길 바래서 어머니 너와 함께 나무를 심는거야.》

어머니는 마치 내가 열한살이 아니라 세상물정을 다 알고있는 어른이기라도 하듯 의미심장한 어조로 말했으나 나는 그만 락심하고말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하나? 눈에 보이는것은 높은 산과 바위, 나무와 청송맞은 산짐승울음소리뿐인 여기에 어머니는 무슨 미련을 가지고있을까?...

이튿날부터 어머니는 손달구지에 삼, 곡괭이, 비자루를 싣고 집을 나섰습니다.

우리 집에서 조금 내려가면 령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집니다. 아침이면 나는 그 길에서 어머니와 헤어지곤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령길로 손달구지를 끌고 올라갔고 나는 10리나 떨어진 농장마을 학교에 가곤 하였습니다. 나는 매일 왕복 20리를 걸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나보다 몇갑절 더 많이 걸어야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령길고개마루까지 돌아보며 길을 손질하였던것입니다. 어머니는 늘 나보다 늦어 집에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와 어머니가 없으면 복슬강아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토방에 앉아 어머니를 기다리며 밤하늘의 별을 세여보곤 하였습니다.

별은 어느날에는 밤하늘을 한가득 채웠고 또 어떤 흐린 날에는 듕성듬성 보이곤 하였습니다. 한번은 별 하나가 동쪽으로 움직이는것이였습니다. 나는 하도 신기하여 그 별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별이 어떻게 움직일까? 나는 내가 발견한 신기한 별을 어머니에게 보여주고싶었습니다. 별은 동쪽으로 자꾸만 가고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들어올까?

기다리던 손수레소리가 길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텅기듯 일어나 어머니한테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저 하늘에 움직이는 별이 있어요.》

나는 손을 쳐들어 하늘의 한곳을 가리켰습니다.

《별이 움직이지요, 어머니? 내가 발견했어요.》
나는 빠기듯 말했습니다.

《철남아, 저건 별이 아니라 인공지구위성이 라는거다. 너도 우리 나라에서 <광명성1> 호를 쏘올린것을 알지 않니. 바로 그런 인공지구위성이 밤이면 저렇게 별처럼 보인단다. 하늘에는 저런 인공지구위성들이 많이 떠있단다. 저길 보렴. 저기에 움직이는 별이 또 있지 않니.》

정말 하늘에 움직이는 별이 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체에 대하여, 인공지구위성의 종류와 사명에 대하여 하나하나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에 심취되어있던 나는 점차 흥미가 없어 시무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아는것이 많은데 어째서 이런 곳에 와서 도로관리를 할가?...

정말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습니다.

내가 하루공부를 끝내고 학교에서 돌아오고있는데 한대의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며 내옆을 지나치다가 저쪽 앞에 멈춰서는것이었습니다. 중키에 몸이 다부진 한 군관이 차에서 내려 나한테로 마주 걸어왔습니다.

《애, 너 여기서 사냐?》

그는 내앞에 우뚝 멈춰서며 특유한 웅글진 목소리로 묻더군요. 나는 집쪽을 가리켰습니다.

《예.》

《웁구나, 도로관리원 아들이. 네 이름이 뭐냐?》

《조철남이에요.》

《아버지이름은 어떻게 부르냐?》

《조판국이에요.》

내 대답이 끝나는것과 동시에 그의 시꺼먼 눈썹이 꿈틀 움직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있더니 내 얼굴을 한동안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후 그가 퍽 낮은 목소리로 묻더군요.

《네가 조판국이 아들이란 말이지?》

얼굴색이 퍽킵하게 변한 그의 두툼한 입술사이로 신음비슷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서 어머니한테로 가자.》

내 손을 잡고 차에 오른 그는 운전사에게 빨리 가자고 재촉하였습니다.

《속도를 내오.》

평길중턱에서 도랑을 치고있는 어머니가 앞시창에 나타나자 그는 차를 세우고 성큼 내려섰습니다.

《수고합니다, 아주머니.》

어머니는 엉거주춤 허리를 펴며 성큼성큼 다가

오는 그를 마주보았습니다.

《아주머니 남편의 이름이 조판국이지요? 이 령넘어에서 군사복무를 하다가 제대되고, 웁지요?》

어머니의 두눈에 의혹이 가득 실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아쥐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자기의 말이 사실임을 안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판국동무의 중대장이었습니다. 판국동무의 아주머니가 도로관리원으로 왔다는 말을 듣고 언제부터 찾아뵙는다는게 이제야 왔습니다.》

그가 묵직한 손을 내 어깨에 얹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애가 신통히 판국동무를 닮았더군요.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아주머니 남편을 대신해서 여기 왔군요.》

그는 묻지 않아도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감정을 곁에 잘 드러내는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날엔 남편의 중대장을 뜻밖에 만난 흥분이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나 눈굽에 반짝이는것이 보였습니다.

그 군관아저씨는 이 길로 자주 다니니 후에 다시 들리겠다며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멀어져가는 차를 바라우고 선 나의 마음속에 아버지께 대한 생각이 걸잡을새없이 치밀어올랐습니다. 아버지도 살아있었다라면 지금쯤 장령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머니도 이런 외진 곳과 도로관리원이 되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세상에 없다, 아버지가 없어 어머니가 여기로 왔고 나도 먼 학교를 걸어다녀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후 그 군관아저씨는 우리 집에 파란 비닐판을 가지고와 샘터에서 집까지 수도를 놓아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샘터로 물길러 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그후에도 우리 집 일에 원심을 쓰곤 하였습니다.

나는 그를 려단장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사온지도 벌써 한해가 되어오던 어느날 나는 공부가 끝나자 학교로 질러가는 길옆의 밤나무로 달려갔습니다. 추석이 가까와오는 때라 밤이 한창 익어가고있었습니다. 다람쥐처럼 나무에 기어오른 나는 이 가지, 저 가지로 옮겨가며 익은 밤송이를 골라털어 한곳에 모아놓고 불을 지폈습니다. 나는 군침을 연방 삼키며 이따금 기분 좋게 밤알들이 툭툭 튀며 구수한 냄새가 풍기

는 밤무지에 정신을 팔고있었습니다.

일은 그때 벌어졌습니다.

언제 불씨가 튀어났는지 옆에서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기다리고있든듯 바람이 불길을 사방으로 번져갔습니다. 나는 옷을 벗어 불을 끄느라 덤벼쳤지만 되려 불은 사방으로 더 번져갔습니다. 당황해진 나는 도망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신없이 허겁지겁 뛰어내리던 나는 산아래서 러단장아저씨와 운전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사연을 묻지 않고 서둘러 불부터 끄더군요. 다행히도 불은 몇 포기의 애술을 태워버리고 크게 번져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숯검댕이가 얼룩진 얼굴을 푹 숙이고 정수리에 떨어질 러단장아저씨의 추궁을 기다리였습니다. 러단장아저씨는 의외로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더군요.

《철남아, 너 집에 들렀다 왔니?》

《아니요. 곧장 여기로 왔어요.》

한동안 러단장아저씨는 아무 말도 않고 나를 지켜보기만 하는것 같았습니다.

찌긋이 눈을 떠보니 러단장아저씨가 두눈을 무겁게 치프는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쩍 울리는 바람에 나는 빼들었던 목을 두 어깨사이에 틀어박았습니다.

《덜된 녀석, 네가 얼마나 큰일을 저지를번 했느냐? 불이 크게 번졌더라면 어쩔번 했어? 어머니가 기다리겠는데 집에도 들리지 않고… 헛, 참…》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입을 열수 없었습니다. 산에 올라와 불장난질을 한것이 보통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이제 러단장아저씨가 어머니를 만나 모든것을 자초지종 이야기할까 봐 마음이 불안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이 일을 안다면…

그때 러단장아저씨는 더 욱하지 않고 연기가 모록모록 피어오르는 밤청대무지로 내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앉아라. 운전사동무, 좀 보오. 밤청대솜씨가 어른들 찢쳐먹겠구만. 허허.》

러단장아저씨는 나무코챙이로 불무지에서 가시가 말짱 타버린 밤송이를 끄집어내여 꺾질을 벗기고 노르스름히 익은 밤알을 꺼냈습니다. 두손에 엇바꾸며 밤알을 식히더니 나한테 주더군요.

《옛다, 밤청대주인이 먼저 맛봐야지.》

다른 한알의 꺾질을 벗기던 그가 천천히 눈길을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나를 지그시 압박하였습니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철남아, 넌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직 잘 모를게다. 여기 령길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용사들이 흘린 붉은 피가 스며있다. 그래서 우리 전사들은 이 땅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있다. 바로 너의 아버지도 그랬다. 넌 아버지의 넋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 어머니가 정든 도시를 떠나 낯설고 외진 이곳에 온것도 아버지의 넋을 헛되게 하지 말자고 온게 아니냐. 그런 어머니의 마음에 그들을 던지면 넌 불효자식이다. 알겠냐?》

《예.》

《녀석, 대답은 잘하는군. 소귀에 대고 경을 읽었는지 모르겠다. 허허.》

아닌게아니라 나는 그의 말을 다 리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넋이 어떤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날 저녁 러단장아저씨가 령길에서 어머니를 보았겠는데 집에 들어온 어머니의 얼굴에는 별다른 기색이 없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에 다닥다닥 없었던 긴장을 후— 모두숨으로 내뿜며 러단장아저씨를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별을 많이 단 사람이 달라 하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저녁을 먹고 삼과 곱갱이를 들고 또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길에 펄 석비레를 찾고있었습니다. 지금껏 석비레가 있을만 한 곳을 수십번이나 찾아다녔지만 헛물만 켜왔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추석날에 아버지묘 보러 가나요?》

방문을 열어잡고 어머니를 내다보던 나는 느닷없이 물었습니다. 나는 추석날을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산소에도 찾아가고 고향의 다정한 동무들도 만나보고싶었습니다. 이곳은 나에게 있어서 아직 정들지 않은 땅이었던것입니다.

《먼저 자거라, 기다리지 말고.》

어머니는 왜서인지 대답을 피하며 총총히 트랙을 나섰습니다.

새벽녘에 비를 흠뻑 맞고 들어온 어머니는 고열에 들떠 헛소리를 치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곁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던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10리길을 달려가면서 나는 이제 어머니가 일어나면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돌봐줄 사람도 없는 외진 곳에서 더는 살고싶지 않았습니다.

의사선생과 함께 집에 돌아오니 방안은 비어있

었습니다.

《애, 어머니가 앓긴 앓았냐?》

의사선생은 괜한 걸음을 했다는듯 입을 껌 다시 었습니다. 밖에 나와보니 손달구지가 보이지 앓았습니다. 어머니가 앓는 몸으로 령길에 올라간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어머니!—》

나는 손으로 오가리모양을 해가지고 어둠이 새 까만 령쪽을 향해 목청껏 웨쳤습니다. 하지만 외로운 메아리만 돌아와 내 가슴팍을 들이쳤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찾아 령길로 오르면서 속으로 원 망했습니다. 도대체 어머니는 왜 자기 건강을 하나도 생각지 앓고 그토록 령길에만 신경을 쓰는걸가? 누구 하나 봐주는 사람도 앓는데…

×

어머니는 아버지의 묘소에 나 혼자 떠나보냈습니다.

《철남아, 다음해에는 어머니와 함께 가자.》

나는 제상에 놓을 음식을 넣은 작은 배낭을 잔 등에 지워주는 어머니에게 본능적으로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설 때는 눈물이 콧 솟아올라 주먹으로 훔치었습니다.

이때 려단장아저씨가 집대문밖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는 대문밖까지 나선 내 손을 잡아쥐고 어머니한테로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그 먼델 이 애 혼자 떠나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내 그럴것 같아 들렸습니다.》

나는 려단장아저씨를 고맙게 생각하며 어머니의 입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려단장동지, 철남이 아버지는 제 마음을 리해 할겁니다. 그래서…》

려단장아저씨는 손을 껌 저으며 어머니의 말허리를 잘라버렸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생각말고 함께 갑시다. 마침 나도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 이 차를 타고갑시다.》

나는 려단장아저씨의 차를 타고간다는 말을 듣자 어머니의 팔을 잡고 졸랐습니다.

《어머니, 아저씨 차를 타고 같이 가자요. 예, 어머니.》

《철남아,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니. 다음해에 함께 가자고 했지?》

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별스레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의 팔을 맥없이 놓고말았습니다. 어머니는 흘러내린 내 배낭끈을 바로 메워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려단장동지, 제 마음도 항상 그이한테 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이한테 갈 때가 되지 앓습니다. 언제인가 려단장동지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알려지지 앓은,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어느 한 령길을 넘었던 몇사람만이 앓고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간고하던 고난의 행군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선중부의 어느 한 령길을 넘으실 때 앓은 일입니다. 가뜩이나 구배가 심하고 울퉁불퉁한 길에 철늦게 쏟아지는 진눈까비로 하여 야전차는 벌써 바퀴를 두번이나 교체하며 령길을 오르고앓었습니다. 운전사의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아차 실수하여 운전을 잘못하면 차는 천길 낭떠러지로…

갑자기 야전차가 뒤로 지쳐내렸습니다. 운전사가 제동기를 힘껏 밟았지만 차는 계속 미끄러져내렸습니다. 다행히도 차는 천길 낭떠러지를 반메터가량 두고 멈춰섰습니다. 식은땀으로 온몸을 화락하니 적신 운전사는 운전대를 잡은채 돌처럼 굳어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군님께서 아무 일도 앓으신듯 흔연히 웃으시며 차에서 내리시는것이었습니다.

《듣던바 그대로 길이 험하구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 길로 매번 최전연병사들을 찾아가군 하셨소. 여기서 주저앓을수는 앓소. 차를 밀고서라도 령을 넘어야 하오. 내가 운전대를 잡겠소.》

심장이 얼어들어 밀등이 잘리운듯 풀썩풀썩 주저앓았던 수행원들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그이를 우려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가속답판을 지그시 밟으시며 운전대를 잡으신 손에 힘을 주시었습니다. 부르릉!… 야전차는 기운을 쓰며 험한 구배를 넘었습니다.…”

《려단장동지, 이제 더는 그런 험한 길에 우리 장군님을 모실수 앓습니다. 그런 험한 길을 두고 자기를 찾아온걸 알면 철남이 아버지는 절 탈 할겁니다.》

귀전에 흘러내린 몇오리의 머리칼을 조용히 쓸어넘기며 뿌연 운무속에 잠긴 저 멀리 어텐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속눈썹이 축축히 젖어올랐습니다. 려단장아저씨는 내 어깨를 껌 잡아쥐며

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남이 어머니, 내 철남이와 함께 관국동무를 찾아가 아주머니의 그 마음을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관국동무도 기뻐할 겁니다.》

나는 러단장아저씨와 함께 아버지의 묘소로 떠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차를 타면 쉽게 갈수 있는 길도 떠나지 않는 어머니가 더없이 야속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열세살이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건만 어째서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도 몰랐던지...

그해 가을 학교에서는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음식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점심시간에 만날 장소를 약속하고 일찍 학교로 갔습니다. 어머니도 빨리 학교에 와 내가 참가하는 이어달리기경기를 보겠다고 하더군요.

마침 농장에서 그날이 휴식일인지라 학부형들까지 운동회를 구경하려고 모여와 아침부터 학교 운동장은 더 흥성거렸습니다. 내가 참가하는 이어달리기경기는 오전경기시간마감에 진행하였습니다. 이어달리기경기는 학생들과 교원들이 동시에 참가하는 제일 인기있는 경기였습니다.

높이 쳐든 신호총이 《땅!》 하고 출발신호를 울렸습니다. 드디어 한편에서 각각 첫 선수들이 출발선을 떠났습니다. 와!— 순식간에 우렁찬 응원소리가 운동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나는 세번째 선수로 출발선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선수를 멀찍이 떨구고 달리던 우리 편 선수가 발을 헛디뎠는지 몸을 비틀며 앞으로 꼬꾸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수는 인차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번개〉, 빨리 일어나라. 〈우뢰〉가 다 따라왔다.》

우리 편 응원자들속에서 튀어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는새 상대편선수는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와! 등! 등!... 상대편 응원자들은 더욱 사기를 올리었습니다. 우리 편 응원자들은 금시 사기가 한풀 꺾였습니다.

나는 더 생각할 사이도 없이 넘어진 선수한테로 달려가 계주봉을 빼앗듯 잡아챘습니다. 우리 편 응원자들은 일제히 환성을 올리었습니다. 그 환성에 떠받들린 나는 기어코 상대편선수를 따라잡았습니다. 경기는 우리 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나는 경기장을 나서며 운동장을 빙 에워싼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속에 어머니도 있을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기뻐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아이들은 부모들과 함께 뿔뿔이 흩어져갔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던 운동장은 정적이 깃들었습니다. 텅 빈 운동장에는 나 홀로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오지 않았던 겁니다.

학교정문밖으로 터벅터벅 걸어온 나는 원망의 눈길로 령길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저도 모르게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령길에 올라갔을것이다, 그래 도로관이 자식보다 더 귀중하단 말인가?... 이때였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철남아, 내가 한발 늦었구나.》

나는 배가 불룩한 구력을 량손에 들고 앞에 나타난 러단장아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혀있는것을 보면 급하게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없는 나는 몰통스레 툽내쏘았습니다.

《아저씨는 왜 왔어요?》

나는 느닷없이 애꿎은 그를 탔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지 않은것이 마치 그때문이기라도 하듯. 그리고는 막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도 그도 다 미웠습니다. 방바닥에 엎디어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깨어나보니 아까 장령이 들고왔던 음식구력이 눈에 뜨였습니다. 배가 출출했던 나는 구력을 헤치고 짜배기를 연거퍼 세개나 먹어치웠습니다.

문득 나는 남자손님들이 오면 내놓곤 하던 재털이에 수북이 쌓인 담배꽁초에 눈길이 갔습니다.

러단장아저씨가 내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다가 간 모양입니다. 미안쩍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한테 팬한 뽕풀이를 한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대신하여 땀을 흘리며 달려왔는데...

밖은 어둑속에 잠겨있었습니다.

바람이 집마당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다음은 고요. 느닷없이 그 고요속에 휘파람소리같은 것이 들려옵니다. 서글프게 들리는듯 한 그 소리는 어둑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그 무엇인가를 찾으며 점점 가까이에서 들려오다 마당가에서 홀연 사라집니다. 밖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남인 오늘 일을 오래동안 생각할거요. 그애가 성격까지도 신통히 관국동무를 닮았더군. 관국동무가 제대명령서를 가지고 나한테 와 막 야단치던 일이 생각나는군요. 〈중대장동지, 전 초소를 떠나지 못합니다. 내가 제놈들의 총에 맞고 제대된걸 알면 놈들이 좋아합니다. 자, 내 몸이 어떤가를 한번 보십시오.〉 하며 관국동무는 철봉에

매달려 현수를 하는것이였소. 서른다섯, 서른여섯... 난 판국동무를 말리지 못했소. 참 아주머니, 인차령에 도로관리소대가 조직된다고 합니다. 소대가 조직되면 아주머니는 고향도시로 돌아가도 될겁니다.»

려단장아저씨의 말에 내 귀가 번쩍 열리였습니다. 은연중 온몸이 긴장해져 어머니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소대가 조직되면 저도 그들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전 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령길과 영원히 인연을 맺고 살겠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크나큰 실망감을 못이기고 나는 방문을 열어제끼며 어머니한테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팔을 대구 흔들며 웨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자요. 난 가겠어요. 우리가 왜 여기서 살아야 하나요. 학교도 멀고, 불도 잘 오지 않고, 난 여기가 싫어요.》

어머니는 영예군인인 아버지를 돌보면서 남들이 알수 없는 생활의 고충을 겪으며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까지 고생을 사서 한담. 나는 어머니가 불쌍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부지중 어머니의 입에서 신음비슷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려단장아저씨는 나를 무작정 끌고 집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녀석아, 넌 어째서 어머니를 괴롭히냐? 영, 내가 전에도 말하지 않더냐. 어머니는 아버지의 녀를 헛되게 하지 말자고 여기로 왔다고. 내 말을 귀등으로 들었구나. 여긴 아버지가 오고싶어하던 곳이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를 생각하고있어.》

나는 세차게 마음속으로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버지는 어머니의 기억속에 없어.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추석날 나 혼자 묘보러 보내지 않았을거야.

려단장아저씨는 계속해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철남아, 너도 이제 크면 어머니를 더 알게 될거다. 그때 가선 세상에서 가장 성실하고 행복한 어머니로 보게 될거다. 어머니를 괴롭히지 말아.》

나는 그가 이해되지 않았했습니다. 좀전까지 어머니를 보내려고 하더니 이제는 되려 나를 찾는것이였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어머니가 운동회에 오지 못한것은 그럴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끝내 석비레를 찾아내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기쁜김에 석비레를 마대에 가득 넣고 산에서 내려오다 그만 다리를 상했던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때 치료를 받아야겠으나 상한 다리로 계속 령길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때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 집옆에 또 한채의 집이 생겨났습니다. 열명의 처녀들이 도로관리원으로 온것이였습니다. 처녀들은 병실앞에 기발대를 세우고 붉은 기발을 높이 띄웠습니다. 아침이면 그들은 앞마당에 정렬하여 작업조직을 하고 일을 나가곤 하였습니다. 그들을 뒤따라 어머니도 손달구지를 끌고가곤 하였습니다.

처녀들이 온 후 나는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의 생각이 달라질수도 있다는 한가닥의 기대를 품었으나 어머니는 령을 떠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것 같았습니다. 얼마후에는 어머니도 그들과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다니는것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것은 잃었던 활기를 되찾은듯 행동이 민첩해졌고 웃음이 많아진것이였습니다.

한번은 오락회를 하던 처녀들이 어머니를 데려다가 노래를 시켰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그들이 《재청.》 하며 박수를 치자 어머니는 선뜻 재청을 받아주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나는 까닭없이 서글퍼지는 마음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갈 생각을 더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그 무엇보다 령이 더 깊이 자리잡았고 현재의 생활에 만족을 느끼고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정말 잊은것은 아닐가?...
x

세월은 재촉하지 않았지만 쫓기듯 빨리도 흘러갔습니다.

나는 열일곱살이 되었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언제인가는 어머니를 새롭게 알게 된다고 하던 려단장의 말을 점차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이해에 불과한것이였습니다.

어느날 아침이였습니다.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서던 나는 머리를 기웃하고 감나무앞에 서있는 어머니한테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뭘 그렇게 보세요?》

《철남아, 감꽃이 폈구나. 저걸 보렴.》

《야, 정말 꽃이 폈군요!》

나는 큰소리로 탄성을 올리였습니다. 길죽길죽한 푸른 잎사귀사이에 노란 감꽃이 피어나 숨

어있었습니다.

《어머니, 올해에는 감이 열리겠지요?》

나는 뻔한 말을 물었습니다.

이때 러단장아저씨가 집마당으로 들어서며 우선 우선했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이른아침에 찾아오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 좋아들 합니까? 아침에 까치라도 울었는가요?》

《아저씨, 보라고요. 감꽃이 폈어요.》

감나무를 살펴보던 그의 눈빛이 놀랄 정도로 빛났습니다.

《어이구, 꽃이 폈구나. 올가을에는 철남이가 감을 실컷 먹겠는걸. 이렇게 세그루에 꽃이 다 폈으니 말이다.》

《내가 꽃감을 만들겠어요. 아저씨도 꽃감을 좋아하나요?》

《좋아하지 않구. 어디 철남이가 만든 꽃감을 실컷 먹어보자. 허허.》

러단장아저씨는 가볍게 웃으며 내 잔등을 두드려주고나서 어머니한테로 얼굴을 돌리었습니다. 그러던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가뭇없이 사라지고 신중한 표정으로 변하더니 자세를 바로하고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이 령을 넘어 우리 부대를 또다시 찾아오셨답니다. 령을 넘으시던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차를 멈추시고 오래도록 길을 내려다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전에 여기가 너무 험해 령을 힘들게 넘었는데 지금은 길이 좋아졌구만. 이 고장에서 흔치 않은 석비테까지 깔아놓아 길이 더 좋아진것 같소. 이제는 령을 넘어다니는 인민들이 정말 좋아하겠소.〉

한 일군이 도로관리원처녀들과 아주머니에 대해 보고를 드리자 장군님께서는 〈앞으로 시간을 내어 그 처녀들을 꼭 만나봅시다. 우리가 매번 새벽에 령을 넘곤 하여 그를 길에서 만나지 못한것 같소.〉 하시었습니다.》

두눈에 눈물이 핑 고여오른 어머니는 마음속에서 고괘치는 흥분을 터치려는데 입술을 움직이였으나 목이 꼭 잠겨올라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시각엔 어머니보다 내가 더 흥분해있었습니다.

《아저씨, 아버지장군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아시나요?》

《알고계신다. 너의 어머니는 세상이 다 아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너무 기뻐 어쩔줄 몰랐습니다.

나는 나는듯이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발밑의 땅이 뚱뚱 떠올랐습니다. 장군님께서 어머니를 알고 계신다. 우리 어머니를! 나는 그날에야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것 같았습니다. 아, 어머니! 나를 용서하세요. 끝없이 샘솟는 생각을 뒤번지며 나는 그날 마음속에 굳힌것이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어머니처럼 도로관리원이 될테다.

그래서 나는 졸업을 앞두고 자기의 지망을 써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을 때 다른것은 더 생각하지 않고 도로관리원을 지망하였습니다.

《어머니와 토론을 해보았어요? 철남학생.》

선생님은 이해되지 않는듯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결심을 찬성할겁니다. 전 꼭 도로관리원이 되겠습니다.》

나는 확신있게 아니, 자랑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후날 내가 왜 도로관리원이 되었는지 선생님도 학급동무들도 알게 될것이다, 어머니는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머니는 이렇게 말할거야.

《철남아, 어머니는 네가 그런 강한 결심을 하리라고 믿었다. 아버지도 네가 도로관리원이 된걸 알면 기뻐하실게다. 참 용타.》

한시바빠 어머니를 만나 내 결심을 이야기하고 싶어 집으로 달려온 나는 처녀들과 함께 령길중턱에서 위험방지턱공사를 하고있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도와 돌도 날라오고 함마질도 하면서 저녁때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 끝내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나는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이렇게 묻는것이었습니다.

《철남아, 너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학교를 졸업하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나?》

《예?...》

어머니가 정작 그렇게 묻자 나는 파견장까지 받아주고 어머니를 더 기쁘게 해주고싶은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며칠 있으면 제 결심을 알게 될거예요. 그때 가신 깜짝 놀랄거예요.》

《원 애두, 무슨 좋은 생각을 하길래 그러냐?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자꾸나.》

가볍게 웃던 어머니가 무춤 멈춰서며 길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길바닥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 몇개를 주어 내던지더군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서성거리며 길을 눈여겨 살펴보는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빨리 내려가자요, 날도 어두워오는데.》

《철남아, 여기가 구배가 심해 길이 험한 곳이다. 그래서인지 어머니 다른데보다도 여길 더 눈여겨 살펴보게 되는구나.》

나는 길옆으로 나가 낭떠러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날은 채 어둡지 않았지만 낭떠러지아래는 형체를 분간할수없이 아찔하였습니다. 두다리가 후두두 떨려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드디어 학교를 졸업한 나는 도로관리원으로 파견장을 받아주었습니다. 나는 날개가 돋힌듯 한 마음으로 어머니한테로 달려왔습니다.

《자, 보세요. 어머니, 내가 어디에 배치를 받았나.》

나는 자랑스럽게, 뽀뽀이 파견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런데 파견장을 들여다보던 어머니의 얼굴에 실망의 그림자가 서서히 비끼었습니다. 왜 그럴까? 청춘의 새로운 지향과 리상으로 흥떡이던 나의 가슴이 금시 바람빠진 풍선마냥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파견장에 준 눈길을 떼지 않더군요.

서쪽하늘에 붉게 물드는 저녁노을속에 주위의 사물이 소리없이 잠겨들었습니다. 이윽고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남아, 집으로 내려가자.》

어머니는 굽이길을 몇개나 돌았지만 가타부타 말없이 줄곧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도로관리원으로 배치받은것을 그닥 달가와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름해지는 마음을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누구보다 기뻐할줄 알았는데...

《철남아.》 하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네가 이만큼 크도록 너에게 바친것이 없구나. 그동안 길에만 붙어살던 어머니가 미웠지. 그런데두 년 이 어머니를 위해 도로관리원이 되겠다고 하는구나. 고맙다. 하지만 어머니의 생각은 다르다.》

어머니는 말을 끊더니 《철남아, 우리 여기 좀 앉았다 갈까?》 하며 길옆의 나지막한 바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곤 나에게 묻는것이었습니다.

《철남아, 언제인가 넌 우리가 여기에 왜 왔고 물었었지?》

드디어 어머니는 지금껏 마음속에 고이 묻어두었던 지난날의 추억을 담담한 어조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이 령으로 오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날 초소에서 날아온 편지가 침상에 누워있던 아버지를 흥분시켰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령을 넘어 아버지가 썼던 초소를 찾으셨던것입니다. 아버지는 흥분을 좀처럼 억제할수 없었던지 어머니의 손을 힘껏 잡아쥐었습니다.

《여보! 장군님께서는 내가 늘 다니던 그 전호길로 전방감시소까지 나가셨댔소. 장군님께서는 감시소로 나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전호우의 불탄 소나무를 한참동안 바라보셨소. 그 불탄 소나무는 전쟁을 이겨낸 우리 초소의 증견자요.》

아, 정말 우리 초소에 가고싶구만. 영원히 군복을 벗지 않고 그 전호가에 서려고 했는데... 여보, 우리 철남이가 크거들랑 꼭 군복을 입힙시다. 이 아버지가 다하지 못한 군사복무를 우리 아들이 영원토록 하도록 말이요.》

아버지는 말을 툇 끊고 추연한 표정으로 바람이 불며 진눈까비가 내리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며칠째 멎지 않고 내리는 진눈까비였습니다. 아버지는 혼자소리마냥 뇌이었습니다.

《여보, 그 령길이 얼마나 험한지 모르오. 그 험한 령길을 우리 장군님께서 그렇게 자주 넘어다니신다고 생각하니 가만히 누워있는 이 마음이 찢어지는것 같구려.》

여보, 내 이제 병을 털고 일어나면 그 령으로 가서 도로관리원으로 일할테요.》

간절한 희망의 불꽃이 지글지글 타오르는 아버지의 눈빛은 그날 류달리 강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몇달후 종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쳤던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간 뒤에도 집안에는 아버지의 체취가 생생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버지가 살아있는것처럼 느끼는 어머니의 행동에서 풍기는 느낌이였다고 해야 정확할것입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침대에서 쉬는듯이 어머니는 방안을 조용조용 걸어다녔고 부엌에서 설것이를 하다가 그릇소리를 내기라도 하면 어깨를 흠뻑 펴며 방안쪽을 쳐다보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어머니는 시당에 찾아가 그 령의 도로관리원으로 보내달라고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잃은지 얼마 되지 않은 영예군인의 안해의 제기를 당조직에서 수락할게 뭐니까.

하지만 어머니도 완강하게 자기 의견을 고집했습니다.

하루는 시당의 책임일군에게 찾아들어가 절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당책임비서동지, 영예군인가정이라고 나라에서 각별하게 돌봐주고 혜택을 안겨주던 그 사랑을 전 잘 알고있습니다. 지금 저를 가지 못하게 하는것도 사랑이라는걸 말입니다.

하지만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저의 남편은 한창 혈기가 넘쳐나던 젊은 나이에 제대되어 그 령을 넘어왔습니다. 한생토록 벗지 않겠다던 군복을 벗으면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이루지 못한 그 념원과 기대가 있어 그인 남들이 꺼리는 일도 자진하여 말아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했고 돌아가기 얼마전에는 그 험한 길들을 걸으며 최전연초소를 찾으시는 최고사령관동지께 편한 길을 마련해드리겠다고 병상에서 일어나면 도로관리원으로 가서 일하겠다고 한것입니다.

마음속에 그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어 남편은 마지막날엔 눈도 감기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대신 그이의 소원을 풀어주지 못하면 그이앞에 한평생 죄스러울것 같습니다.

책임비서동지, 전 그곳에 꼭 가야 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젖은 호소에 웅심깊은 그 일군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번쩍었습니다.

《어금동무, 고맙소. 동무의 마음속에 그렇게 크고 뜨거운것이 있는줄 몰랐습니다. 정말 고맙소.》

그렇게 떠나온 길이었습니다....

《철남아, 사람이 나서 첫걸음마를 떼는것이 인생전체를 결정짓는것이 아니다. 가장 어려울 때 어떤 자욱을 어떻게 내디디는가에 따라 인간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을가.

이 어머니는 여기로 걸음을 내디딜 때가 바로 진정한 인생의 첫 자욱을 찍은것이라고 자부하고 있단다.

철남아, 이곳엔 어머니가 있으니 넌 보다 더 큰 걸음을 찍어다오. 아버지가 입었던 혁명의 군복을 입고 아버지가 섰던 최전연초소에서 성스러운 군사복무를 하는것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에게 바라는것이다.》

《어머니!》

나는 뜨거운것이 차오르는 마음속에서 이 부름 하나만을 겨우 입밖으로 낼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나는 인민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밤에야 나는 진정으로 철이 조금이라도 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어리석은 주관이라는걸 군사복무의 나날에

다시 체험하게 될줄이야....

×

나는 아버지가 섰던 초소가 아니라 왕청같은 곳으로 왔습니다. 뒤늦게야 그것을 알게 된 나는 완전히 실망해버렸습니다. 나의 앞에는 육안으로 볼수 있는 놈들의 초소도, 조국의 허리를 가로지른 콩크리트장벽도 없었습니다.

내가 생활하는 대대병실은 삼태기처럼 생긴 골안에 자리잡고있었습니다. 병실앞으로는 실개울이 흘러내렸고 여름철의 한낮에는 매미의 울음소리가 골안을 가득 채우곤 하였었습니다. 이따금 유정한 산비둘기의 울음소리도 들려오는 한적한 곳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군사복무를 하게 될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인민군대에 입대하면서 나는 아버지가 섰던 전연초소에 보내달라고 절절히 이야기하였습니다.

《동무가 ×령도로관리원의 아들이요? 음— 최전연초소야말로 병사가 서야 할 첫자리지.》

대렬참모동지는 나의 어머니를 알고있는듯 최전연초소에 보내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디로 왔는가?

나는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줄곧 그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날도 나는 울적한 마음으로 소대전술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소대 오염구역!》

소대장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방독면을 꺼내었습니다. 한참동안 달렸으나 오염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숨이 가빠오르며 얼굴은 온통 땀범벅이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훈련도 아니였지만 그날은 왜서인지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나는 숨을 헐떡헐떡 내쉬며 휘청휘청 뛰어갔습니다. 누구인가 내 어깨를 툭 치더군요. 소대장의 엄엄한 눈길에 쪼들듯 날아왔습니다.

《호흡조절을 잘하오.》

나는 머리를 끄덕이었습니다. 허나 소대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러다간 쓰러지겠구나, 못 견디겠어. 나는 끝내 방독면을 벗고 말았습니다. 몇발자국 앞서 달리던 소대장이 무슨 느낌을 받았는지 뺨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이 대뜸 부리부리해졌습니다.

《철남동무는 죽었소. 철남동무 오염!》

《?...》

소대장의 짙막한 말은 몇백마디의 다른 말보다 더 예리한 비수처럼 가슴에 사정없이 박히었습니다

다. 나는 그제야 정신을 번쩍 차리었습니다. 소대장은 내가 정말 죽은 사람처럼 보였던지 쓰겁게 돌아섰습니다. 자신에 대한 쓰디쓴 모델의 감정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보았다면...

어머니가 나에게 바란것은 이런것이 아니다, 아버지처럼 원쑤의 총구앞에 서슴없이 나서고 삶의 순간순간을 값있게 사는것이다. 헌데 나는 오염구역도 통과하지 못했으니...

소대장이 훈련을 끝내고 돌아와 병실앞 의자에 홀로 앉아있는 나한테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평상시의 그 웃는 얼굴로 몸을 일으킨 내 어깨를 가볍게 눌러앉히더군요. 훈련할 때의 엄엄하던 표정은 전혀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철남동무, 어머니 이름이 최어금이지? 동무 어머니가 신문에 났구만. 축하하오.》

《?...》

나는 소대장이 펼쳐준 신문을 열결에 받아 눈을 허둥거리며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데? 어디에 어머니가 있는가? 신문 4면의 웃단에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려있었습니다. 어째서인지 기사의 마지막글이 먼저 눈에 안겨오더군요.

《...×령으로 옮겨진 최어금동무의 첫걸음은 가볍게 내짚은 걸음이 아니었다. 가볍게 내짚은 걸음이었다면 그는 그렇듯 값있게 발자취를 남기지 못했을것이다. ... 그는 남편이 썼던 령너머의 최전연초소와 아들이 선 초소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늘도 그리고 래일에도 굵이굵이 령길에 자기의 발자취를 남기며 변함없이 서있을것이다.》

(어머니!)

그때 내 마음속에 쿵— 하고 미쳐오는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과 조국의 부름앞에 초소를 가리지 않았던것입니다. 나는 신문에 난 어머니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여름날 저녁의 시내가처럼 따뜻하고 조용한 미소를 짓고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펍 젊어진듯싶었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젊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미소, 그것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느낄 때 지을수 있었습니다. 소대장이 내 손을 잡아쥐며 부드러운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철남동무, 우린 동무가 최전연초소에 가지 못한것을 두고 생각한다는것을 알고있소, 그것때문에 마음의 안착도 못 가진다는것도. 철남동무, 총잡은 병사는 자기가 선 초소를 하나의 지점으로가 아니라 조국의 한부분으로 생각해야 하오. 동무 어머니도 바로 그렇게 살고있소. 어머니 앞

에, 조국앞에 뚝뚝이 나서자면 총잡은 병사의 사명감이 초소에 따라 달라지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할거요.》

소대장은 내 손을 힘껏 잡아쥐고나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소대장은 모든것을 다 알고있었지만 내가 스스로 깨닫고 느끼기를 바랐던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의 병사생활은 총잡은 병사의 사명감을 새롭게 깨닫고 내디딘 그 걸음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그 한결유한걸음을 령길을 오르내리는 어머니의 걸음에 맞추곤 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령길에 찍혀지는 어머니의 발자국에 내 발자국도 찍혀진다고.

하루는 소대장이 부대가 ×령쪽으로 훈련을 간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대변에 흥분되어 다우쳐 물었습니다.

《소대장동지, 우리가 ×령을 넘게 됩니까?》

《그거야 나도 모르지.》

소대장동지는 엄하게 잘라말했으나 나의 가슴은 차오르는 흥분의 떨기로 하여 급하게 오르내렸습니다.

×령으로 간다. 아, 어머니!

나는 어머니와의 상봉을 눈앞에 그려보며 부대가 출발할 때까지 줄곧 흥분에 휩싸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한밤중에 령을 넘게 되었습니다. 비가 쏟아져내리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어둠이 얼마나 짙은지 나는 기다리고 바라던 어머니와의 상봉을 단념하고말았습니다.

그러던 한순간 나는 상반신을 일으키며 눈을 치떴습니다. 뒤차의 전조등에 비웃입은 한 녀인의 형체가 언뜻 비끼였던것입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이 밤에 잠자리에도 들지 않고 령길이 걱정되어 초병마냥 서있는것이였습니다.

나의 눈굽이 따라와지더니 눈물이 펍 돌았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찾지 않았습니. 그저 마음속으로 뜨겁게 속삭였을뿐입니다.

(어머니, 전 지금 령을 넘어가요. 어머니의 성실한 땀이 스며있고 발자취가 수없이 찍힌 령길이 이밤엔 정말 새삼스럽고 뜻깊게 생각되는군요.)

《철남동무, 어머니는 비내리는 이밤도 령길을 지키고있구만.》

소대장동지도 내 마음을 들여다본듯 조용히 속삭이며 어깨를 큰 손으로 꼭 잡아주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더이상 볼수 없었지만 그날 밤

인민의 이름으로 부른다

허 수 산

어제는 금강의 메부리처럼 솟아오른
창전거리의 고층살림집들
그림처럼 펼쳐안딘 대동강아
오늘은 네 아름다운 흐름의 복판에
또 하나의 락원의 풍경 새겨안았구나

룡라인민유원지!
그 이름도 뜻깊다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는 곱등어판
인민들의 행복이 무지개로 피어나는
물미끄럼대 회전그네...
곳곳의 화려한 청량음료점들

지난날 버드나무 흐느적이며
평양의 절경을 자랑하던 룡라도
오늘은 철웅성인양 높은 제방 두르고
인민의 행복을 쫓아오는
락원의 섬으로 천지개벽되었구나

내 아들 손자 앞세우고
이 섬의 첫 손님으로 거닌다
유원지의 곳곳에 새겨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자욱으로
이 걸음 뜨겁구나

5월의 그 봄날도
무더운 여름날도 찾아오시여
설계도 몸소 고쳐주시며

인민에게 최상의 유원지 선물하시려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던 자애로운 모습이여!

인민을 제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사랑으로
유원지여 너는 수도의 한복판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의 섬으로 솟아났구나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몇번이고 찾으시여
인민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던 그 사랑
만경대유희장을 찾으시여
유희장을 더 훌륭하게 꾸리자고 하시며
군인건설자들까지 보내주신 그 은정

그 사랑 그 은정에 받들려
새로운 인민의 유원지 태어났구나
너와 어깨동무하여
류정원 인민야외빙상장
대동강기슭에 새로 펼쳐졌구나

아, 이 땅 곳곳에 새로 태어나는
강성국가 락원의 참모습이여
인민의 이름으로 부르는 그 이름으로
인민사랑 영원하거니
김정은원수님의 높은 뜻 어린 창조물
천세만세 이 땅에 빛을 뿌리리라

나의 망막속에 새겨진 어머니의 모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후 나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고맙다, 철남아! 이제 너도 컸구나.

소대장동무에게서 네가 얼마전에 령을 지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집앞을 지나가면서도 어머니를 찾지 않았다는 얘길 들으니 이제는 우리 철남이가 군사복무의 영예론 자욱을 땀땀이 내디디고있다는 자부심이 생기는구나.

아버지도 네가 이렇게 큰걸 아시면 무척 대견해 하실거다.

철남아! 그렇게 계속 곧바로 걸어가다오. ...》

기자선생, 우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끝나갑니다.

나라에선 우리 어머니의 자그마한 수고를 크게 평가하여 큰 대회에도 대표로 내세워주었고 높은 국가표창도 하여주었습니다. 이제 만나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어머니는 좋은분입니다.

참, 려단장아저씨 말이지요?

내 인생에 잊을수 없는 영향을 준 그분도 얼마전에 제대되어 고향에 갔는데 혁명적군인정신으로 고향마을을 번듯하게 일떠세우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고 합니다.

군관이 된걸 축하한다구요?

예, 고맙습니다. 전 지금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썼던 최전연초소에 배치받아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어머니를 만나보고 가렵니다.

이젠 다 온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집입니다.

진실한 동심이 비낀 풍만한 시세계

—림금단작품집 《백송리의 진달래》를 읽고—

리 동 수

선군혁명의 후비대이며 강성조선의 창창한 앞날을 떠메고나갈 기둥감들인 우리 어린이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자애로운 해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6월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에서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축하연설을 받아안은 온 나라 소년단원들과 인민들은 무한한 감격과 행복에 휩싸여있으며 선군조선의 찬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받들어갈 불타는 결의로 심장을 끓이고있다.

오늘 우리 아동문학작가들앞에는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훌륭한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조국의 미래이고 희망이며 기쁨인 우리 어린이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과 **김정일**애국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지덕체를 겸비한 믿음직한 선군혁명의 후비대로 역세게 키우는 데 이바지하여야 할 책임적인 과업이 나서고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아동문학을 우리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창작하는 문제 즉 어린이들의 동심세계를 잘 그리면서 작가의 창작적개성을 살리는것이다.

감정이 예민하고 무엇이나 감성적인 형태로 받아들이기 좋아하며 새것에 민감하고 지속성이 약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창작하고있는 아동문학작가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나서고있다.

진실한 동심속에 작가의 얼굴이 선명하게 비껴오는 감미로운 정서를 받아안으며 어린이들은 그 작가의 개성적면모에 저도 모르게 끌려들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아동문학에서 예술적형상은 감정이 예민하고 모든것을 감성적인 형태로 받아들이는 어린이의 특성과 미감에 맞게 될수록 감각적이어야 하고 음악적인 리듬감이 있어야 한다.》

아동문학이 환경과 대상에 대한 인식능력과 활용능력이 제한되어있는 어린이들을 상대하고있다고 하여 결코 지성이 낮은 문학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동문학작가들은 자신의 체험을 직접 표현하는 성인문학작가들에 비해 2중의 어려운 체험과정을 거쳐 창작을 진행하기때문에 더욱 고심해야 한다고 할수 있다.

아동문학작가들은 아이들만이 가지고있는 동심이 비낀 고유한 신비의 세계를 기발하게 발견해낼줄 알아야 하며 그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동심이 넘치면서도 개성이 뚜렷한 화폭을 창조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림금단작품집 《백송리의 진달래》에서는 진실한 동심이 비껴흐르는 속에 사상을 생활적으로 자연스럽게 감수할수 있게 형상되고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작품집에 실린 모든 작품들은 창작소재와 창작으로부터 형상전반이 백두산위인들의 품모와 위대성을 형상하는데 바쳐지고있으며 어린이들의 시점에서 탐구된 위인칭송의 동심적정서로 관통되고있다.

작품집에 실린 《내가 단 꽃리봉》, 《사랑의 무지개》, 《아침노을 필 때면》, 《그네터의 달맞이꽃》, 《세상이 다 있는 집》, 《백두산에 오르시여》, 《백두산고향집》, 《바라시는 마음》, 《오산덕의 봄달래》, 《샘줄기》를 비롯한 동요동시들과 《사랑의 노래》, 《엄마마중》, 《어머니와 아들》, 《백두산의 봄누나》와 같은 장시, 서정서사시, 서사시들은 모두다 백두산위인들의 위대성과 위인적품모와 덕망, 위인들을 흠모하고 따르는 우리 어린이들의 발랄한 동심세계를 감동깊게 노래한 작품들이다.

작품집에 실린 시들은 백두산위인들의 위인상을 주제로 한 작품들은 물론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한 생활을 노래한 작품들인 경우에도 언제나 백두산위인들의 위대성과 은덕과 덕망과 관련된 생활속에서 종자가 탐구되고 형상으로 실현된것으로 하여 인상깊게 안겨온다.

다시말하여 작품집은 어린이들이 드리는 위인칭송의 송가로 충만되어있다고 특징지을수 있다.

작품집에 실린 모든 시들은 또한 예리하고 섬세한 감각과 음악적률동미, 독특한 형상적색채와 같은 형상요소들을 발견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함으로써 발랄하고 참신한 동심적정서로 차넘치고있다.

작품들에서는 시종일관 어린이들의 특성과 미감에 맞는 감각적이며 물동적이며 색채있는 화폭을 펼쳐보고있다.

학교갔다 오는 길에
노랑나비 팔랑팔랑
내 머리의 빨간 리ボン
꽃인줄 아나봐요

뛰어가다 돌아봐도
쫓아오며 팔랑팔랑
꽃밭에는 가지 않고
나만 자꾸 따라와요

원수님 보내주신
꽃리ボン 곱고고와
어디 한번 앉아보자
자꾸자꾸 따라와요

(동요 《내가 단 꽃리ボン》)

작품은 섬세한 감각으로 빨간 리ボン과 꽃, 나비를 발견하고 기발한 착상으로 어린이들의 심리적 특성과 미감에 맞는 동심적화폭을 창조하고있다.

감각적이며 감성적인 체험은 어린이들의 미감과 동심적정서를 계발시키는 담보로 된다. 따라서 아동문학작가들은 대상과 현상을 감성적인 형태로 받아들이기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특성을 예리하게 살피면서 그들의 미감에 맞는 감각적인것, 감성적인것을 형상으로 구현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어린이들은 사고와 행동에서 음악적이며 물동적인것을 좋아하며 규칙적인 반복과 균형미에 끌려든다. 아동시에 음악적물동미가 결여되면 아동시다운 맛을 잃게 되며 발랄하고 참신한 동심적정서를 기대할수 없게 된다. 음향적인 물동미가 있는 곳에 발랄한 동심도 있다.

동요 《아침노을 필 때면》은 음악적규칙성과 물동미로 하여 어린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고있다.

만경봉에 아침노을
곱게곱게 물들 때면
각각각 까치들
고향집에 날아와요

...

꼬리 달씩 각각각
목청돋겨 각각각
꽃다발 꽃물결
끝이 끝이 없대요

아버지원수님
탄생하신 집
해님이 솟아오른
밝고밝은 집

온 세상 사람들
모두 찾아온다고
아침인사 각각각
너무 좋아 각각각

동심적서정은 물동을 타고 울려나온다.

어린이들은 물동을 좋아하며 그것을 늘 생활속에서 감수하고있다.

시에서는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음악적물동을 잘 살리고있다. 까치들이 울어예는 《각각각》 그 울음소리를 노래처럼 새겨들으며 《꼬리 달씩 각각각/목청돋겨 각각각》, 《아침인사 각각각/너무 좋아 각각각》 조화로운 반복속에서 생겨나는 동심적서정은 음악적물동미를 타고 정가롭게 울려온다.

작품집의 작품들에서 동심적서정은 또한 정서적 색깔을 띠고 펼쳐진다.

만경봉에 비낀 무지개에 마음을 싣고 언제나 가난한 집 아이들편에 서계신 어리신 수령님의 위인적풍모를 노래한 동요 《사랑의 무지개》는 칠색령롱한 무지개와도 같이 형상의 색깔 또한 밝다.

왜놈도 지주도 없는 새 세상으로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색동옷을 입혀 무지개에 태워보시는 어리신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세계를 밝은 정서적색채에 감싸 펼쳐보여줌으로써 작품의 동심적정서를 한층 돋구어주고있다.

왜놈 지주 다 없는
새 세상으로
원수님 날아보신
아름다운 무지개

가난한 집 아이들
색동옷 모두 입혀
웃음꽃 방실방실
태워보신 무지개

작품에서 동심적정서로 물들여진 사상은 형상적

색채의 도움으로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고있으며
발랄한 동심으로 질게 피어나고있다.

발랄한 동심적정서는 작품집에 실린 《사랑의
노래》를 비롯하여 서사시, 서정서사시들에서 더
욱 선명하게 드러나고있다.

서사시 《사랑의 노래》에서는 이역의 낯선 일
본땅에서 가난과 모진 천대속에 열병에 걸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나어린 은별의 불행을 헤아리시여
그에게 광명을 안겨주시고 새삶을 꽃피워주신
아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정과 뜨거운 사랑의 품
에 대하여 노래하고있다.

작품에서는 어린 주인공 은별의 성격과 생활
세계를 동심적으로 파고들어가 진정한 어머니조국
의 품, 위대한 아버지사랑의 품속에서만 불행과
고통을 가시고 광명과 행복을 찾을수 있다는것을
감동깊은 화폭속에 펼쳐보이고있다.

서사시에서는 생활을 섬세한 감각과 감성적인
화폭속에 펼쳐면서 슬픔과 기쁨, 불행과 행복, 밝
고 어두운 형상적색조를 교차대조시켜나가는 한편
음악적절물미를 잘 살려나감으로써 동심적정서
가 넘쳐흐르는 화폭을 창조하고있다.

특히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 아버지수령님께서
뜨락또르소꿉놀이에 정신이 팔린 은별이를 만나보
시는 장면, 눈수술을 마치고 한돌기 두돌기 봉대
를 풀어나가는 극적인 장면 등은 동심으로 충만한
인상깊은 화폭들이다.

소꿉놀이에 정신팔린 아이
원수님 제걸으로 오신줄도 모르고
뜨락또르에 은모래 가득 싣고
그냥그냥 《통통통...》
신이 나서 《통통통...》

그 애만큼 키를 낮추시며
아버지원수님 물으시네
—애야, 무슨 짐을 나르느냐?

—이건 거름이예요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논에다 거름을 널래요, 통통통...

머리위에 소복이 내려앉은
하—얀 꽃잎 떨어주시며
다정하게 울리시는
아버지원수님의 웃음어린 목소리

—거참! 거름이라... 용쿠나!
네 이름이 뭐지?

—은별이예요

...

어쩐지 미심쩍어
찬찬히 그 애 얼굴 살펴보신 원수님
모래무지에 꽃혀있는
조그만 애기지팽이에 눈길 멈추셨네
(앞을 못 보는 애였구나
이렇게도 귀엽게 생긴 애가...)

아버이수령님의 가슴은 쓰리고 아프시였다.
수령님께서 새별같이 반짝이고 빛났을 그의 눈
동자를 그려보시며 《이런?... 뜨락또르가 멋있
구나/어서 발동을 걸어야겠다》하시며 발동을 걸
고 굵인돌이도 함께 돌아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즐
겁게 해주신다.

얼마나 생활적이며 진실하고 정이 차넘치는 화
폭인가!

무거운 마음을 안으신채 떨어지지 않는 발길
을 돌리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은별의 눈을 띄워
주시려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다.

마침내 의사들의 정성속에 수술을 끝내고 봉
대를 푸는 긴장한 시각이 왔다.

작품에서는 초조와 불안과 긴장이 뒤엉킨 극
적정황속에서 은별이의 체험세계를 동심적으로 파
고들어가 예리하고 섬세하게 그리고있다.

이처럼 서사시는 한 앞 못 보는 어린 소녀를 위
해 뜨거운 사랑을 돌려주신 아버지수령님의 인간
애를 동심적화폭속에서 감동깊게 형상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위인상을 노래
한 서사시 《백두산의 봄누나》는 백두의 녀장군의
위대성을 어린이의 시점에서 생활그대로 진실하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더욱 친근하고 인상깊게 안겨
온다.

신과와 도천리를 오가시던 길에 삼수골약국집에
자주 들리시던 김정숙어머님, 그 나날 백두산의
선녀—고운 아지미는 곱단의 머리를 땅아주고 곱
게 다독여주기도 하시였다. 그러나 그는 그 아지미
가 백두산녀장군 김정숙어머님이신줄은 꿈에도 생
각지 못하였다.

세상에서 제일 고운것
뭔가 물으면
나는 얼른 말할테야
—아지미 눈!

부드러운 그 눈길

멀리 하늘가 바라보시면
흐렸던 하늘도
파—랴게 개일듯...

아지미 어느새
한쪽머리 뽕뽕
다 땀아주시고
두손으로 뱅그르르
곶단의 머리를 돌려주시며
—자 이젠 고개 돌려라
이쪽머리 마저 땀아야지

야—참 그 목소린
언제 들어봐도 가슴 따스해
마디마디 아름다운 노래되어
곶단의 마음 사로잡았네

김정숙어머님과 곶단이와의 동심적교감세계가
방불하게 안겨오는 시적정황, 곶단의 눈에 비친
김정숙어머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동심적인 묘사로
생동하게 그려냄으로써 작품의 시세계를 더욱 돈
구어주고있다.

서정서사시 《엄마마중》에 설정된 정황과 계기
역시 새롭고 뜻깊게 탐구된것으로 하여 동심적정
서를 특색있게 다루어주고있다.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을 찾아가신 어머님을 오
래도록 기다리시다 동생의 손목잡고 마중하러 나
서신 어리신 장군님, 학원이 바라보이는 언덕에
올라서자 동생은 손뼉치며 앞장서 달리는데 더는
갈수 없어 멈춰서신 장군님.

학원에 가실 때마다 혼자 가시는 어머님 마음을
어리신 장군님께서 헤아리고계시였다. 당장 달
려가 마중하고싶으신 마음, 허나 갈수 없는 그 사
연을 칭얼대는 동생이 어이 알랴. 방아깨비도 잡
아주고 풀송아지도 만들어주었건만 철없이 졸라대
는 동생을 달랠 길이 없다.

작품에서는 어리신 장군님과 철부지 동생의 동
심을 파고들어가 감각적이며 정서적색채에 실려오
는 동심적정황을 편속 펼쳐나가면서 감동깊은 화
폭을 창조하고있다.

—너는야 아직...
모를테지
학원에는 엄마없는
애들이 많단다...

우리가 달려가
《엄마—》하고

매달리면
엄마없는 그 애들
울면 어쩌나

...

원아들이 울면
엄마도 우신단다
원아들이 울면
아빠도 우신단다

아, 그래서 그래서
못 가시누나
나어린 우리의
김정일장군님!

그 애들의 엄마랑도
백두산에서 싸우다
돌아오지 못했다고

나라를 찾기 위한
싸움길에서
유격대엄마들이랑
불바다도 함께
피바다도 함께
넘고넘으신 백두광명성!

서정서사시에서는 또한 시적계기와 동심적정
황을 다양한 시점에서 파고들어 감각적으로 섬세
하게 그려내어 시 전반에 동심적서정이 차넘치게
하고있다.

투사들이 남기고간 원아들을 생각하는 어리신
장군님의 생각은 깊고도 깊으시였다. 어서어서 자
라서 새 나라 새세상 큰 별님이 되라던 그날의 너
대원들의 목소리를 귀전에 새기시며 어리신
장군님께서 투사들이 바라고 념원하던 새세상
으로 유자녀들모두를 데리고갈 큰뜻을 새기시였으
며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내 나라 내 조국땅우
에 붉은기 휘날리는 사회주의 새세상을 펼쳐갈 굳
은 맹세를 다지시였다.

작품에서는 엄마마중을 둘러싸고 펼쳐진 생활의
한 단면을 통하여 일찍부터 부모없는 원아들의 장
래와 래일의 조선, 혁명의 미래를 책임지실 큰뜻
을 키워나가신 어리신 장군님의 위인상을 감명깊
게 펼쳐보여주고있다.

야—참 좋겠네
노란 만병초

정말정말 좋겠네
바위종다리

정일봉기슭에서
향기뿜는 꽃
정일봉하늘에서
노래하는 새

나도야 꽃이 되어
피고싶구나
새가 되어 여기서
살고싶구나

(동요 《여기 살고싶구나》)

기발한 동심이 나래치는 이 짙막한 한편의 동요를 보자. 아버지장군님을 따르고 흠모하는 어린이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동심세계가 얼마나 생동

하게 노래되고있는가. 정일봉에 향기를 주는 꽃이 되고 정일봉을 노래하는 새가 되어 여기 살고싶다고 노래한 엉뚱하면서도 솔직한 동심을 간결하면서도 물동적인 시구조속에서 진실하게 노래하고 있다.

림금단작품집 《백송리의 진달래》에 실린 시작품들은 한결같이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노래하고있으며 모든 작품들이 진실한 동심과 음악적률동감으로 차넘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어린이들을 선군조선의 후비대로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아동문학작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우리 어린이들을 수령결사옹위 정신과 **김정일**애국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지덕체를 겸비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찬란한 앞날을 떠메고나갈 후비대로 키우는데 이바지하는 훌륭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상 식

생 태 농 업

지금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데 맞게 많은 나라들에서는 생태농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생태농업은 농산과 축산 등 여러 부문들 사이의 련계를 밀접히 하여 농촌에서 물질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순환시킴으로써 적은 투자로 환경오염을 없애고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환경보호형 농업이다.

생태농업에서는 유기질비료와 생물농약, 여러가지 선진적인 재배기술적조치들을 받아들이며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을 극력 줄이며 생산구조가 하나의 자연적인 생태고리를 이루게 하면서 높은 생산력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는 높아가는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에 맞게 생태농업건설을 농업발전의 주요방향으로 틀어쥐고나가고있다.

생태농업류형가운데서 가장 발전된 형식은 농산, 축산, 농산물가공, 메탄가스 생산이 하나로 일체화된 혼합경영형식이다.

상 식

생명과학분야에서의 초점－나노생물학

나노생물학은 최근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는 나노과학기술의 한 분야로서 새세기 생명과학분야에서 커다란 주목을 끌고있다.

나노생물학은 나노기술과 생명과학이 결합되어 생겨난 과학으로서 세포조직의 구조와 기능, 세포안, 세포안과 세포밖사이, 생물체전체에서 에너지 및 정보전달 등과 같은 생명현상을 나노크기에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생명체의 기본기능이 1~10nm크기의 단백질분자기계의 운동에 의하여 수행된다는데로부터 나노생물학은 이러한 단백질분자기계의 운동, 형태변화, 분포변화 등을 통하여 생명현상의 본질을 연구해명하고있다.

나노생물학의 최종목표는 단분자수준에서 생명현상의 비밀을 밝히고 나노분자기계를 만들어내는것이다.

나노생물학은 주사식탐침현미경, 단분자형광기술, 레이자핀센트 등과 같은 나노측정 및 나노조작기술에 의하여 발전하고있다.

련 시

추억에 실린 못 잊을 나날

—1970년대를 회고하여—

주 정 웅

우리 당비서의 작업복

참 민망스럽게도
하필이면 당비서의 작업복이
못 잊을 모습으로 추억되다니
용서해다오 흥허물었던 나의 친구들아

하지만 내 떠올린 모습이
어딘가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가
우리 당비서는 멋따기와 도넛 사심과
담을 쌓았던 일꾼이었거니

공장당비서라면
간혹 잘못된 일에 큰소리도 칠수 있으면만
나는 들은적도 본적도 없노라
그와 함께 한지붕밑에서 일한 10년세월

말수더구 적은 성미가
큰소리마저 삼켜버렸던가
아니었노라
그는 큰소리를 행동으로 메꾸는 사람

그 표적이 바로 작업복
오늘도 눈에 선히 보여오지 않느냐
용해장의 불씨에 구멍 뚫리고
잔등에는 소금버케 허영게 돌아있고...

보기 딱해 로동보호물자 창고장아바이
두툼한 방열복을 가져다준적이 있었지
그때 당비서의 한마디

—나한텐 방열복편제가 없는데요

그래서 후방부 재봉공아낙네들
방열천을 구해서 작업복 지었지만
—누가 내 작업복을 흥복디까?
혹시 그게 후방부지배인동무가 아닙니까?!

이것은 자기들의 마음이라며
드살군 아낙네들 입히기까지 했다는
그 사연으로 해 더욱 잊혀지지 않는
공장당비서의 작업복!

수수한 작업복의 그 차림새앞에는
로동자 기술자 취사원 누구라없이
속내까지 감춤없이 다 털어놓는다는
참으로 요술스러운 작업복이었으니

작업복은 쇠물에 구멍이 뚫리였어도
만여명 로동자들의 가슴가슴에는
일편단심을 꽃비단같이 정히 수놓아
장군님 받드는 길에 내세운 공장당비서

정녕 그러하였기에
친구들아 우리모두는 하나같이
생각도 실천도 그 본새로 했었지
아, 오늘도 못 잊는 1970년대의 일본새

양 보

친구들 생활의 파도우에 추억의 노 함께 젓자
별난 노여움을 사
옹거니 뿔거니 말썽에 올랐던
한장의 살림집입사증이 생각나는가

그 사연의 까닭인즉
당비서에게 배정된 새 아파트
양지쪽 세칸짜리집 입사증이

로장아바이에게 넘겨진탓이었지

헌데 왜 성이 났던가 로장아바이
입사증을 들고 달려와 노기찬 목소리
—당비서동지 정말 섭섭합니다
나를 생각해주는 품이 그게 답니까

그럴줄 알았던 당비서

랑해시키느라 앉았다섰다 텅비고
그 모양을 더 보지 않으려는듯
로장아바이 썩 방안을 나가버리고

식솔이 일곱인 당비서
자기에게 배정된 입사증을
식솔이 여섯인 로장아바이에게
그대로 넘겨주어 생겼던 그 사달

로장인들 당비서의 마음 몰랐으랴
경애하는 장군님 뜻으로 살며 일하며
좋은것은 인민에게 양보하는 고마움
천금주고 살수 없는 따듯한 정

알면서도 알면서도 자꾸 머리드는 생각
—나만이 인민이란 말인가
당비서도 인민이며 일꾼인데
내 그 양보를 받아 온당한가? 천만에!

어허 크게 버르던 로장아바이
어찌된 일인가 눈에 눈물을 담은채
당비서와 마주앉아 맛나게 피우는
담배의 푸릿한 연기 한데 엉켜돌고...

오, 두사람
서로 말없이 서로 마음속 말을 들었네
—참으로 좋은 우리 인민이야!
—끝까지 손잡고 따라갈 우리 당의 일꾼이야

못 잊을 70일

사회주의대진설전투어로
온 나라를 부른 당의 호소는
올해계획을 무조건 끝낼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며 당의 의도

우리는 그때 당의 호소를
도덕과 의리 신념으로 받들지 않았던가
온 공장종업원들이
산악같이 떨쳐나섰거니

긴 회의도 필요없었다
—합시다
—꼭 해내야 합니다
지배인과 당비서의 짧은 선동

그날부터
낮에 밤을 이은 70일전투
용해장에서 떠날념을 앓던 용해공들과
일도 함께 침식도 함께 하던 나날이여

천정기증기운전공은 피진 눈을 비비면서도
자기 초소를 비우지 않았고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기술자들과 의사들 기대결에 있었더라

출근길 퇴근길 이른새벽에
혁신의 새 소식 특보로 전하던
전투속보여 방송선전차여
게시판에 나붙던 혁신자사진이여

오, 70일
아름찬 과제앞에 주저한 사람 있었던가
밤잠을 다 자고 일한 사람 있었던가
결으면 늦어 달음쳐 산 70일

당이 부른 호소
전진이란 돌파구란 승리란 어떤것인지
우리 심장으로 깨달은 그때 그 나날을
우리 순간인들 잊을수 있으랴

우리모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 부르며 따르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령도하신
70일전투여
크나큰 담력으로 승리의 돌파구를 연 70일이여

수훈식 후날의 이야기

공장문화회관이 터지게 모였던
훈장수훈자 천여명
사람이 많아 의견도 많았던가
당비서의 수훈을 두고

—로장인 내가 국기훈장 1급인데

당비서는 아무 수훈도 없다니...
이거야 틀려도 대단히 틀린거지
—일꾼들의 수훈내신은 누가 하는가
공정치 못하거던

철을 다루는 사람들이어서

한번 먹은 생각 산악같이 세웠던가
전후시기 쥐새끼같은 나쁜 놈들을
용광로에 처넣게 보내달라던 불같은 성미

—1만명 노동자들의 집집에
순가락 몇개인지 아는 사람 바로 누구며
속속들이 아는것만큼 집집의 걱정거리
도맡아 풀어준것도 당비서 아닌가

더는 그러지 말라며
인민들을 금방석에 앉히고
일군들은 그들의 심부름꾼이 되라는것
이것은 당의 바라심이라며 미소짓는 사람

며칠후
상급당조직의 지시
—당비서는
도당위원회에 급히 도착할것

웬일인가?!

무슨 일이 생겼는가?!

도당으로 떠나는 당비서를 바래우는 우리더러
않지들 말고 일 잘하라는 당부뿐

온 공장이 보고싶어 기다렸더라
전화소식조차 없던 여라문날
그러한 어느 이른아침 해빛도 눈부신데
《로동신문》이 전해준 희소식이여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아, 거기에 우리 당비서의 이름도 있어
온 공장이 기쁨과 자랑에 얼마나 들썩였던가

김일성훈장!
누가 내신한것인지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친구들 그때 우리는 알았더라
일군들의 공로는 인민이 검증하고 평가함을
그 검증의 평가를 당이 귀중히 여기였음을!

꽃 비 단 복 비 단

리 동 수

해살은 창가마다 눈부시고
직기는 고르로이 돌고돌아
천송이 만송이 꽃들이 만발한
필필이 옷감이 쏟아진다

뜻깊은 10월의 이 아침
행복이 흐르는 거리마다
화려한 꽃물결 펼쳐가자고
직기를 누비는 걸음마다에
일어번지는 비약의 번개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 사랑하시는 인민을 위해
장군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민생활향상의 주공전선

피눈물의 12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잘 받들자고
그날에 심장마다에 다진 맹세로
필필이 짜내는 이 천
필필에 엮여가는 우리의 마음

그리움의 마음을 앞세우고
짜내고짜내는 꽃비단 꽃비단이
필필이 쌓이고쌓일 때면
새웃 입은 인민들의 모습 보시며
강산이 환하도록 웃으시리 우리 장군님

우러러 그 모습 그리면
직기마다에 흐르는 따스한 봄빛
마음은 벌써
부흥하는 내 나라 봄언덕에 서있나니

직기마다에 일어번지는
함남의 거세찬 불길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새 100년대를
더욱더 찬란히 빛내일 마음들이
찬란한 래일로 폭풍쳐 달려가는 이 마음

오, 인민이여 받으시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이 깃든 이 옷감
이 세상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인
꽃비단 복비단을 받으시라

시에 대한 생각

변영옥

나는 한때 시인이 되기를 무척 갈망하였다.

격변하는 우리 생활이 그대로 서정의 샘이고 시를 낳게 하는 투쟁과 창조의 원천인 탓에 저절로 시의 구절구절들이 튀어나오는 계기가 드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체험한 생활의 토막을 가지고 시를 몇편 습작집에 남겨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천성적으로 시적재능이 부족하여선지 종내 한편의 시도 완성할수 없었다. 하여 나는 마음속으로 단정하였다. 시는 특정한 재간을 가진 사람들이 쓰는 글이다. 나같은 사람은 엄두도 못 낼 비상한 문학임에 틀림없다.

이 생각이 은근히 나에게 시문학이라는 집의 울타리가 보통 높지 않다는 인식을 주었고 웬만한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서는 그 울타리를 넘을래야 넘을수 없다는 생각을 굳혀주었다.

나의 이 견해를 뜻밖에도 우리 생활의 어느 하루가 뒤집어주었다.

그날도 나는 사리원학용품공장에서 현실체험의 나날을 보내고있는중이었다.

이 공장은 나의 처녀시절에 노동생활의 첫정을 맺어준 아주 인연깊은 곳이다. 하나하나의 기계동음소리마저도 어서 오라 나를 부르는듯싶은 정다운 공장에 대한 애착은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유정하였다.

작업에 여념이 없는 나의 등뒤에서 갑자기 작업반장 안동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작가동무, 내가 좋은 소식을 알려줄까요?》

돌아보니 작업반장의 얼굴엔 싱글 웃음이 떠돌고있다.

나는 일손을 멈추고 의아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어떤 소식이게요?》

《작가동무가 그렇게 듣고싶어하던 쌍둥이엄마의 시를 래일 듣게 되였습니다.》

《그게 정말이예요?... 참, 래일이 무슨 날이게요?》

《보통날입니다. 하지만 종업원들이 그의 시를 다시 듣고싶다고 제기해서 래일 분기생산총화뒤끝에 시를 발표하기로 했답니다.》

그때부터 나는 야릇한 기대로 마음이 울렁거

리기 시작했다.

지난 2월 광명성절을 맞으며 공장적으로 진행된 공연에서 읊었다는 그의 시는 종업원들속에서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유감스럽게도 그때 나는 공장을 뜨고 없었던지라 그 자리에 참석 못한 아쉬움으로 두고두고 가슴을 앓던터였다. 그런데 공장종업원들의 제기로 그가 창작한 자작시가 다시 읊어지게 된다니 어떤 시일가 하고 무척 기대되었다.

다음날 저녁이었다.

분기생산총화에서 쌍둥이엄마는 학습장생산계획수행에서 1등을 하여 요란한 박수갈채속에 상급까지 받아안았다. 쌍둥이엄마로 말하면 부모들이 일하던 공장에서 처녀시절부터 일해오는 소문난 로력혁신자이다. 고난의 행군시기 자그마한 지방산업공장에 어려움과 난관은 많았지만 쌍둥이자식보다 자기 마음에 먼저 자리잡은 사랑하는 자식은 일터의 재단기라고 하며 기대엿을 떠나지 않은 보배혁신자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시가 더더욱 기대되었다. 어떤 시를 썼을가.

어느덧 생산총화가 끝나고 쌍둥이엄마가 무대에 나섰다.

룡구선수처럼 유별나게 큰 키가 특징적인 그는 두손을 가볍게 맞잡고 창밖의 먼 하늘가를 바라보았다. 가슴속에 쌓여있는 하많은 사연을 돌이켜보는듯 눈가에는 반짝이는것이 보였다.

어느덧 마음을 다잡은듯 마디마디 힘을 주며 시를 읊기 시작했다.

로동의 첫걸음 떼던 그날

나의 어머니 기대앞에서

나에게 조용히 말해주었어라

생산자와 제품은

떨수 없는 인연 맺고 사는 사이라고

그래서인지 이 마음엔

언제나 학습장이 먼저였다

허나 우리 수령님

나에게 다시 가르쳐주셨어라

학용품을 만드는 생산자는

생산자가 아니라

미래를 키우는 일꾼이라고

후대들에게 기울이시는 그 사랑
세월과 더불어 우리 장군님
고스란히 우리 생산자마음속에 부어주셨거니
그이의 손길아래
우린 제품에 사랑을 부어주는 법부터
배우며 성장하였더라

위대한 아버지들의 그 사랑
한권의 학습장
한점의 학용품마다에 그대로 깃들어있는
우리의 일터에서
광명성절 오늘 저 푸른 하늘가를 바라보니
견잡을수 없구나 그리움의 뜨거운 눈물

...

하냥 솟구치는 우리의 이 눈물은
가슴아픔의 눈물만이 아니다
뜨거운 정과 사랑의 화신이신
김정은장군님에 대한 매혹과 흠모의 마음
활화산처럼 끓어번진다
우리의 맹세가 끓어번진다

이 맹세
더 많은 학용품으로 쏟아지게 하자
우리의 생산물에
미래를 키우는 일꾼
혈육의 뜨거운 정이
사랑으로 깃들게 하자
이것이 위대한 아버지들의 념원이다
우리의 **김정은**동지의 뜻이다

평범한 노동자의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소박한
시의 구절구절이 나의 가슴도 쿵쿵 울려주었다.
미래를 키우는 일꾼, 혈육의 뜨거운 정...

조용히 그 말을 음미해보니 나의 눈앞에는 자그
마한 지방산업공장을 위해 뜨거운 폭양속에서 심
혈을 기울이시던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뜨겁게 안겨왔다.

현지지도의 그 바쁘신 걸음을 멈추시고 자그마
한 지방공장에서 나오는 학습장생산실태를 료해하
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여기에 학용품을 전문
생산하는 공장을 아담하고 쓸모있게 지어주자고
하시며 능력있는 기술자들과 건설자재를 보내주실
방도를 의논해주시었다.

나라의 왕인 아이들의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되

시여 끊임없이 부어주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사랑속에 훌륭하게 일떠선 학용품공
장이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돌기돌기 수십년의 흐름을
새기여왔다.

그 줄기찬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공장의
력사로 대를 이어가며 전해지고있다.

나는 로동자들과 함께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
를 치며 생각했다.

저 녀인의 시는 완성된 훌륭한 창작품이 결코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심금을 족히 울리고도 남는다.

하다면 시란 정녕 무엇인가.

위대한 아버지들이 키운 우리 인민이 사는 이
세상, 오늘날 인덕과 사랑의 전설을 수많은 창조
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손길아래 전진해
가는 우리 조국땅의 현실은 저절로 시인들을 탄
생시키는 창조의 원천이다.

오늘날 《로동신문》의 지면에도, 문예잡지들에
도 전문가들만이 아닌 수많은 로병들과 근로청년
들 지어 소학교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창작
하는 많은 시작품들이 소개되고있다.

천만군민이 투쟁과 창조의 서사시를 수놓는 전
호가와 훈련장, 공장과 어촌, 농촌의 전야, 대건
설장마다에서 제일 좋은 시어와 제일 아름다운 운
률을 골라 창작한 시작품들이다.

그 시작품들을 보면서 쌓아온 생각이 오늘 공장
의 평범한 로력혁신자 쌍둥이엄마의 시를 들으며
터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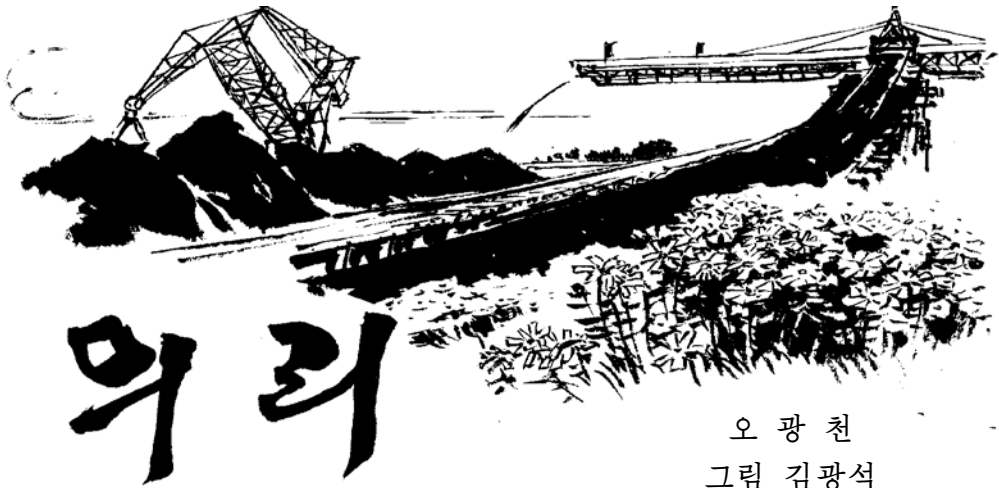
시는 재능으로 다져진 정교한 언어와 운률의 묶
음만이 아니다.

시는 사랑이다. 정이다. 순결한 마음이다.

진실로 위대한 수령께 매혹된 심장들, **김정일**애
국주의의 열풍으로 내 나라, 내 조국을 부강조선
으로 안아일으키자고 정을 담아 열을 담아 호
소하시는 위대한 령도자를 받들어 일떠선 우리의
천만군민의 수령결사옹위의 크나큰 심장에서 뿜어
나오는 충정의 메아리이다.

자기 일터를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심혼과
사랑이 깃들어있는 사랑하는 조국의 한 부분
으로 여기고 자기 집처럼, 자기 자식처럼 심
혈을 기울여 사랑하고 부흥시키려 아글타글 애
쓰고 신발창이 닳도록 뛰는 애국자들의 헌신
의 토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올 맹세의 메
아리이다.



오 광 천
그림 김광석

1

방금 사업토의를 마치고 지배인방문을 나서던 업무부지배인은 《아차!》 하고 이마를 치며 돌아섰다. 사업토의시간에 너무 긴장했던 나머지 중요한 문제를 놓쳐버렸던 것이다.

그렇만도 한 일이었다. 고창수지배인으로 말하면 이 탄광에 임명받아온지 겨우 한달밖에 안됐지만 칠팔년째 이 직무에 있는 자기보다도 더 탄광업무를 환히 꿰고서 속속이 파고들다나니 부지배인으로서 딱한 처지에 빠질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하긴 고창수지배인은 부임 첫인사부터 일군들을 긴장시켰었다. 마중나온 승용차를 떠나보내고 석탄운반로선을 밟아서 탄광에 도착한 그는 곧 보름어간 일군들과 탄부들이 제일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새벽 두시면 어김없이 매 중대별 막장에 순차적으로 나타나곤 했다.

그리고는 탄부들과 함께 탄도 캐내고 착암기도 휘두르며 어울리곤 했는데 탄부들속에서는 벌써 새 지배인을 두고 《아바이》라고 통칭되고있었다. 아직 두발 가뿐히 매달리는 팔이 있는 젊은 사람을 두고 아바이라 한다니 어색한데는 없지 않았지만 탄부들의 호칭에는 너글너글하면서도 호방스런 새 지배인에 대한 존경과 함께 은근한 기대도 깃들어있었다. 이 점이 바로 탄광의 행정, 기술일군진영을 긴장시키는듯 했다. 참 이상도 하지. 불임성이 좋은 새 지배인의 인상은 탄부들을 대할 때나, 일군들을 대할 때나 다 같은데 긴장할

필요는 뭐람. …

지배인은 꼭 보름만에 탄광 행정기술일군협의회를 열었다. 이때도 일군들은 또 한번 긴장했다. 아니, 긴장정도가 아니라 깜짝 놀랄 일이었다.

《…우리가 제강소와 화력발전소에 석탄을 원만히 보장해주자면 침수갱도들을 복구하고 0수준(탄광에서도 바다물면수준을 0으로 본다.)아래서 채굴해야 합니다.》

의견이 분분했다. 한쪽귀를 열면 확실히 담이 큰 일군이라는 찬사의 목소리였고 다른쪽귀를 열면 설치고 불속에 뛰어드는것이 아닐가 하는 우려의 일종이었다. 그도 그럴것이 조롱박처럼 탄발이 들어앉은 이 창봉탄광에서는 0수준아래로 내려갈수록 매장량이 풍부한것은 사실이지만 석수 또한 가장 많이 집중된 곳도 0수준아래다. 그래서 5년전에도 미누스수준을 개척하자고 품을 들였다가 물동이 터져서 끝내 철수하고말았던 것이다. 조건이 이렇진대 지금처럼 현존생산에 바쁜 때에 침수갱복구를 위한 그 많은 설비와 자재, 로력을 어디서 보충한단 말인가. 이는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론거였다.

업무부지배인이 다시 들어서자 지배인은 묻는듯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부지배인동무가 돌아선것을 보니 이 방에 무엇을 놔두고 간겁니다?》

업무부지배인은 멋적은 표정을 지으며 손을 저었다.

《아니, 그런게 아니고… 저 로보과장자리가 빈지도 몇달 잘되었습니다. 능력있는 사람을 빨리

배치했으면 해서...》

《밤급 여기에 온 나로선 사람들에게 대한 파악이 적은데... 데리고 일할 사람이니 부지배인동무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책임자가 있습니까?》

《저... 나이는 젊지만 지금 자재부원으로 있는 유정철동무가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탄광에서 그만한 능력가가 없습니다.》

부지배인은 말을 해놓고서 미타한 생각이 들어선지 지배인의 표정을 살핀다.

창수는 내색을 안했지만 속으로는 무등 반가왔다. 유정철이로 말하면 창수가 지난날 굴진공으로 배치받아서 만났던 첫 소대장이며 은인이라 할수 있는 유명국의 아들이었다.

《우리 정철이를 부탁하네...》

명국소대장이 창수의 무릎을 베고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이었다. 지금까지 창수는 명국소대장의 이 부탁을 지켜주지 못하였다고 할수 있었다. 대학생들과 직무변동, 다망한 사업, 이런 조건으로 하여 정철의 장래문제는 관심으로만 머물러있었을뿐이어서 첫 소대장의 마지막부탁은 창수의 마음속에서 항상 미안한 감정을 일으켜주었다. 하기에 여기 창봉탄광지배인으로 임명받자 창수의 머리에 제일먼저 떠오른것이 바로 명국소대장과 그의 아들 정철의 모습이였다. 잘 도와주고 이끌어서 정철이를 아버지가 바란대로 훌륭히 내세워주고싶었다.

그런데 시작부터 창수는 오히려 정철에게서 힘을 받았다고 할수 있었다.

지배인이 소집한 첫 협의회에서 많은 일군들이 창수의 미누스수준채굴안에 대하여 반신반의했다.

침수갱도를 복구하자면 수많은 자재와 설비, 로력이 필요한데 무슨 수로 이를 다 해결하겠는가, 특히 물을 푸자면 뿔프들을 배로 증가시켜서 가동시켜야겠는데 여기에 필요한 전기는 어떻게 해결하며 침수갱도를 복구한다쳐도 또 물이 터지면 어찌한단 말인가.

이때 자리에서 일어선 정철이가 격동된 어조로 말했다.

《...우리가 조건타발을 하면서 침수갱을 복구하지 않는다면 미누스수준에 매장된 무진장한 탄은언제가고 나라의 재부로 될수가 없을것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자기 맡은 몫을 다한다면 어려울것이 없다고 봅니다. 모자라는 전력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창수는 정철을 두고 못내 감탄했다.

(자기의 몫을 다하잔 말이지. 옳다, 이것이 바

로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문제해결방도이다. 확실히 정철인 곁은 물론이요 속까지도 아버지 그대로야.)

이로써 협의회에서 제기되던 의견은 단번에 일축되고 침수갱복구를 위한 임무가 분담되였다. 그만큼 탄광에서 정철의 역할은 자못 큰것이였다. 창수가 료해한데 의하면 그는 자재구입이나 공급에서 막힘이 없는 능력가였다. 일단 결심하면 끝까지 실행하고야마는 정철이가 침수갱복구를 위한 전력보장을 말아나섰은즉 문제는 해결된셈이라고 일군들이 생각하는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였다.

바로 이런 능력가를 책임적인 지위에 등용하고 내세워주는것이 원칙에도 맞으며 인간적인 의리로서도 옳은 처사라고 생각하던터인데 부지배인까지도 의견을 같이하니 창수로서는 더없이 반가운노릇이였다.

《저도 동의합니다. 당위원회에 그렇게 의견을 제기하겠습니다. 제 보건대도 정철동무가 로보파장의 직무를 훌륭히 감당할것 같습니다.》

부지배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응수했다.

《로보파장정도겠습니까? 아마 제 자리도 인차 그에게 넘겨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정말 탄광업무사업에서 그가 맡은 몫이 대단하지요. 어쨌든 정철동무가 나서서 해결 못하는 자재나 물자는 없습니다.》

부지배인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부지배인을 바래고서 즐거운 마음으로 책상을 마주하던 창수는 무심결에 탁상일력을 들여다보았다. 일요일이였다.

언뜻 3일전에 정철이와 추가전력을 받는 문제를 의논하던 때의 일이 생각났다.

《...도송배전부 계획처장이 저와 이미전부터 친분관계가 깊으니 추가전력은 꼭 해결될겁니다. 그리고 탄광과 발전소는 서로 뗄수 없는 자매기업이나 같은데 석탄생산을 늘이자고 전기를 더 받는것은 응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그건 그렇고... 저 지배인동지...》

《그전처럼 아저씨라 부르렴. 난 그 말이 더 좋더라.》

《그렇게야 어떻게... 오는 일요일이 어머니의 생일입니다. 어머니가 지배인동지를 꼭 모셔오라고 했는데...》

《알지. 내 그날엔 만사를 다 제쳐놓구라도 꼭 가마.》

그래, 초청이 없었다 해도 오늘은 꼭 찾아가 정철이 어머니를 축하해주는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인것이다. 정철의 아버지가 창수의 은인이라면

정철의 어머니인 한옥은 그에게서 친누이와 같이 다심한 존재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나 돌아간 후나 한옥은 창수를 친동기처럼 살뜰히 보살펴주었다. 대학에 다닐 때에도 한옥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학용품이며 보약재, 식료품 등을 준비해가지고 도소재지까지 올라와서 들려주곤 했는데 헤어질 그때면 창수는 무언가 이름할수 없는 감동에 젖어들곤 했었다.

그가 졸업반때의 일이다. 어느날 시내의 한 기업소에 현장실습을 나갔던 창수는 늦은 점심시간에 기숙사로 돌아왔다.

《창수동무, 누이가 찾아왔댔네.》

창수는 삼시에 울렁거려오는 가슴속 박동을 느끼면서 다우쳐물었다.

《지금 어디에 있나?》

《기다리다가 차시간이 박두해서 역으로 갔다네. 무슨 꾸레미인지 한집 지고와서 여기에 놓고는… 저기 보라구. 자네의 땀은 옷을 다 빨아서 널어놓고 교복까지 다려놓구야 떠났다네.》

창수는 가슴속에 깃드는 뜨거움을 느끼면서 성급하게 호실문을 나섰다.

한호실동무가 따라나서며 소리쳤다.

《어디 가는거야?… 역에?… 지금쯤 열차가 떠났을수도 있어.》

그의 말을 귀등으로 흘리며 창수는 내달렸다. 역에 다달으니 흠에 서있던 열차가 발차기적을 길게 울리며 떠나는 참이었다.

마음이 조급해진 창수가 성급하게 소리쳤다.

《정철이 어머니… 누님…》

《적은이, 나 여기 있어요.》

마침 마지막객차 승강대에서 한옥이 손을 흔들고있었다. 창수는 승강대손잡이를 잡고 따라걸으며 말했다.

《누님, 정말 고마워요.》

《별소릴 다… 이렇게 얼굴이라도 보았으니 마음이 거뵈해요. 참, 내가 가져온 보침속에 삼주엿이 있어요. 한순가락씩 매끼 장복하면 위병을 고칠수 있대요. 자, 이제 손을 봐요. 그러다 사고가 나면 어쩔려고…》

창수의 가슴이 울컥했다. 열차가 점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창수는 잔걸음을 하며 아니, 뛰다싶이 하며 말했다.

《잘 가요.… 앞지 마세요.…》

《꼭 최우등을 해야 해요.…》

창수는 후더워오르는 마음을 묵새기며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있었다.…”

그런데 졸업배치후 사업상 드바쁜 조건은 창수에게 명국이와 한옥의 생일날조차 찾아갈 시간을 마련해주지를 않았다. 이런걸 두고 삼복철에 솜옷 귀한걸 생각 못한다고 하는지…

《…의리가 없다니요. 그런 생각은 말아요. 적은이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의리를 지키는거예요.》

창수가 사죄하듯 말하면 한옥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오늘에야 한달음이면 달려갈 곳에 집이 있는데 어째서 가지 못하겠는가.

《허, 지배인어른이 행차하니 우리 집이 한결 환해지는군요.…》

창수는 나이는 많아도 젊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류창한 목소리를 고이 간직하고있는 한옥의 모습을 눈앞에 떠올리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래, 다문 한두시간이라도 얘기를 하며 회포를 나누자.)

2

한겨 동안 비를 쏟아붓던 구름을 헤집으며 해별이 쏟아져내렸다. 저너머 둔덕에선 물김이 느물느물 피어오르고 양어장기슭에 줄지어 늘어선 버드나무들은 살랑이는 별바람에 금시 행구어넘긴 녀인의 머리채같은 가지들을 가볍게 흐느적이고있었다.

창수는 한비에 멀썩해진 구내건물들을 거뵈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서두름없는 걸음을 옮겼다.

래년봄부터는 이 양어장도 확장하고 야외공원도 현대적미감에 맞게 꾸리며 저 공지에다가는 창광원식목욕탕을 멋지게 일떠세워야지. 그리고 이쪽엔 덩지큰 아파트를 들어얹히고… 가만, 이건 무슨 소리야?…

나래치는 상상과 함께 이어지던 그의 걸음이 어느 집앞에서 멎었다.

반백의 로인내외가 지붕에 올려지른 사다리앞에서 청높은 목소리로 씩하듯 말하고있었다.

《왜 못해요. 난 할수 있수다.》

《허, 칠순이 넘은 로친이 기와수리를 했다고 온 탄광바닥에 웃음거리를 만들고싶어 몸살이요? 주책머리없이…》

창수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그리로 다가갔다.

할아버지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불편한 자세로 서있었다. 창수는 사연을 짐작하면서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우.》

《지붕에서 비가 새면 보수작업반에 말하면 되겠는데 어째서 다투십니까?》

마당에 들어서는 손님을 서름히 여겨보던 할머니가 시답지 않게 말했다.

《보수작업반에서 왔소? 령감, 끝내 할일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였구려.》

아마 무언가를 혼돈한듯싶었다.

《원, 잘 듣지도 못하면서 참네는… 하긴 나도 보수작업반의 신세를 좀 지차고 했었는데 저 로친이 우기는거지요. 뭐 전후엔 용광로에서 무죄도 녹인 자기가 기와수리 하나 못하겠는가 하며… 허, 그 말도 옳은 소리구… 제 노력을 들여서 이루어지는것을 볼 때가 좋긴 한데…》

창수는 로인의 의미심장한 말을 음미해보면서 집주위를 둘러보았다. 마당가에 과일나무가 우거지고 그밑에는 십여개의 벌통이 놓여있었다. 토방에는 할머니가 기웠으리라고 생각되는 로동장갑통구리가 여러개 놓여있었다. 창수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함에 바쳐가는 로인들의 수고를 새삼스러운 감정에서 느끼면서 할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님, 내가 하겠으니 걱정마십시오.》

그런데 할머니가 생뚱같은 소리를 했다.

《며느리는 일어나고 손주는 학교에 갔수다.》

《로친이 가는귀를 먹어서 좀 크게 말해야 듣지요. 그런데 손님에게까지 수고를 끼치겠소. 저 그늘에서 땀이나 들이시오.》

《이런 일이야 젊은이들이 해야지요.》

지붕에 올라선 창수는 벌어진 기와짚들을 차근차근 맞추어나갔다. 하면서 그는 무엇보다도 살림집건설을 선행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었다. 창수가 일을 끝내고 내려서자 할머니가 꿀물 한사발을 들고왔다.

《수고했수다. 시원하게 마시우.》

《참, 폐를 끼치여 미안하우다. 현대 보지 못하던 손님인데 우리 탄광에 일보러 오셨소?》

창수를 여겨보던 할아버지가 물었다.

《인사가 늦어서 미안합니다. 제 탄광지배인으로 새로 온 고창수입니다.》

로인내외가 반가와하며 창수의 손을 잡았다.

《아, 이 늙은것들이 눈이 멀었수다. 지배인 어른을 몰라보구서 험한 일을 시켰으니…》

《그런 소리 마십시오. 다 우리 일꾼들이 일을 쓰게 못해서 로병아버님이 불편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디 갔습니까?》

《아들은… 작년에 그만…》

로인이 쓸쓸하게 말했다. 창수는 묻지 말아야 할걸 물었음을 자책했다.

《그럼 며느리는 어디서 일합니까?》

《6갱에서 뿔프운전을 하지요.》

《예?…》

놀라서 창수를 보며 로인이 말했다.

《거 탄광에서는 상점판매원으로 있으라는걸 며느리가 우겼지요. 뭐 남편의 뒤를 이어서 뿔프를 꼭 개조하겠다나요.》

《뿔프를 개조한다구요?!…》

《우리 아들이 재간둥이었수다. 거 뭐 무슨 기준을 낮춘다든지… 지금은 며느리가 하지요.》

할머니가 귀를 강구고서 령감과 창수의 입놀림을 여겨보다가 끼어들었다.

《헛참, 로친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비친다니까. 무슨 탄캐는데 드는 제품원가기준을 낮춘다고 하던지…》

《가만, 제품원가기준을 낮춘다구요. 며느리가 연구한단 말입니까?》

《연구야 뭘… 거 먼저간 사람에 대한 의리라 할지. 어려운것을 불안고서 며늘애가 고생하지요.》

이 늙은것이 뭘 좀 아는데 있으면 나라에 보탬을 주자고 아글타글하는 그 애를 도와주련만…》

《그런데 내가 왜 아직 그걸 몰랐을가요?》

로인이 쓸쓸하게 웃었다.

《보고를 안했겠지. 승산이 보이지 않으면 관심이 덜하니까요.…》

창수는 생각되는바가 있어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물었다.

《며느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얌박한 입술에 상큼하게 일어난 코, 크고 리지적인 눈매 등이 보기좋은 몸매와 어울려 세련미를 풍기는 녀성이 뿔프장 한쪽에 있는 책상에서 지배인과 마주했다. 그가 바로 좀전에 창수가 만나본 로인의 며느리인 리인숙이었다. 창수는 로인내외에게서 인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그 걸음으로 6갱 150마력뿔프장으로 찾아들어왔다. 그 어떤 기대감이 그의 가슴을 틀어잡았다.

인숙은 생긴것처럼 담담한 성격의 녀성이었다.

그는 새 지배인의 불의적인 출현에도 놀라거나 반기는 기색이란 없이 예견했던 방문이기라도 한 것처럼 실무적으로 맞이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은근한 기대가 깃들어있었다.

《…이자 설명한것처럼 기술적의도는 간단합니다. 전동기의 회전속도를 빠르게 하여 작은 전력을 가지고 많은 량의 물을 푸자는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재능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창수는 실험일지들을 들춰보다가 인숙에게 눈길을 건넸다.

《그때 동무의 남편이 언제부터 이 개조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소? 참, 목은 상처를 들춰내니 가슴이 아프겠지만 어쨌든 알고싶구만.》

창수는 버릇처럼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들다가 녀성앞이라는 생각에서 주춤했다. 어느새 눈치를 챘는지 인숙이가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서는 고깔을 만들어서 재떨이대용으로 놓아주었다.

《괜찮습니다. 전 피로울 때마다 항상 남편을 생각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곤 합니다. 그이는 병마의 고탄폭속에 신음하면서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전동기를 개조해야 자신에게 나라를 위해 해놓은 그 무엇이 남는다고... 그래서 제가 뽐프장을 떠나지 못하는것입니다. 참, 이 개조안을 처음엔 다른 사람이 연구했었습니다.》

《그게 누구요?》

《그때 그는 우리 탄광에 현장실습을 내려왔던 탐구심이 강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이젠 6년전의 이야기지요. 정말 재능도 있고 열정도 있었으며 수완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내려오자마자 이 뽐프를 연구용으로 맡았지요. 매력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하긴 매혹될만도 했지요. 뽐프의 능력을 1.3배로 높일수 있다는데 누군들 현혹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기계기사로 있던 저의 남편도 그 대학생의 재능과 적극성에 탄복하여 적극 도와나섰습니다. 그런데 과학연구관 100미터달리기처럼 섬광과도 같은 속도로 순간에 안아올 월계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라손처럼 보다 강의하고 지긋한 의지가 필요한겁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150마력전동기가 새까맣게 타고 갱의 생산이 절반이나 죽었지요. 대학생청년을 극구 추어주던 사람들속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는 랑만적이더군요. 곡절이 없는 성공이란 있을수가 없다면서 말입니다. 정말 그의 가슴속에는 고귀한 그 무엇이 깃들어있는듯했습니다. 그런데 실습기간에 연구안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대학에 올라갔던 그가 전공분야가 아닌 자재일군으로 방향전환을 하고서 우리앞에 나타날줄이야... 그후 저의 남편이 이 연구안을 스스로 맡아안았습니다. 그인 말하곤 했지요. 사람에게는 나라를 위한 제나름의 몫이 있다, 헌데 그 몫이 어떤것인가 하는것이다, 바로 나라를 위한 자기의 땀땀한 몫을 찾는 사람이 애국자다.》

지금까지 팽팽하게 울리던 그의 목소리가 떨리었다. 급급히 손수건을 찾아챈 그가 불그스름해진 눈가를 훔쳤다. 이러한 인숙을 바라보던 창수

도 자신의 온몸이 후더워오르는것을 느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느라니 눈앞에 련상되어 안겨오는 모습.

《자네가 무사하니 내 몫은 한셈이야.》

유명학소대장이었다. 어쩌서 다른 두사람이 하나의 화면에 담겨지는건가. 창수는 울컥하는 마음을 애써 다잡으며 거친 어조로 물었다.

《그 대학생이 대체 어떤 녀석이요?》

인숙은 눈섭으로 흘러내린 머리칼을 쓸어올리며 미소같은것을 지었다.

《그가 누구인지 아시면 혼이라도 내시렵니까? 아니, 지배인동지는 그러시지 못할겁니다.》

《그건 어째서?...》

《그는 우리 탄광에서 보배처럼 떠받드는 유정철자재부원입니다.》

《뭘... 뭐라구?... 정철이가 어쩌서 연구를 포기했다단 말이요?》

《꼭 집어말한다면... 과학연구라는 멀고 험한 길이 두려웠겠지요.》

창수는 가슴속에서 무엇인가가 쿵 내려앉는 충격을 느끼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듯 심장이 저리여왔다. 저도 모르게 그의 입새론 신음소리같은것이 새어나왔다. 인숙이 그런 지배인을 눈여겨 바라보고있었다.

어쩐지 심중의 파동을 이 녀인이 속속 꺾어보는것 같아 면구스러워진 창수는 몸을 일으켰다.

《그때 동무는 어느 대학을 나왔소?》

그는 자기를 따라 일어서는 인숙에게 생각나는대로 물었다.

《전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상업전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무가 뽐프개조안을 성공시킬수가 있겠소? 사람에겐 적재적소란게 있지 않은가. 차라리 상점판매원이라든가...》

창수는 인숙의 갑작스런 표정변화를 느끼면서 자기의 실수를 깨달았다. 생각이 혼탕되다니 아무 말이나 망탕 나갔던것이다.

《상점판매원은 누구나 다 할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뽐프개조는 제가 꼭 해야 합니다.》

그의 눈가에서 울분같은것이 쏟아져나왔다. 하긴 그럴수가 있지. 지금 그는 배반감을 느꼈을테니까...

창수는 천천히 걸어나왔다.

진 지배인에게 고도의 정신적양양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다. 야간의 생산정형을 총화지어야지, 새날에 제기되는 분주한 사업도 조직해야지....

일꾼들이 꼬리를 이어잡고서 방문을 넘나든다. 전화기들이 경쟁적으로 보채대고 책상우에 더미로 쌓여진 문건들은 저마끔 결론을 기다린다.

탄부들은 아침시간에 사업을 전개하는 품을 놓고 새 지배인의 능력에 감탄을 표시하곤 했었다. 그런데 오늘은 패기와 정열에 넘치면서도 인자하던 모습대신 침울하면서도 신경질적인 표정을 지은 지배인이 기계적으로 일을 보고있었다. 사업총화와 조직에서도 실수가 빈번했다. 1갱실적을 6갱실적으로 불러주는가 하면 목장장에게 굴진 공정소리를 하여 얼굴을 붉히게 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고 사람들이 고개를 기웃거렸다.

창수자신도 마음이 무겁고 좀처럼 사업의욕이 나지 않았다. 머리속엔 생각이 마구 혼탕되어 갈래를 종잡을수가 없었다.

오전 10시쯤되어 부지배인이 《추가전력신청서》를 내밀어서야 창수는 비로소 오늘의 정신적 혼잡이 어디서 오는가를 깨달았다.

어제일이였다.

인숙과 헤어져서 행정청사로 향하던 창수는 정철의 집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어쩐지 그 집 대문을 가버이 열수가 없었다. 방금전에 인숙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는 정철에게 품었던 산같은 기대를 한순간에 허물어버리는것과 함께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였던것이다.

어쩌면 다른 사람도 아닌 정철이가 지성인답지 않은 도피행위를 할수 있단 말인가. 도피?... 아니, 이진 배신이다. 과학적량심에 대한 배신이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대학졸업증을 출세와 명예의 지참품처럼 여기면서 자기 전공분야가 아닌, 개인의 이해관계가 맞는 직업이나 직무를 찾는데 도용하고있다.

창수는 정철이가 그런 부류의 한사람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서늘해왔다.

(뭘, 로보과장? 아니, 일군의 초보적인 자격도 없는 놈이야.)

이런 심리상태에서 정철이나 그의 어머니를 만나면 선한 웃음을 짓기 어려울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다고 그냥 지나쳐버릴수 있는 걸음도 아니였다.

(다른 생각 말고 오늘은 누이를 기쁘게 해주자.)

그는 대문앞에서 우정 웃음을 싱긋 지어보고서 절절한 목청을 올렸다.

《누님 있습니까?》

《어유, 기다리던 적은이가 이제야 옵니다레. 나 여기 있어요.》

생각밖에 한옥은 돼지우리쪽에 있었다. 방금 돼지물을 주었는지 그의 손에 바깥쓰가 들려있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더 젊어지십시오.》

《고마워요.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보고싶던 적은이를 이렇게 만나보게 되었으니...》

한옥은 창수의 손을 잡으며 감격해하였다. 창수의 가슴도 뭉클해왔다.

《결에 있으면서도 일이 바쁘다나니 못 찾아뵈었습니다. 헌데 정철이는 어데 갔습니까?》

《적은이를 찾아온다며 나갔는데... 길을 어진게 군요.》

창수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돼지우리안을 들여다보았다. 척 보기에다 백키로는 실히 나감직한 놈이 걸차게 먹어대고있었다.

《허, 누님의 돼지먹이는 솜씨는 여전하군요. 이거면 정철이 장가보낼 밑천은 걱정 없겠습니까.》

《거 새끼돼지를 안아올 때부터 그 생각을 했는데 안되겠어요. 엇그제 정철이가 부탁하더군요. 탄광에 필요되는 전기를 더 받아와야 하겠는데 저 돼지를 좀 쓰자구요. 좀 아칩기는 하지만 탄광을 위해 쓰겠다는데... 승낙했지요. 원래 제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소. 탄광일을 위해서는 무엇이냐 아끼는것이 없었으니까요.》

창수는 머쓱해졌다. 석탄생산을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사람을 너무 고깝게 생각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참, 내 기억에는 정철이가 대학에서 채굴기계를 전공한것 같은데 어떻게 자재일군이 되었습니까?》

창수는 지나가는 소리처럼 물었다.

《일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 애가 대학을 졸업하고서 미배치로 있을 때인데 탄광에 동발이 보장되지 않아서 생산을 제대로 내지 못했지요. 그 전에는 탄광에서 립산동발에 많이 의존했으니까요. 이럴 때 우리 정철이가 나섰지요. 완비된 조건만 기다리는것은 우리 탄부들의 투쟁기풍이라고 말할수 없다 하면서 제대군인들과 함께 립산에 올라 후방사업도 하면서 몸을 들이대어 함께 일을 해서 끝내 탄광에 필요한 동발을 해결해가지고 내려왔지요.

우리 정철이에겐 즉흥적이면서도 정열적인 기질

이 있는데 아마 이것이 탄광일꾼들의 눈에 들었나 봐요. 업무부지배인은 정철에게 자재일꾼으로서의 능력이 더 있다면서 우에 제기까지 해서 그 애를 자재부원자리에 배치했어요. 내 처음엔 좀 서운한 점도 있었지만 그 애가 탄광을 위하여 아글타글하고 또 사람들의 칭찬속에서 사는것을 보면 자부심을 느끼곤 해요.》

창수는 한옥의 가슴속에 간직되어있는 자식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느끼면서 더 말을 못했다.

...정철의 집을 나서면서 창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눈을 감으면서 정철을 부탁한 그의 아버지나 애오라지 아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가는 한옥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정철의 문제를 무난히 넘길수 있지 않을까? 또 정철이로 말하면 의도적인 전공태만이 아니니만치 탄광에 바쳐진 그의 노력이야 높이 사주어야 하지 않는가. 뽕프개조는 다른 유능한 기술자를 붙이든가 아니면 채굴기계연구소에 의뢰해서 완성할수도 있는것이다. 이것이 온인들에 대한 인간적인 의리를 지키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창수는 그날 저녁에 이 문제를 무난히 넘길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사업총화를 끝내고 판매과장이 내민 다음날 석탄판매계획을 보던 창수는 눈을 치뜨면서 물었다.

《추가전력용석탄 한차라는건 뭐요?》

《예?... 추가전력용석탄입니다.》

《석탄 한차가 추가전력을 대신하오?》

판매과장은 그제서야 알만하다는듯 병긋이 미소했다.

《손에 뿔 좀 들려주는게 있어야 일도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하도 정철동무니까 그 정도이지...》

서늘해진 창수의 눈길이 과장에게 날아갔다. 히죽거리던 판매과장이 흠칫해서 목을 움츠렸다. 창수는 억이 막혔다. 과연 정철의 그 톡톡치 않은 수완이란것이 이런 놀음을 두고 말하는것이였는가.

가슴아픈것은 일부 일꾼들속에서 이런 사업용이란 명목의 행위를 범상스레 대한다는 것이였다. 묵과할수 없는 현상이였다. 창수는 원주뿔을 들어 그 란을 뺏 그어버렸다.

《계획분외의 석탄은 한그람도 뉘수가 없소.》

과장이 놀라서 지배인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을 느끼려니 창수의 가슴속에선 그 어떤 상실감같은 것이 배회한다. 흘러온 세월과 함께 간직되였던 소중한것이 모두 사라져버리는것 같은 허전한 마음... 그렇다. 자기에게서 인간적인 진정한 의리가 결여되어간다는 심중의 통탄이였다....

바로 《추가전력신청서》를 마주한 지금시각에도 창수는 그런 감정으로 하여 괴로왔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담배를 붙여물었다.

부지배인은 한밤새 생기를 잃은듯 한 지배인의 홀쭉해진 얼굴을 의아히 들여다보며 머리를 기웃거렸다. 창수가 담배를 비벼끄고서 책상우에 두손을 포개며 올려놓았다. 그 손밑에서 《추가전력신청서》라는 문구가 자기를 뵈히 올려다보고있었다. 불시에 이 알팍한 종이장밑에 자기의 량심이 포개여져있다는 생각이 미쳐왔다. 순간 공포에 가까운 전율이 온몸에 줄달음쳤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용지를 한옆으로 밀어놓았다.

그는 자기를 바라보는 부지배인에게 말을 건넸다.

《옛날에 어떤 공상가가 훌륭한 착상을 했대요. 무엇이냐 하니 물을 아래로 펴구어 수차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로 물을 퍼올려서 다시 전기를 생산하는, 그래서 끝없이 전기를 만드는 기계지요. 허, 노벨상은 문제없을 기발한 착상이지요.》

부지배인이 씩씩하게 웃었다.

《아마 노벨상이 제정되기 전에 그런 착상을 했겠지요.》

《물론이겠지요. 내 소린 무언가. ... 나를 비롯한 일부 일꾼들이 그런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한다는것입니다. 발전소에 보낼 석탄을 생산하겠으니 전기를 더 달라, 그런 석탄을 아무리 많이 캐낸들 나라에 주는 리익이 어느만큼 되겠습니까.》

창수는 덩덤한 자세에서 아무 말이 없는 부지배인을 여겨보다가 창가로 다가가서 문을 열어제끼었다. 시원한 공기가 방안에 서리어돌던 침침하고 무거운 기운을 밀어내면서 쓸어들었다. 마주보는 앞산에서 전복기가 요란한 소리를 지르면서 탄차를 휘둘러었으니 그속에 담겨져있던 버럭돌이와르르 쏟아져내렸다. 창수는 자기의 가슴속에서도 무엇인가가 거침없이 쏟아져내리는것을 느끼었다. 무엇인가? 버럭인가? 탄이였는가?...

한동안 그 자세로 창밖을 내다보던 창수가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이 모자란단 소리는 많이 들어왔는데 애국심이 모자란다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더군요. 왜?... 애국심이란 눈으로 볼수도 없고 무게를 달수도 없으니까요. 단 한가지, 량심만이 애국의 무게를 가늠할수 있습니다. 제 어제 밤 량심이란 저울추에 이 지배인이란 인간의 애국심을 달아보았더니... 많이 비더란 말입니다. 정말 옹근뚱이 아니였습니다.》

부지배인도 생각되는바가 있는지 책상우에 눈길을 떨군채 말이 없다가 자기도 담배를 꺼내 물었다.

《제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이야기해주시요.》

《아닙니다. 지배인동지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책되는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저는 물론이고 업무일군들도 각성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전력을 받는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야 꺼야지요. 지배인동지가 포치한 첫 사업인데…》

《추가전력을 받아야만 침수갱복구를 내밀수 있다는 소리인데… 참, 거 자재부원 유정철동무 말입니다. 대학시절에 뿔뜨개조안을 연구했다던데 그에게 다시 뿔뜨개조를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부지배인이 불맞은 황소처럼 펄쩍 뛰었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그는 탄광 자재인수의 절반을 맡고있습니다.》

창수의 미간이 좁아졌다. 그의 눈가에 안타까움이 비끼었다.

《부지배인동무, 그가 맡고있는 뿔이란게 대체 무엇입니까? 국가생산물을 가지고 제 낮내기를 해서 필요한것을 끌어들이는 거간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대 나라에서 품들여 키운 대학졸업생의 급세가 그 정도밖에 안된단 말입니까?》

지배인의 격한 음성에서 어안이 병병해있던 부지배인이 눈길을 떨구었다.

그를 바라보던 창수가 진정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부지배인동무, 현시기 우리 생산일군들부터가 자신에게 차례지는 뿔보다 국가와 사회에 바치는 실지 뿔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강국건설을 앞당길수가 있습니다.… 그만합시다. 내가 너무했으면 리해해주시요. 그리고 오후 첫 시간에 생산협의회를 조직해주시요.》

그의 마지막말은 비틀어짜는듯 한, 어찌보면 비장감같은것이 숨배여있었다. 부지배인은 지배인이 그 어떤 중대하고도 힘든 결심을 하였음을 어렵듯이 짐작하면서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습니다.》

부지배인을 내려고난 창수는 전화를 들어 교환을 찾았다.

《지금 당비서동지가 방에 계시요?… 그렇다. 아니, 내가 찾아가겠소.》

4

협의회는 늦게야 시작되었다. 분명히 침수갱 복구준비를 위한 중간총화일것이라고 지레짐작

하며 머리속에 수관을 부지런히 굴리던 참가자들은 술진 눈섭을 내리드리운채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지배인을 바라보며 일종의 긴장감을 느끼었다.

부지배인이 다 모였음을 알려서야 창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었다.

《오늘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저의 제기에 따라 자재부원 유정철동무의 사업을 정지시키고 공업시험소 뿔뜨연구조를 책임지우기로 토론했었습니다.》

순간 장내는 바람만난 숲처럼 술렁이었다. 그도 그럴것이 탄광 자재사업에서 그가 없으면 안될것처럼 여기는것이 서로의 공인된 생각이였고 또 인차 로보과장으로 될것이라는 소문이 짜했던 정철인지라 그럴만도 하였다. 부지배인이 의자를 제치며 창수를 놀랍게 바라보았다.

《지배인동무, 이거야 너무하지 않소?》

경악한 눈길이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창수가 그 눈길을 침착하게 받았다.

《때로는… 열사람에게 안겨야 할 때를 한사람이 받을 때도 있는거요.》

사람들의 눈길이 정철에게 쏟아졌다. 처음엔 지배인의 발언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듯 멍한 자세로 앉아있던 그가 점차 낮색이 꺼매지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런 그를 바라보는 창수의 가슴이 알찌근해왔다. 아무 말도 하고싶은 생각이 없어져 눈길을 내렸다. 이럴 때 당비서가 한 말이 귀전을 울렸다.

《…현시기 우리 책임일군들의 안목과 사업태도 속에 한개 단위의 발전적면모가 있습니다. 우리 일군들의 역할이 강성국가건설의 발전속도를 담보한단 말입니다.》

문득 그의 몸 어디인가에서 세차게 소용돌이치는것이 있었다. 줄아들고 수축되었던 피줄을 따라 세차게 급류하는것이 있었다. 심장을 쿵쿵 울려주며 무엇인가 용솟음쳤다. 창수는 눈길을 들었다. 물먹은 카바이드처럼 자글자글하던 장내가 무엇인가 내뿜는듯 한 아니, 짝 그러안는듯 한 지배인의 눈빛앞에서 숨을 죽였다.

《유정철동무는 자재일군으로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자기 집 재산을 서슴없이 내오면서까지 탄광의 자재보장을 위해 바친 이 동무의 노력은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바입니다. 하지만 그 수고속에 정철동무의 잘못 아니, 과오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수가 있는가? 동무들이 다 알고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철동무는 채굴기계기사자격을 가진 대학졸업생이며 대학시절에 벌써 국가에

막대한 리익을 줄수 있는 새형의 뿔프를 연구한 인재입니다. 바로 후대교육과 인재양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우리 당 교육정책의 산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후 이 동무는 당에서 품을 들여 실력을 쌓아준 전공분야가 아닌, 성과가 눈에 띄는 직업을 택하였습니다. 아마 정철동무가 자신의 의무와 본분을 지켜 끝까지 새형의 뿔프를 성공시켰다면 오늘처럼 안면관계를 리용하여 나라의 전력을 더 받아오자고 뛰여다니는 일이 없었을것입니다. 그래, 나라에 자재일군 유정철이 더 필요합니까, 기계기사 유정철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정철의 얼굴이 편뜻 들리워졌다. 쌍까풀진 그의 눈가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무엇인가 이름하기 어려운 빛이 어려있었다. 황황히 불타는것 같은가 하면 스르르 사그라져가는듯 한… 울분? 타매?… 아니면 가책? 고뇌?… 그는 다시 머리를 떨구었다. 정철의 괴로움과 몸부림이 창수의 심장을 쿵쿵 찌르며 전해왔다. 이어 마음이 쓸쓸해왔다.

그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서 다음말을 이었다.

《우리들도… 정철동무에게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준 우리에게도 파오가 있습니다. 모두 교훈을 찾으시다. 탄광참모부에서는 추가전력신청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침수갱복구를 위한 전력은 어디서 보충하는가? 우리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기술혁신을 적극 벌려서 전력을 절약하며 동발회수률을 높이고 유압식동발에 의한 채굴법도 혁신하여 제품원가기준을 쑥 낮추어야 합니다. 총적으로 석탄채취률을 높이는것과 함께 생산원가를 최대한 낮추어서 국가에 주는 리득을 높여야 합니다. 저는 탄광안의 모든 일군들이 여기에 모를 박고 침수갱복구전투에서 자기의 뚝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로써 창수는 협의회를 끝마쳤다. 회의 뒤끝에 어깨가 축 처진 정철을 보면서 창수는 그를 만나 보아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다.

《정철동무는…》

일단 입은 열었으나 다음말이 궁색해졌다. 만만다면 무슨 말을 할수 있겠는가. 리해조의 설명?…

어쩐지 자신의 처지가 왜소하게 여겨졌다.

《…침수갱도복구의 돌파구가 뿔프연구조에 있다는걸 명심하시오.》

《예…》

풀이 죽은 자세에서 힘겹게 짜내는 정철의 대답을 들으려니 창수의 가슴은 그 무엇에 허비운듯

쓰러여왔다.

…세찬 비살이 어둡비긴 창유리를 짓쳐갈졌다. 그 서슬에 가운데창문이 비풍에 떠박질리여 왈카닥 열리였다. 탁상등만 켜놓은 방에서 쓸쓸해지는 마음을 달래이던 창수가 열려진 창가로 천천히 다가갔다. 이 찰나 번개가 하늘을 쭉 갈랐다. 창백한 빛살이 대지를 휩쓸었다. 짧은 순간의 이 빛이 마당가에 서있는 사람의 형체를 피곳 드러내놓았다. 잠시후 천지를 들었다놓는 우뢰소리와 함께 창수의 가슴도 후두둑 뛰었다. 번개치듯 하는 예감… 창수는 성급한 걸음으로 밖으로 나갔다. 눈에 띄우는 우산을 본능적으로 집어들고 마당에 나선 그는 야외등빛에 어슴푸레 안겨오는 사람형체를 향하여 나직이 불렀다.

《정철아…》

창수의 부름을 외면한듯 그 형체가 행길쪽으로 멀어져간다. 잠시 망두석처럼 서있던 창수는 피득 정신을 차리며 정철의 앞을 막아섰다.

몰아치는 폭풍우, 비풍속에 태질하는 가로수, 마주선 두사람, 끝을 모를상심은 침묵…

창수가 우산을 펼쳐들며 그 침묵을 먼저 깼다.

《아프냐?》

의미가 잘 안겨오지 않는 물음에 정철은 웅대하 없었지만 자기가 던진 이 한마디 말에 창수의 가슴이 찌르르해왔다. 불시에 25년전의 일이 선하게 안겨왔다.

…철썩, 귀뺨을 갈기는 투박한 손, 불을 싸친 창수.

《아프지?》

《소대장동진… 내가 뭘 잘못했다구 칩니까?》

《뭘, 대학에 가지 않고도 영웅이 된다고… 이놈아, 오륙만 놀려서는 큰일을 못해. 배워야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단 말이야!》…

그때의 아픔이 되살아오른듯 창수는 손을 들어 뺨을 어루만졌다. 하다가 그 손을 정철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

《정철아, 이 시각 웬일인지 너의 아버지가 떨어지는 락반을 한몸으로 막아 나를 구원하고 숨을 거두면서 하던 말이 생각나는구나. 〈창수, 용서하게. 일찍 부모를 여의고서 구실 못하는 나를 친형처럼 따르 자네에게 때까지 안겼구만… 소원이네. 추가시험에선 대학에 꼭 붙어달라구. 아는 사람 하나가 모르는 사람 천을 대신한다지.… 우리 정철이가 크거들랑 이 애비의 마음을 꼭 전해주게.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는 사람이 되여야 한다구… 정철이를 부탁하네.〉》

말을 하느라니 눈곱이 후더워올랐다. 그때까

지도 정철은 말 한마디 없었다. 그저 오한이 오는지 자꾸만 몸을 떨뿐이었다.

창수가 다른 말 않고 그의 손에 우산을 들려주었다.

《...집에 가보거라. 어머니가 기다릴게다.》 하고는 청사를 향하여 걸음을 옮기었다. 그새 바람은 좀 멎은듯 했지만 쏟아지는 비발은 여전했다.

5

오후 첫시간에 인숙이가 지배인방에 들어섰다. 전엔 리지적이고도 침착해만 보이던 크고 쌍까풀진 그의 눈가에 당혹감 같은것이 실려여있었다.

《지배인동지를 잠시나마 오해했던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창수의 눈귀에 주름살이 건너가며 사람좋은 미소가 비끼었다.

《당비서동지를 만나보았소?》

《에... 그런데... 믿음은 정말 고마운데... 제가 로보과장직무를 감당해낼것 같지 못합니다.》

창수는 두손을 모아쥐고서 다소곳이 서있는 인숙을 눈여겨보았다.

그는 이 녀성의 모습에서 한개 탄광 탄부들의 로보물자공급이라는 간단치 않은 업무를 책임진 일군다운 틀을 찾아보고싶었다. 호리한 몸매에 여린 두어깨, 가름한 얼굴... 한 가정의 알뜰한 주부로서의 체모만이 다분히 풍기는 모습이였다. 그런 인숙을 창수는 로보과장으로 추천했다. 어째서?

그는 인숙에게 자리를 가리켜 앉히고는 심중한 어조로 말했다.

《인숙동무, 당의 믿음은 주관이나 속단이란 걸 모르오. 하기에 그 믿음앞에서 걱정은 앞세울 수 있으나 무한정 허심하고 헌신해야 하는거지. 당에서는 맡겨진 일감앞에서 국가에 주는 리익의 폭부터 먼저 생각하는 동무의 그 애국심을 높이 사서 이런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하오. 동무나 나나 우리 일군들에게 부여하는 당의 높은 신임을 심장에 간직하고서 일을 잘 해나갑시다. 참...》

그는 서랍에서 희웁스름한 액체가 담긴 유리병을 꺼내면서 말을 이었다.

《이건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에서 새로 개발한 돼지먹이첨가제요. 이걸 쓰면 알곡먹이를 50프로나 절약한다오. 내 생각같아서는 말이요, 식료가공반을 목장에 접근시켜서 식료가공부산물들을 이런 첨가제로 발효시켜 집집승에게 먹이면 알곡먹이를 전혀 쓰지 않고 고기와 알류를 생산

해서 탄부들에게 정상공급할수 있으리라 생각하오. 그리고 영등과 봉창지구에 부엽발과 풀발면적을 늘이고 양어장도 크게 늘여서... 허, 욕심이 하늘같은데... 기본은 무언가? 국가의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도 탄부들의 후방공급사업을 한계단 높이자는거요. 어땡소?》

인숙이가 손으로 입을 가리우면서 웃음을 참지 못했다.

《아니, 왜 웃소?》

《요전날 지배인동지가 뽕프장에 와서 나를 만나던 때의 일이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그날 라이타가 책상우에 그냥 놓여있기에 돌려주자고 지배인동지를 찾아 나섰는데 두주먹을 부르쥐고 있는 힘껏 달렸어도 따라잡을수가 있어야지요. 걸음이 얼마나 빠르신지... 끝내 중도에서 주저앉고말았습니다. 제가 지배인동지의 그 욕심스러운 걸음을 따라서겠는지 걱정입니다.》 하며 인숙은 주머니에서 라이타를 꺼내놓았다.

《허허... 그런 일도 있었는가?》

창수는 라이타를 들고서 웃어넘기다가 사무실 한쪽벽에 있는 책장으로 다가가서는 여러권의 책을 꺼내놓았다.

《동무 사업에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서 구해온 책들이요. 참고해서 보오. 그리고 내 인생체험인데 조국을 위한 자신의 땀땀한 땀을 안고 당이 가리켜주는 길로만 가는 사람은 짙어진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힘든줄을 모르고 걸음도 갈수록 빨라진다는거요.》

인숙은 생각되는것이 많은듯 심중한 안색으로 한동안 말이 없다가 눈길을 들었다.

《지배인동지, 당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겠습니다. 저, 그런데 뽕프개조는... 어쩐지...》

《정철이가 미덥지 않은게구만... 아니, 난 믿소. 정철인 시대앞에 지닌 자신의 땀을 꼭 찾을거요.》

인숙이 나간 다음 창수는 잠간 생각에 잠겨있다가 송수화기를 들었다.

《공업시험소장을 찾소... 아, 소장동무요? 지배인입니다. 뽕프연구조의 일이 잘되어갑니까?》

《잘되어가는게 다 뵈니까. 거 연구조장이란 사람이 뭐라고 하는줄 압니까? 실험일지들을 밀어제끼면서 못한다는겁니다. 내 참...》

《정철이가 지금 어디에 있소?》

《뭘, 도에 불일이 있다는지... 어제 휴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창수는 분기같은것을 느끼면서 거칠게 말했다.

《동문 뭐요? 일군이 뭘소? 왜 제사람 통제도 바로 못하나 말이요?》

《아, 그거야...》

창수는 변명같은 소리를 더 듣고싶지 않아 송수 화기를 놓아버렸다. 그리고서 생각해보니 소장에게는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는가...

창수는 쏘파에 주저앉았다. 심중에는 방금전에 차오르던 분기대신 피로움이 서려올랐다. 어쩐지 반발적인 정철의 행동이 야속하게 느껴졌다. (정철이가 그렇게도 이해가 부족한가?)

문득 며칠전에 초급당비서가 해주었던 말이 귀전을 울렸다.

《인간에 대한 이해는 먼저 자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남에 대한 이해를 옳바로 할수가 없으며 자기가 갈길도 바로잡을수가 없습니다.》

창수는 정철이가 계속 물리해의 길을 가게 방임할수가 없었다. 그 길이 나중에는 천길벼랑턱으로 이어진다면... 그때는 늦는것이다.

창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도소재지를 통과하는 열차가 오후시간에 떠난다는 생각이 그제야 미처들었던것이다.

빨리 역으로... 정철이와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하자. 그래도 안되면 맥을 쥐고 끌어서라도 바른길에 세워주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정철이를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다.

이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뜻밖에도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한옥이었다. 그의 얼굴을 대하는 순간 창수는 당황해졌다.

한옥의 눈가에 풍기는 싸늘한 기운을 느꼈던것이다. 아니, 이는 창수의 느낌뿐... 어째선지 그는 한옥을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금 이 시각 한옥의 앞에 서니 창수는 정철을 위한다는 그 모든것이 허울이나 자기 위안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의혹이 머리를 쳐들었다. 유일하게 이 녀인한테는, 일찌기 남편을 잃고 기쁨과 행복, 희망을 아들에게 걸고 그를 사회앞에 땃땃이 내세우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친 그 모성애앞에서만은 죄의식이 갈마들었다. 창수는 쏘파에 다시 주저앉으며 불부는 어조로 말했다.

《흠, 욕하러 오셨겠지요?... 하십시오. 의리가 없는 놈이라고 뺨을 갈겨도 할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상밖에도 한옥의 입에서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무슨 소릴... 적은인 우리 정철이에게 나라

를 위한 자기의 땃땃한 땀을 찾아주었으니 가장 큰 의리를 지켜주었어요.》

창수는 그제야 머리를 들고 한옥을 바라보았다.

마주하면 온화한 감정이 깃들게 하는 그의 표정은 예나 다름이 없었다. 있다면 항시 후더운 정이 찰랑이는듯 하던 그의 눈가에 자책감같은것이 어려있는것이다. 여겨보니 며칠새 그가 수척해진것이 눈에 알렸다. 창수의 가슴이 얼얼해왔다.

한옥은 의자를 끄당겨 앉으면서 조용히 말을 이었다.

《며칠밤 피로움이 컸어요. 제 사랑은 아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다 훑아보이는... 눈먼 사랑이었어요. 고마워요. 적은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 정철이를 바른길로 이끌어주었어요.》

창수는 가슴이 몽클해움을 느끼었다.

《이해하여주니 정말 고맙습니다. 헌데 정철인... 날 고깝게 생각할겁니다.》

《아니예요. 그 애도 이번 일을 통하여 나라앞에 지닌 자기의 땀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뽕프개조때문에 오늘 채굴기계연구소에 간거구...》

창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철이가 연구소에?... 그럼 못하겠다고 한건?...》

《못하다니요? 며칠밤 실험일지를 파고들더니 자기가 이전에 연구했던 방식으로는 안된다면서 영식기사의 실험결과를 참고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한다더군요.》

《그럼... 헛, 허허... 하긴 정철인 달리 살수 없는 사람이지요.》

한옥이도 즐거운 기분에서 빙글거리는 창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다가 들고온 보침을 그에게 내밀었다.

《삼주엿이에요. 잊지 말고 장복하세요.》

창수는 자신을 위해 산에서 산으로 이어졌을 한옥의 정성이 가슴에 어려와서 뜨거운것을 삼키었다.

《누이의 덕분에 이젠 위병이 다 나았는데...》

《병이란 옷에 떨어진 기름방울같아서 쉬이 없어지지 않아요. 다시 도지지 않으려면 항상 관심을 해야 해요. 그럼 난 가보겠어요.》

창수는 후더운 마음으로 한옥의 다심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방문을 나서면서 한옥은 창수에게 정겨운 미소를 보내었다.

세부형상과 회상수법의 효과적 리용

— 단편소설 《아이적 목소리》를 읽고 —

김 순 립

생활의 본질이 체현되어있는 의의있는 인간문제, 시대가 요구하는 절박한 사회적문제를 진실하게 제기하고 해명하는것은 우리 소설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단편소설 《아이적 목소리》[김혜인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101(2012)년 1호]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물리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려는 깊이있는 작가적탐구와 노력, 생활에 대한 작가의 개성적인 발견이 엿보이는 특색있는 작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에 반영되는 작가의 미학적리상은 읽는 사람모두의 공감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고결하고 숭고한것으로 되어야 하며 우리 시대의 미학적요구에 만족을 줄만큼 높은 경지에 올라서야 한다.》

작가가 현실에서 무엇을 아름다운것으로 보며 그것을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그려내는가 하는 문제는 작품의 형상수준을 결정하는 근본담보로 된다.

단편소설 《아이적 목소리》는 인생의 시작에나 끝에나 언제나 때묻지 않은 어릴적 마음으로, 거짓을 모르는 아이적 목소리로 당과 조국앞에 솔직하고 깨끗한 량심을 지녀야 한다는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소설은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려는 사색적인 탐구, 생경한 논리적추구가 아니라 정서적인 화폭으로 생활을 진실하게, 줍이 있게 그려낸 생동한 언어형상, 철학적으로 무게있는 대사형상 등 좋은 측면을 많이 가지고있다.

특히 회상수법의 적절한 배합과 활용, 의의있는 세부형상으로 작품이 제기한 기본문제를 독특한 맛이 있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에서는 종자의 요구에 맞게 도인민위원회 국장 김학철의 추억의 세계를 여러 계기에 걸쳐 인상깊게 펼쳐보이면서 제기한 인간문제를 예술적으로 해명하고있다.

같은 수법이라고 해도 작가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진다. 회상수법은

형상의 요구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여 그 맛을 돋우고 살린 여기에 작품의 예술적성과와 감화력이 있다.

작품은 5점을 맞은 시험지를 내놓으면서 이 5점은 잘못되었다고 얼굴을 붉히던 아들 창남이의 어릴적 모습을 애뜻이 추억하는 김학철의 회억의 세계를 펼쳐보이는것으로부터 시작하고있다.

그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지닌 아들애의 어릴적 모습이 자꾸만 흥벽을 두드리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이제는 현현장부가 되어 굴착기소대장이 된 아들이 일하는 탄광으로 가는 학철의 심중은 자못 착잡하기 그지없었다.

작품은 이렇게 학철의 가슴속에 어려오는 첫 회상의 세계를 펼쳐보이면서 잘못된 5점시험지를 놓고 울먹이던 아들 창남이의 아이적 목소리를 작품흐름의 기본고리마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반복함으로써 주인공 학철의 심리와 성격발전을 매우 감동적으로 형상하고있다.

이 작품에서 모든 회상수법은 주인공 학철의 사상정신적성장과 당앞에 지닌 일군의 참된 량심과 의리를 검증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고있다.

작품에서 강조하고있는바와 같이 자기의 창조물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는 심정으로 해낼것을 요구하는 당의 의지에는 일군들스스로가 량심을 가지고 보증해야 한다는 뜻이 어려있는것이다. 량심의 보증은 오로지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만 할수 있는것이다.

하기에 주인공 학철은 당을 대함에 있어서 《당앞에 언제나 때묻지 않은 어릴적 마음으로, 거짓을 모르는 아이적 목소리로 모든걸 다 더놓고 그 손을 놓치지 말고 꼭 잡고가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한다.

여기에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삶의 철학이 있으며 우리가 지녀야 할 참다운 인생관은 어떤것인가 하는 시대의 물음에 대답을 주는 인생철리가 있다.

작품은 이러한 인생관을 주인공의 성격성장과정을 통하여, 아들의 5점시험지로부터 전개되는 회상과 뜻깊은 생활세부들의 련속으로 생활화폭으로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주인공 학철은 자신이 기사장으로 있을 당시 장마가 저서 탄광의 계획수행이 지장을 받게 되었을 때 병원에 입원해있던 김성호지배인의 지시대로 명수동골짜기에 박토를 처리하도록 한 자신의 실책을 가슴아프게 회상한다.

지배인의 지시라고는 하지만 시추를 하지 않고 그곳에 박토를 처리하도록 한것은 자신의 잘못이다. 하지만 그때의 정황으로서는 어쩔수 없었다. 이제는 오랜 세월이 흘렀다. 김성호지배인은 세상을 떠났고 그때일을 기억하는 사람도, 꼬집어 말하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량심의 가책만은 어쩔수 없지 않는가....

여기에 주인공 학철이 겪는 심각한 극적체험이 있는것이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학철의 극적체험을 생활적으로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명수동골짜기에 마구 부려놓은 박토를 처리하다가 굴착기소대장인 아들 창남이 중상을 당한다. 결국 그런 사고가 나도록 한것도, 아들을 중태에 빠뜨린것도 아버지인 학철이 자신인것이다.

여기에서 오래전에 이 5점은 잘못되었어요, 난 시험을 잘 치지 못했어요 하며 얼굴을 붉히며 울먹이던 창남의 어릴적 목소리가 학철의 심중의 세계속에 되새겨진다.

이렇게 반복되는 회상은 학철의 성격발전에 큰 자극을 주었다. 그러한것으로 하여 작품의 마감에서 아들 창남이가 하얀 시험지를 흔들며 애되고 순진한 목소리로 5점을 맞았다고 웨치며 달려오는 모습을 그린 장면은 참으로 많은 형상적여운을 준다.

창작에서 하나의 세부를 반복하여 쓰는 수법은 어디까지나 주인공의 성격발전에 의의있게 이바지하는것으로서 작품의 형상생리에 맞아야 한다. 그리고 회상의 계기가 작품흐름에 적절한것이어야 하며 반복감이 나지 않게 되어야 한다. 회상수법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주인공의 성격형상과는 유기적인 련관이 없는 지루한 회상세계를 펼쳐놓는다면 그것은 형상생리와 맞지 않는 군더더기로 오히려 지루감을 줄뿐이다.

특히 단편소설은 그 미학적특성으로 하여 오직 하나의 주제사상적과제를 해명하는데로 모든 형상요소들이 줄기차게 맞물려나가야 하는것만큼 세부의 반복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 소설에서 5점시험지세부에 대한 반복회상은 매우 적절한 계기에서 요긴하게 쓰인것으로 하여 주인공 학철의 심리적굴곡, 자책의 세계를 비교적 설득력있는 형상으로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는 또한 5점시험지세부로부터 산생되는

회상을 다른 형상적측면에서 제시한것이 매우 효과적인 형상처리라고 본다.

작품에는 5점시험지세부와는 직접적련관이 없는 학철의 병사시절에 대한 회상이 있다. ...학철이 전술훈련판정장에서 영구화점이 있는 투척지점에 이르러 숨돌릴새없이 수류탄을 던졌으나 실패하게 되자 몸으로 적화구를 막았다. 그 일로 하여 표창을 받게 되자 학철은 분대장에게 자기는 표창이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만일 실전이라면 두개의 수류탄으로 까지 못한 적화점을 몸으로 막는다는것은 불가능할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훈련시에 수류탄던지기 약해 자체훈련까지 했지만 힘들다고 품들여 하지 않았다는것이였다. 이때 분대장은 학철을 와락 그러안고 병사는 자기 량심을 지키는데서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진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런 인간이 가장 강한 인간이라고 한다.

작가는 이 회상에서 작품의 종자가 안고있는 당에 대한 전사의 량심과 의리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더욱 깊이있는 형상으로 강조하고있다.

회상수법의 도입과 활용, 기본문제를 안고있는 생활세부에 대한 반복되는 형상, 이것은 작품이 제기하고있는 우리 시대 인간들은 어떤 량심과 의리를 지니고 당을 받들고 일해나가야 하는가 하는 철학적물음에 옳바른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단편소설 《아이적 목소리》는 비교적 긴 작품이다.

단편소설이 길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것은 무엇인가 형상의 빈 자리가 있다는것을 말한다.

이러한 문제에서 이 작품은 일정하게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도 있다.

작품은 우리 일군들의 량심문제, 당과 조국을 위해서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학철의 성격발전을 통하여 해명하려고 지향하였다.

그런데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제와는 련관이 없는 부차적인 문제들이 작품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있다.

레하면 지배인 심상훈의 딸과 창남의 사랑선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독자들의 시점을 분산시키고 조잡스러움마저 느끼게 한다. 또한 창남이의 소꿉시절 동무이며 같은 굴착기소대장인 한정주의 형상적묘도 뚜렷하지 못하다.

그리고 심상훈지배인이 학철에게 명수동골짜기박토문제는 더 생각지 말라고, 탄광사람들은 탄광개발때부터 성실한 땀을 바쳐온 국장의 수고를 잊지 않고있다고 하는 장면은 량심과 인정을 대치시킨것 같은 인상을 주고있는데 이에 대해서 심중

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단편소설의 생리에 맞게 부차적인것은 대담하게 생략해버렸더라면 단편소설다운 맛을 살리면서도 이야기를 여운있게 맺을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와 같은 부족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단편소설 《아이적 목소리》는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문제인 일군들의 량심과 의리문제를 제기하고 생활적인 세부로부터 펼쳐지는 회상의 수법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철학적으로 무게있는 예술적해명을 준것으로 하여 우리 주체소설문단의 화원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식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앞으로도 여러가지 형상수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삶과 투쟁의 진리를 깨우쳐주고 참다운 인생관을 주는 철학적으로 무게있고 예술적으로 훌륭한 소설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해내야 한다.

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김정일**애국주의의 열풍, 참된 애국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부강조국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투쟁을 힘차게 고무추동하여야 할 것이다.

상 식

생태원림도시건설

지금 도시의 생태원림도시건설은 현대 도시발전의 중요한 추세로 되고있다.

생태원림도시의 건설은 두가지 측면 즉 도시의 생태화와 원림화로 진행된다. 여기서 도시의 생태화가 기본이고 도시의 원림화는 대상이며 원림화건설의 최종목표는 도시의 생태화를 실현하는것이다. 량자는 서로 의존하고 련관되어있으며 공동으로 생태원림도시의 통일체를 이룬다.

생태도시는 하나의 리상적인 도시모형으로서 여기에서는 기술과 자연의 충분한 결합, 사람의 창조력과 생산력의 최대한의 발휘,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의 최대한의 보호, 물질과 에네르기, 정보의 효율적인 리용, 생태의 좋은 순환이 이루어진다.

생태원림도시의 구체적지표를 보면 한사람당 평균 공공록지면적은 9m², 도시록화피복률은 40%, 록시률(푸르게 보이는 비율)은 35%이다.

생태원림도시건설계획은 목표를 높은 수준에서 정하고 전망적으로 세워야 한다.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해당 지방의 풍습과 특색을 살리며 과학성과 예술성을 결합하여 세워야 한다.

생태원림도시건설에서 기본은 도시를 수림화, 원림화하는것이다. 도시록화계획을 잘 세우고 여러가지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지피식물, 화초를 많이 심어 도시의 총 록화량을 늘여야 한다.

상 식

음악료법과 건강

현재 음악료법은 과학화되면서 하나의 전문분야로 발전하고있다.

음악료법은 스트레스를 없애고 아픔을 줄이며 정신육체적활동능력을 높일뿐아니라 여러가지 질병의 예방과 치료 및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널리 리용되고있다.

사람의 생활은 거의 규칙적인 룰동으로 이어지며 마음과 몸의 생활룰동은 오전, 오후, 밤의 일정한 흐름속에서 진행되고있다.

음악의 요소인 선률, 룰동, 조화와 음색, 속도, 강약은 사람의 생활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사람은 거의 안정된 룰동과 선률의 조화속에서 생활하며 건강을 유지하고있다. 이 조화가 파괴되면 병으로 된다.

사람은 음악적인 룰동의 영향을 받으며 생활한다고 볼수 있다.

음악은 내부기능조절과 회복, 고통을 줄이는 작용, 잠재우는 작용, 마취효과를 높이고 수술경과를 좋아지게 하는 등 여러가지 생리적작용을 한다. 또한 중추신경계통을 비롯하여 심장호흡계통, 소화기계통에도 영향을 미친다.

음악료법에는 수동적음악료법(자극료법, 감상료법), 능동적음악료법(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하는 방법)이 있다.

음악치료효과를 높이려면 듣는 방법, 부르는 방법, 연주하는 방법가운데서 알맞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옹게 배합하여야 한다.



김 영 길

1

철봉산기상대는 읍거리를 약간 벗어나 야산등성이에 자리잡고있었다.

은회색라크칠을 한 판자들을 톱날처럼 다듬어 빙— 두른 울타리안에는 유난히 푸른 잔디밭이 주단처럼 깔려있었다.

파아란 가을하늘은 아득히 높아졌다.

기발계양대마냥 하늘높이 솟은 장대끝에서 꼬마 비행기의 바람개비가 사르륵—사르륵 돌아가고 있었다.

이따금 고추잠자리가 사뿐히 내려앉곤 하는 정갈한 울타리와 땅우에 비스듬히 꽂아놓은 지면온도계에서 부서지는 아침해빛은 오히려 아늑함과 정적만 불러오는것 같았다.

복적거리리는 읍거리와 마치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두른듯 판세계를 이루고있는 군기상대는 여전히 고요하고 한적했다.

문순보기상관측소장은 관측장으로 나드는 문옆에 의자처럼 뽕죽 나온 바위에 걸터앉았다. 길쭉한 얼굴에 주름살이 곱게 잡힌 문순보는 60나이에 비해 그닥 늙어보이지 않았다. 10년을 하루와 같이 고즈넉한 고요속에 살아온 문순보는 이 별세계에서 생을 조용히 보내고있었다.

도합 직원이 셋뿐인 기상관측소에 복잡한 일이란 제기될것이 없었다.

문순보소장은 3시간에 한번씩 관측자료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도기상대에 보고하는 일외에는 일거리를 만들지 않았다. 문순보는 어디 가서 무엇

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것이 질색이었다. 우선 문순보자신이 줄것이 없었던것이다.

각종 온도계와 기압계따위들밖에 없는 기상대에 내밀것이 있을리 만무했다. 줄것이 없으니 달래지도 않는다는것이 문순보소장의 생활방식이였다.

그런데 얼마전, 정확히 따져보면 달포전 도기상대로 소환되어간 사람의 후임으로 기상전문학교 졸업생 강정구라는 청년이 오면서부터 문순보의 울타리가 실그럭거리기 시작했다.

청년은 오자바람으로 아무리 자그마한 군기상대라도 여기는 10년 뒤떨어졌다면서 관측원처너 은희까지 휘둥해가지고 일판을 벌려놓기 시작했다.

중앙과 도기상대를 쭈서서 그라프식자동온도 측정기와 풍속기들을 받아다가 더 설치한다는것이였다.

문순보도 그것을 마다할수 없었다.

처음에는 강정구네들을 자기 생활의 울타리, 아늑한 울타리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던노릇이 자기도 모르게 그가 한발자국 한발자국 그들이 일으키는 바람에 말려들기 시작했다.

계기들을 새로 설치하는 일이 벌써 퍼그나 진척되어가고있었다. 이제는 세멘트와 모래를 얼마간 얻어오면 될판이였다.

오늘은 손쉽게 할수 있는 강변의 모래부터 한차 실어오기로 했다.

문순보는 그것도 여간한 걱정거리가 아니였다. (모래는 강변에 있다치고 실어오기는 무얼로 실어온단 말인가?...)

문순보소장은 아침나절 그 걱정머리가 다 지

끈거렸다. 지금도 의자에 앉아 어떻게 하면 모래를 한차 실어올것인가고 오만가지 생각을 하고있는 참인데 등뒤에서 강정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장아바이, 빨리 내려와서 전화를 걸어주십시오.》

청년은 창문을 열어잡고 이쪽을 바라보고있었다.

문순보는 별쪼임을 좀 더 하고싶었으나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그리고 경사가 완만한 둔덕길을 따라 천천히 사무실로 내려갔다.

강정구는 전화기옆에 서있고 은희는 오늘따라 손을 대면 베어질듯 날이 선 곤충색작업복을 가뜰스 차려입고 앉아있었다.

문순보는 송수화기를 들면서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갑자기 부탁해서 되겠나— 남에게서 달구지 한대라두 얻기 어찌 그리 쉽겠나.… 교환입니까?— 여기 기상관측손데요. 저— 미안하지만 읍농장관리위원회를 좀 부탁합니다. 예, 예, 기다리지요.》

문순보소장은 교환수처녀가 옆에 있더라도 한듯 송구스런 표정을 짓고 기다리기 시작했다.

여차직하면 전화통을 빼앗기라도 할듯 잔뜩 노력하며 딱 붙어서있던 강정구는 의아스런 눈길을 치르고 물었다.

《아— 소장동지! 달구지는 해서 뭘합니까?》

《아니, 모래를 안 싣겠소?》

문순보 역시 놀라운 소리로 반문했다.

《자동차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차 한대 얻으면 뭘걸 가지구 달구지로 언제 나릅니까?》

순보는 이 청년이 이렇게도 현실을 모르는가싶어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문순보는 언제 짬을 내어 정구에게 기상대의 실정을 잘 이야기해주리라고 속다짐을 했다. 생각에 잠겼던 문순보는 한동안이 지난 후 입을 열었다.

《자동차?— 우리 힘 가지구 자동차를 어떻게 얻는다구 그러나.…》

《배차를 받아야지요. 이것두 다 국가일인데요.》

강정구는 마치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듯 큰소리를 쳤다.

그러는 사이 전화가 련결되는 모양이었다. 문순보소장은 조용하라고 손을 내저었다. 드디어 전화가 걸렸다. 마침 관리위원장이 전화를 받았다.

문순보는 달구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상대방이 알도록 루루이 곱씹어 설명했다.

관리위원장이 좋은 대답을 주었는지 긴장으로

거뭇해졌던 문순보의 안색이 저으기 풀리면서 희뻑해지기 시작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걸겠습니다. 예예, 이거 참 감사합니다.》

문순보는 송수화기를 놓았다. 그리고 이마에 척척히 내뺀 땀을 훔치면서 말했다.

《닷새 후에 보자누만. 상상외로 쉽게 풀렸소. 한때 군인민위원회에서 함께 일한 사람이니까 모른다구는 안하는구만.》

은수문제를 풀었는데 무엇이 못마땅한지 강정구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더니 불판에 올려놓은 차관처럼 풀떡풀떡거리리는것이였다. 고개를 수긏하고 앉아서 한동안 무엇인가 생각던 강정구가 다시 벌떡 일어서더니 마치 회의석상에서처럼 큰소리로 말했다.

《소장동지! 한가지 제기하겠습니다.》

《?…》

《가만히 보니까 소장동지 그제 죽었소 하고 사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그마한 기관에 은희동무하고 저하구 청년이 둘씩이나 있구 소장아바이까지 셋이 합치면 왜 힘이 적다구 그러니까.》

뜻밖에 강정구가 자기 이름까지 거들면서 기관책임자와 맞서는데 당황해난 은희는 눈을 내리깔고 앉았다가 관측기록부를 들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문순보소장은 말이 난김에 품을 놓고 물불을 모르고 덤비는 청년을 깨우쳐주려고 생각했다. 문순보는 청년을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스물이라는 강정구의 나이가 부러웠다. 그러나 문순보는 스물이라는 수학적개념은 이해했지만 그 스물이 문순보가 살아온 지난 시기의 스무해가 아니라 학교와 사회와 가정교육에서 질적변화를 가져온, 인간도 사회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가는 우리시대라는것을 깊이 알지 못했다. 문순보는 느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구— 좀 앉으라구.》

했으나 청년은 장대처럼 꺾끗이 선채로 순보의 말을 들을 차비였다.

순보의 머리속에는 불현듯 지난날 자기의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허허허… 나두 정구같은 때가 있었소.》

사람은 누구에게나 훌륭한 추억이 있는것이다.

문순보는 자기 생활에서의 전성기— 찬란한 과거는 군인민위원회 상업담당 부위원장으로 사업할 때라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때는 실로 힘이 있었다. 무서운것이 없었다.

마음만 먹으면 세상끝에 가서라도 군에 필요한것을 끌어왔었다. 지금도 공지를 가지고 회고하는것은 군자체로 자그마한 세멘트공장을 건설할 때였다. 뜻하지 않던 설비의 오작상으로 조업을 며칠 앞두고 공사가 중지되었다.

파업을 받은 문부위원장은 그바람으로 화물차를 타고 강선으로 향해 달렸다. 다음날 해동갑하여 강판을 싣고 들이닥쳤다.

사람들은 제주머니것을 털어낸대도 그렇게는 빠르지 못할것이라고 하면서 입을 딱 벌렸다.

그때는 적어도 도내에서는 《○○군 문부위원장》하면 그의 활동력을 인정했었다....

나이가 들어 군기상관측소장자리로 옮겨앉은 첫 시기만도 순보는 왕성한 사업욕을 잃지 않았다.

그는 자그마한 기관을 본때있게 꾸려보려고 여러가지 사업을 설계해보았다. 점차 《문부위원장》이라는 타력이 쇠진해지면서 어느 하나도 수나롭게 풀려나가는것이 없었다. 처음엔 그래도 생각은 부글부글 끓어올라 좀 시도도 해보다가 세월이 감에 따라 이 호젓한 곳의 호젓한 주인으로 돼버리었다. 순보는 이 모든것을 기상대라는 기관에는 힘이 없어 안된다는 자작구실로 정당화하며 마음편히 살아왔던것이다. 순보는 자기가 터득한 생활철학을 이 청년에게 이야기해주고싶었다.

《여보게, 정구... 셋의 힘을 합치면 한사람의 힘보다 크다는건 수학적계산이야. 그런데 사회생활을 수자로 할수 있나-》

《?...》

강정구는 울퉁잡은 눈으로 소장의 입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문순보는 제잡담 말을 계속했다.

《사람은 그저 손에 권것이 있어야 한다니까, 허허허.》

《예?-》

머리를 한쪽으로 약간 기울사 한 강정구는 황황 불타는 눈으로 문순보를 마주보는것이였다. 그 눈빛에는 문순보의 설교를 부정하는 강한 주장이 어려있었다.

그러거나말거나 문순보는 말을 계속했다.

《그러니 군에서 우리 기상대같은 기관이야 성명이나 있나. 내밀것이 없을 때는 아예 바라지 않는게 편안해... 그래두 괜찮아. 우린 또 우리 멋대로 살아갈 맛이 있거던...》

한참동안 잠잠히 서서 들을만 하고있던 강정구는 《아니 소장아바이, 그럼 이 세상을 물건이 움직인단 말입니까?》라고 통명스럽게 내쏘았다.

《사람두 원-》

순보가 다시 말을 꺼내려는데 강정구는 벽시계를 피끗 올려다보더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였다.

이어 강정구의 쟁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희동무, 내 자동차사업소에 갔다오겠소.》

대답대신 빗살같은 울타리틈새로 나비가 팔랑거리듯 머리수건이 언뜻거리더니 빨강계 상기된 은희의 얼굴이 나타났다.

문순보는 강정구를 부르려고 했으나 청년은 벌써 구슬듯이 내리막길을 달려 강냉이밭뒤로 사라졌다.

순보는 하는수없이 주저앉아 담배를 붙여물었다.

한참후 은희가 관측기록부를 들고 소리없이 들어왔다. 그길로 도기상대를 찾은 은희는 손바닥을 송수화기에 오그려대고 될수록 낮은 소리로 보고하기 시작했다. 전화를 끝낸 은희는 제자리에 가앉으면서 소장을 흘끔 쳐다보았다.

고등중학교(당시)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뗀 은희는 매우 발랄한 처녀였다. 은희는 문순보의 기색을 살짝 훑쳐보면서 말했다.

《소장아바이, 저대신 좀 봐주실래요?》

순보는 은희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물었다.

《어딜 갈려구?-》

《호호호... 가진 어데 가겠어요. 모래 실으려 가려고 그러지요 뭐. 강에서 미역두 감구요, 호호호...》

《요새 차 한대 얻어쓰기가 하늘의 별따기야. 하여튼 차만 얻으면 그러려무나. 아무렴, 바늘 가는데 실이야 따라가기마련이지.》

순보는 자기 눈앞에서 두 젊은이가 마음이 맞아 돌아가는것이 기특하게 여겨졌다.

《아이, 아바이두, 그런게 아니예요. 난 그런건 몰라요.》

은희는 귀뿌리까지 활짝 붉어져가지고 발을 동동 굴렀다.

《허허허...》

문순보는 마음이 유해지여 즐겁게 웃었다.

은희가 어쩔바를 몰라 벽쪽을 향해 돌아앉자 이야기는 잠시 동강났다. 사무실은 다시금 조용해졌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책상위의 전화기도 세상사람중 누가 들기 전에는 부뚜막에 늘어붙어 잠자는 고양이처럼 곱두룩 웅크리고있을뿐이였다. 고요는 좋이 한시간이나 지속되였다.

똑딱거리는 벽시계의 단조로운 음향만이 이 집

안의 고요를 깨뜨리는듯 꾸준히 울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갑자기 전화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문순보는 아침부터 전화기가 울리는 바람에 희한한 생각이 들어 《어디서 우리한테 전화가 다 오나?》라고 중얼거리면서 집어들었다.

《기상관측소입니다. 예?— 자동차사업소요?— 예! 예, 오?— 정구동무요. 아니, 그게 정말이요?... 에— 숨이 다 나가누만, 알겠소.》

전화를 받는 문순보의 눈꼬리와 입귀에 잔주름이 잡히며 느슨한 미소가 피어나더니 점차 온 얼굴이 환해졌다.

순보는 은희에게로 고개를 돌리면서 놀라운 소리로 말했다.

《애, 정구동무가 자동차를 해결했구나. 삼을 가지구 빨리 강변으로 나가보아라.》

《그것 보시라요!》

은희는 환성을 지르며 발짝 일어섰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순보는 자동차가 어떻게 그처럼 쉽게 풀렸는지 그 내막사를 알고싶었다. 빈주먹 하나 들고간 사람이 무슨 수가 있어서 차한대를 떡먹듯 쉽게 얻을수 있단 말인가?...

문순보는 머리수건을 꼭 졸라매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은희를 불러세웠다.

《애, 그 사람 차사업소에 누가 있니?》

《제가 그런걸 어떻게 다 알아요. 필요하다니까 쫓겠지요 뭐.》

은희는 누가 붙잡기라도 하려는듯 바빠 사라졌다.

문순보는 머리를 가로 흔들면서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누가 있을가?... 누가?...》

2

청명한 가을날씨가 계속되었다. 하늘잡자리들이 무리지어 울타리안을 등등 떠다녔다. 바야흐로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한 잔디밭속에서 수정알같은 이슬방울들이 해빛에 반짝거리고있었다.

기상관측소장 문순보는 방금 진행한 관측자료들을 기입한 기록부를 뒤집진 손에 들고 밖으로 나왔다.

순보는 습관적으로 의자에 앉으려다 말고 손바닥으로 쓸어보았다. 불이 죽은 온돌방처럼 산산했다. 관측자료에도 반영된것처럼 날이 갈수록 낮과 밤의 온도차이가 심했다. 아직도 동의자가 따곤해 지려면 한시간은 실히 걸릴것 같았다. 요즘은 사

무실안보다 파스한 별이 내리찍는 밤이 더 좋았다.

순보는 마당가에 선채 창문으로 기록부를 넘겨주었다.

강정구는 량미간에 가느다란 주름살을 짓고앉아 전자수산기를 정신없이 들여다보고있었다. 그의 손가락끝은 모이를 쫓는 닭부리처럼 쉴새없이 수자판을 내리쫓았다.

은희는 방금 진행한 관측자료들을 종합하여 도기상대에 보고할 차비를 하고있었다.

순보는 그들을 일별하고나서 사무실처마끝에 매단 약초들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송수화기를 들고 도기상대를 찾는 강정구의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문순보는 일손을 멈추고 잠시 귀를 강구었다.

정구는 관측자료를 보고한 뒤끝에 덧붙여말했다.

《...오늘 우리 군내 정확한 예보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예... 도기상대의 예보는 이미 알고있습니다. 산간지대들에서 소나기가 예견된다고 했는데 우리 군은 어떤지 정확히 알자는겁니다.

예?— 어디요? 린접군 수력발전소기상대예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보소장은 손에 들고있던 약초를 어떻게 놓아버렸는지 알지 못했다.

군에보라니?— 도대체 현재장비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며 갑자기 그것을 알아서 어찌하는것일가?...

원래 린접군과 같이 큰 수력발전소를 가지고있거나 그 의의로 보아 꼭 필요한 곳에는 인원과 기술장비를 주어 자체로 예보를 할수 있다.

그외 관측소들에서는 임무자체가 관측자료통보가 기본인것이다.

그런데 강정구는 아무리 생활을 모른다손쳐도 전문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관측소실정이야 왜 모르겠는가. ... 문순보가 생각을 쫓는 사이 강정구는 벌써 교환을 찾아 린접군 기상대를 부탁하고있었다. 전화가 걸리는 사이 정구는 자기가 연구하고 산출해낸 수자들이 깨알같이 적힌 종이장을 들여다보고있었다.

말을 해줄것인가 말것인가 바재이고했는데 때마침 강정구가 밖으로 나왔다.

그는 순보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먼저 말을 꺼냈다.

《소장동지, 저아래를 좀 내려다보십시오.》

문순보는 웬일인가싶어 정구가 가리키는 읍거리를 굽어보았다. 별로 이목을 끄는것이 없었다.

3층살림집들이 랑쪽으로 늘어선 읍 맞은편쪽산 기슭으로는 물살이 급한 시내물이 희끗희끗 같기를 일으키며 흐르고있었다. 이웃군으로 나가는 큰길이 마치 땡기오리를 감아놓은것처럼 성독령을 굽이굽이 돌아갔다.

《아니, 이쪽 말입니다. 식료공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좀 보시라요.》

순보는 실눈을 짓고 그쪽을 살피보기 시작했다. 웬일인지 그 길에 사람들이 한벌 덮씩웠는데 자동차, 트랙터들이 분주히 오갔다.

《저기서 뭘 하나? 도로보수를 하는가?》

《보수가 아니라 포장공사가 벌여졌습니다.》

《응— 거참 잘하는군. 먼지가 꽤나 일더니.》

문순보는 별로 흥심없이 말했다.

《소장아바이, 그런데 저 공사가 야단났습시다.》

강정구는 안타깝게 말했다.

《왜?—》

《도예보를 듣구 제가 좀 계산해보았는데요 우리 군경내에 오후쯤 꼭 소나기가 내릴것 같습시다.》

《소나기?—》 하면서 순보는 반사적으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산발로 겹겹이 둘러막혀 하늘도 크지 못했다.

기상학적으로 볼 때 자기가 선 자리를 중심으로 하여 시야가 미치는것 빙— 둘러보이는 하늘이 몽땅 구름으로 덮였을 때를 10바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같이 말짱 개인 0바르상태에서 소나기가 온다고 장담하기는 힘든 일이다. 이상기후란 번덕이 심한탓에 안 온다고 단마디로 일축해버릴수도 없는 일이고... 설사 온다 한들 무엇이 야단이란 말인가?...

문순보는 의아스런 눈길로 청년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말입니다. 오후에는 저 포장공사를 중지해야지요.》

문순보소장은 고개를 들고 얼핏 주위를 둘러보았다. 옛들은 사람이 없는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얘기하자구, 어서.》

문순보는 청년의 등을 밀었다. 순보는 출입문이며 창문마저 꼭꼭 마주닫고 자리에 가앉았다. 사회생활의 첫자욱을 내딛는 청년에게 신발을 단단히 신길 필요가 있었다.

《강정구동무, 동무 무슨 일을 치지 못해 그러나, 응?—》

때마침 린접군 기상대와 전화가 편결되었다. 강정구가 쟁쟁게 송수화기를 들었다. 송수화기를 두손으로 감싸잡은 강정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 군에 오늘 소나기가 예견되니까?... 14시경 신평리를 중심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송수화기를 놓은 강정구는 환성을 질렀다.

《보십시오. 우리 군 접경인 신평리에 소나기가 내린답니다. 틀림없습니다. 대책을 취해야지요.》

문순보는 번듯한 이마에 주름살을 지으면서 말했다.

《저기는 구름이 몇바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이야 현재 0바르가 아니요. 풍속두 그렇구... 괜히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 웃음거리가 될수 있소.》

강정구는 가슴속으로 불만이 욱 치미는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것이 왜 남의 일이란 말인가... 크고작건 이런 때에 우리의 힘을 바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측소가 어디에 필요한것인가...

강정구는 자기의 생각을 끝이끝대로 쏟아놓았다.

《소장아바이, 우리 기상관측소가 왜 힘이 없는줄 알아요? 꼭 물우에 뜬 기름방울같아요. 생활과 동떨어져서...》

《뭘?—》

《그렇기때문에 물밑에 가라앉은 조약돌처럼 빛도 없고 힘도 없는거예요.》

할말을 다 내쫓은 강정구는 숨을 쉼쉴 몰아쉬면서 자리에 앉았다.

정구는 아무 일 없었던듯 최근 중앙과 도기상대의 예보와 실측자료, 군관측기록부를 다시 펼쳐놓고 전자수산기앞에 앉았다.

강정구가 감정을 능치고 잠시 즈믄해지자 문순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젊은 사람들이 결집에 한 말을 별로 탓하고싶지 않았다. 젊은 사람하고 맞방망이질할수도 없고 또한 말재간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수 없는것이다. 문순보는 이제는 앓기 좋을만큼 파스해졌을 의자를 바라보며 관측장으로 향했다.

장시간 불박이로 앉아 계산기와 씨름하던 정구는 벌떡 일어나면서 웨쳤다.

《틀림없소. 15시경이요.》

그 소리에 결파라일어선 은희는 가슴우에 손을 올리면서 탄성을 질렀다.

《아이, 그래요!— 그럼 빨리 알려주자요.》

《내가 도로공사장에 갔다오겠소.》

《뛰어가시라요.》

은희가 문밖까지 따라나와 그를 바래왔다. 은희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려는데 울타리안에서 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사람이 어딜 저렇게 뛰어나니?》

《도로공사장에 알려러 갔어요. 틀림없대요.》

《틀림없다니, 무엇 말이냐?》
《아이참, 소나기 말이지요 뭐.》
처녀의 대답에 문순보는 대뜸 정신이 펴져 들었다.

《응?— 너희들이 끝내...》
이어 문순보는 사무실마당으로 내려왔다. 순보는 은희를 몰아세웠다.

《저 사람을 데려오너라, 어서—》
하얀 목덜미가 활짝 붉어진 은희가 허아래소리로 말했다.

《놔두시라요, 소장동지.》
《?—》

문순보는 그만 억이 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다. 고요와 아늑한 정적이 곧 생활로 습관된 군기 상관측소에 뜻하지 않던 회오리바람이 휩쓸고 지나간듯 순보는 가슴이 어수선했다.

3

소장의 성화에 못이겨 강정구를 찾으러 갔던 은희는 혼자서 되돌아왔다.

순보는 마당가에서 서성거리다가 은희를 맞았다.

《그 동무 안 와?—》
《오는게 다 뭐나요. 분해서 죽겠네. 글썸 우리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지요 뭐.》
《그것 봐라. 괜히 안 빠질데 빠치다가 망신만 하는걸.》

《이거 가만있음 안돼요. 글썸 소장아바이를 보구 문소장이 아니라 〈무소장〉이라잖아요.》
《나보구?— 누가?—》
《군건설대장동무 말이지요 뭐.》
《그 사람이 뭐라던?—》

문순보는 자기와 한현관에서 벽을 사이두고 사는 군건설대장의 입심을 잘 알고있었다.

《오늘중으로 포장공사를 끝낸다고 도로 량면에 세멘트를 막 부리워놔는데 야단났지요 뭐. 공장, 기업소별로, 직장별로 경쟁이라는데 불이 붙었어요. 강동무가 그 복새통에서 겨우 건설대장을 찾아서 오후 3시경에 소나기가 예견되는데 그때까지 길가의 세멘트를 다 비벼넣을수 있는가고 물으니 우리보구 어디서 왔는가 되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동무가 군기상대에서 왔다니까 아이참, 기가 막혀서, 대바람에 〈여보, 내 그 령감 말 듣구 전번날 구멍탄을 한마당 넣어놔다가 망했소. 난 이젠 그 령감이 우산을 들구 나가면 양산을 들구 나가오. 그 문소장인지, 무소장인지 한 령감보구 바

람개비나 잘 돌아가는가 지키라구 하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하는 게가 꼭 우리같은 사람은 있으나마나하다는거지요 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난 창피해서 얼른 뛰어오구말았어요.》

《정구 그 사람은 안 오나?》
《오겠지요 뭐. 군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당시) 위원장동지가 나왔다길래 찾아갔어요.》
《그 사람이 기어코 일치겠군. 팬스레 남의 일에 발벗고 나서서...》

은희는 것처럼 모욕을 받고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문순보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소장동진 안 가보세요?》
은희의 까만 눈동자에서는 아직도 불길이 이글거렸다.

《어텔?—》
《어디라니요. 그 건설대장한테 가서 해보지요.》

《허허허... 뭘라나. 우리 그 사람 신세 안지면 되지.》

《아이, 속상해...》
눈물이 글썽해진 은희는 분을 삭이지 못해 썩은 거렸다.

때마침 벽시계가 땡-땡-땡- 하고 열한점을 쳤다. 벌써 점심시간이 가까왔다.
순보소장은 측은한 눈길로 은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얼른 가서 그 사람을 데려오마. 오지랖이 넓어두 분수가 있지, 원—》
문순보소장은 은희를 남겨놓고 밖으로 나왔다. 한줄기의 서늘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누렇게 마른 강냉이이삭들이 거꾸로 매달려 사람의 손을 기다리고있었다. 어디를 둘러보나 누른빛이었다. 풍요한 계절이었다.

문순보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멀리 성독령꼭대기로 버섯모양의 적란운이 몽클 솟아올랐다. 울타리안에서 꼬마비행기의 바람개비가 요동치며 돌아갔다. 눈집작으로써도 기후변동이 심하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때아닌 적란운과 바람은 소나기를 몰아오기 일쑤지만 하늘에는 여전히 가을의 깨끗한 태양이 떠있었다. 문순보는 곧바로 공사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도로포장공사장은 은희한테서 들던바대로 북적거렸다. 런닝그썸으로 구리로 빛은듯 적동색의 근육들이 울퉁불퉁 튀어나온 청년들이 열성스레 다녔다. 그 혼잡속에서 문순보는 뛰어가는 강정구의 얼굴을 피끗 보았다. 순보는 두어번 목소리를

높여 불러보았으나 강정구는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물결속에 뒤섞이고말았다. 마치 홍수로 범람하는 강물처럼 작업장은 들끓고있었다.

문순보는 혼합물삽날들이 번개처럼 번뜩이는 타입장을 에돌아가면서 강정구를 찾았으나 허사였다.

미구하여 점심시간을 알리는 고동소리가 자그마한 읍거리를 들었다놓았다.

문순보는 들어가는 길에 길녘에 있는 공사지휘부천막안을 기웃해보았다. 텅 비어있었다. 모두 시원한 강변으로 나간 모양이었다. 문순보는 문바투 끌어다놓은 장의자에 앉아 잠시 다리섬을 하면서 설핏해지는 사람들속에서 눈더듬으로 강정구를 찾아보았다.

이때 마침 어깨가 한발이나 처져내린 정구가 맥없이 터벅터벅 걸어왔다. 옷은 온통 세멘트가루를 뒤집어써서 푸릿푸릿해졌다. 몹시 지쳐보였다.

문순보는 물기어린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정구 이 사람! 어데 갔됐나. 괜한 고생을 해서 하면서...》

강정구는 문순보를 보자 금시 설음이 북받쳐 올라 목이 메였다.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데 있습니까? 예? 술한 사람들을 만나 제기했지만 어디 말을 들어줍니까. 이젠 시간이 급한데 혼자서 다 처리할수도 없구...》

강정구는 울상이 되었다. 그러나 청년의 눈만은 여전히 반짝거렸다.

《듣지 않겠으면 듣지 말래지. 이젠 됐소. 돌아가서 점심이나 먹구 오라구, 은희가 기다리겠는데.》 하면서 문순보는 먼저 일어서서 천막밖으로 나왔다. 순보는 느릿느릿 여라문발자국 옮겼으나 따라나서는 기척이 없었다. 문순보는 다시 독촉하려고 멈춰서서 뒤를 돌아다보았다.

그런데 천막안에서 또 어딘가 전화를 거는 강정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엇때문인지 교환수에게 사정사정하는것이였다. 문순보는 강정구의 말을 토막토막 얻어들을수 있었다.

사택?... 사택... 사택이라니?... 문순보는 순간 가슴이 활랑거려났다. 순보는 천막을 향해 바삐 걸기 시작했다.

천막안에서 다시금 정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군당?— 책임비서—동지?》

그다음 문순보는 어떻게 걸음을 옮겼는지 몰

랐다. 숨이 턱에 닿아 천막안에 들어선 문순보는 강정구가 들고있는 송수화기를 무작정 두손으로 꼭 잡았다. 그리고 벽력같이 고함을 질렀다.

《아니, 책임비서댁에는 왜서 함부로 전화를 거오?》

어망결에 송수화기를 떼운 정구는 영문을 몰라 두눈을 깜빡거렸다.

《아니, 그럼 어쩔니까. 분초가 새로운판에 마지막으로 군당책임비서동지한테 제기하는 수밖에 있어요?》

더 피할 길 없게 된 강정구는 큰소리로 맞대들었다.

그러니 강정구가 잠시나마 잠잠해있었던것은 폭우가 쏟아지기 전야의 저기압과 같은 침묵과 자체력이었던가... 비로소 어슴푸레하게나마 상사말뼉듯하는 청년의 성격을 파악한 순보는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어디라구 함부로... 그렇게 물인지 불인지 모르구 덤비다가 큰일을 치구야말겠소.》

순보는 생각할수록 가슴이 떨려났다.

때마침 전화가 나왔다. 신호종소리가 울린지 한식경이 지난 후 순보는 송수화기를 두손으로 받쳐들었다. 송수화기는 천근만근 무거웠다. 이어 교환수처녀의 새소리같은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말씀하십시오. 도로포장공사장이 나왔습니다.》

문순보는 불시에 몸이 떡 굳어지는것 같았다.

《제 책임비섭니다. 말씀하십시오.》

군당책임비서의 목소리가 확성기에서처럼 왕왕 울려나왔다.

《예... 저... 사실은...》

문순보는 이마에 내뿜은 땀알같은 땀을 훔치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구는 문순보의 손에서 송수화기를 넘겨주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군당책임비서가 재차 다짐을 두면서 따져물을 때마다 강정구는 확정적으로 대답하곤 했다. 군당책임비서는 곧 현장으로 나오겠다고 했다.

전화가 끝났다. 별스럽게 천막안이 조용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다. 불집은 이미 터지고말았던것이다. 이제 군당책임비서를 만날 일을 생각하니 문순보는 눈앞이 아뜩해졌다. 사람은 자기 능력에 맞게 일하고 요구해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이제껏 그렇게 살아가던 관측소가 이제 사람들의 웃음가마리가 될것만 같아 문순보의 가슴은 불안해나기 시작했다.

기상관측소장 문순보는 요즘 때없이 자기 회오의 감정에 사로잡혀 멍하니 앉아있곤 했다.

아까부터 전화가 보채는 아이 울듯 야단스럽게 울어댔다. 요즘은 전화성화에 지칠 지경이었다. 순보는 천천히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거 래일 말입니다. 비가 안 오나 해서 그렇니다.》

《울것 같지 않다.》

《아— 이거 책임적인 발언을 해주십시오.》

꽤 덤비는 청년이었다. 문순보는 저쪽에서 은근히 걸고드는 바람에 오히려 속이 누그러워졌다.

《어디 소금장사라도 떠나시려고요?》

《예?— 아, 이거 소장아바이시로군요. 그새 건강하십니까? 래일이 일요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자전거 타구 낚시질원정 가려구 그렇니다.》

《낚시질? 그런 한가한 사람한테 낚시나 대주는 기상대가 아니요.》

문순보는 점잖게 말하고나서 송수화기를 놓으려고 했다. 저쪽은 급해맞아서 소리소리 질렀다.

《아, 그냥 통화중이 돼서 겨우 찾았는데— 거 그럼 강정구동무를 좀 바꾸어주십시오.》

《정구동무 지금 밖에서 관측중이요. 방해하면 안돼.》

《좀 찾아주십시오. 전번 소나기 퍼붓던 날 세멘트때문에 싸우던 친구라면 알아요. 야— 이거 좀 정확히 알려주시구려.》

문순보는 속이 그닐거려 참을수 없었다.

《허허허... 그래, 그런데 우린 매일 예보하지 않아.》

《그래요?—》

청년이 너무도 섭섭해하는 바람에 순보는 한마디 덧붙였다.

《이 사람아, 그럼 오후에 한번 다시 걸라구.》

《예! 감사합니다, 소장아바이.》

순간 문순보는 가슴이 후터워났다. 이즘 사람사는것 같은 활력이 어디서 솟는가를 문순보는 알고있었다.

방금 낮모를 청년이 말한 소나기 내린 그날이 바로 문순보의 생활에서 전환점이라고 할수 있었던것이다.

바로 그날로부터 군기상관측소장 문순보의 생활에 대한 관점에는 대대적인 파열이 가기 시작했던것이다.

회상에 잠겼던 문순보는 관측기록부를 들고 들

어오는 강정구를 보고 말했다.

《빨리 재확인해보오. 경영위원회에서 또 독촉이 오겠는데.》

어느새 벌써 마가월에 접어들어 산간지대들에서는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중양기상수문국의 통보와 도기상대 그리고 린접군 기상대의 예보를 종합분석한 결과 군적으로 해발고가 제일 높은 지대인 유전농장 막치기에는 래일 새벽 강서리가 내릴것이 예견되었던것이다.

오늘중으로 그 어방 가을무우를 뽑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경영위원회에서 농장에 알렸으나 그곳작업반장들이 벌령 나누웠다. 아침저녁이 다르게 무우대가리에 살찌는것이 알리는판에 하루이틀이 어딘가 하는 배짱들이었다.

군에서는 심중하게 토의를 거듭했다.

경영위원회에서는 혹시 다른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여 시간이 멀다하게 전화를 걸어오는것이였다.

이때 밖에서 인기척소리가 났다.

순보는 얼핏 창밖을 내다보았다. 뜻밖에도 키가 후리후리한 군당책임비서가 서있었다.

《들어가도 좋습니까?》

순보는 얼른 일어서서 문을 열었다.

《어서 오십시오.》

강정구와 은희도 일손을 멈추고 일어서서 인사를 했다.

군당책임비서는 서글서글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 우리 군 보배덩이들이 수고하누만. 앉아서 일들 보시오.》

강정구와 은희는 자리에 앉아 다시 펜을 달리기 시작했다.

순보는 군당책임비서에게 의자를 권했다.

군당책임비서는 담배를 꺼내더니 순보에게 권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에게 방해물 끼칠세라 목소리를 한껏 죽여가면서 말했다.

《소장동무, 그래 강서리가 기어코 내린다는 겁니까?》

문순보는 전자수산기를 부지런히 다독이고있는 강정구쪽을 흘끔 쳐다보면서 말했다.

《잠간만 기다려주십시오. 우리 동무들이 다시 한번 확정하는중입니다. 8군기상대 예보가 우리 군과 그중 근사한데 틀림없을것 같습니다.》

군당책임비서는 말없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이때 그러잖아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있는 전화기가 따르릉— 따르릉— 하고 야무지게

울렸다.

소장은 한쪽옆으로 돌아앉으면서 전화를 받았다. 오늘따라 감도는 왜 그다지도 좋은지 온 방안 사람들이 다 들을수 있을 정도였다.

《기상대요?》

《예, 어서 말씀하십시오.》

순보는 입안소리로 조용조용 말했다.

《여보게, 문소장 아니요? 나요, 건설대장이요.》

《예, 예.》

문순보는 그가 또 왕창같은 소리를 할것만 같아서 잔등으로 진땀이 나왔다.

《여보 문소장, 내 신세값음을 하려고 그런단니까. 동무네 무슨 공사를 벌려놨다면서?... 오, 그것 말이요. 래일모레 우리 사람들을 보내니까 기다리라고요.》

순보는 집안끼리 하는 그 공사를 건설대장이 어떻게 아는지 놀라왔다.

순보는 어물어물 대답했다.

《아, 그- 팬찮아. 아직 세멘트랑...》

《자재는 다 가지구 간다니까. 이 건설대장을 다시 비판이나 안 받게 해주구려.》

《예, 예, 고맙습니다.》

순보는 송수화기를 놓았다.

군당책임비서는 웬일인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것은 군에서 취한 조치였던것이다.

송수화기를 놓자마자 기다렸던듯 또다시 신호가 울렸다.

이번에는 읍인민학교(당시)에서 걸려왔다. 래일 학생들이 가을철자연관찰을 가는데 날씨가 미타하다는것이였다. 순보는 교장선생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다. 순보는 연방 걸려오는 전화때문에 민망스러운 눈길로 군당책임비서를 바라보았다.

군당책임비서는 무엇을 긍정하는지 의미심장하게 머리를 끄덕이는것이였다.

이때 또다시 전화가 요동을 했다. 경영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했다.

군당책임비서가 전화를 달라고 했다.

《제 여기 와있습니다. 발머리들에 우등불이요?... 한번 해볼판이지요. 손 털구 나왔아서 언 김치를 먹을 맛이야 있습니까. 예... 이 동무들의 말을 다시한번 들어보고 모두 나갑시다.》

전화를 끊은 군당책임비서는 밖에 나가서 관측기재들을 돌아보자고 했다.

군당책임비서는 걸으면서 문순보에게 통말처럼 한마디 했다.

《여기가 우리 방보다 더 복잡합니다. 온 군을

쥐구 혼드는구만. 기상대힘이 대단합니다.》

《예?!...》

《난 오늘 아침 이 자그마한 기상관측소에 와서 많은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일부 책임일군들이 일시적난관앞에서 맥을 놓고 주저앉아 뭉개고있는데 동무들은 세사람이서 정말 큰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 힘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의 정신이 아닐가요, 소장동무!...》

《!...》

순간 기상관측소장 문순보는 가슴속으로 불뭉치같이 뜨거운것이 콧수저처럼 오르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온 군을 쥐고 혼든다!... 우리 관측소가... 언제부터 우리 관측소에 이런 힘이 생겼던가!... 달구지 한대를 얻지 못해 것처럼 동분서주하던 우리 기관이...

생각에 심취된 문순보는 군당책임비서의 뒤를 따를것도 잊고 습관적으로 의자에 앉았다.

힘!... 힘!...

힘은 본래 인간의 소유인것이다. 사회와 집단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 여기에 따라 힘은 정비례로 생기는것이며 그것이 곧 메아리쳐오는 것이다.

언제인가 열정적으로 호소하던 강정구의 목소리가 금시 귀가에 쟁쟁히 살아났다. 실로 자신은 이제껏 물위에 뜬 기름방울이나 물밀에 가라앉은 조약돌처럼 생활의 중심에서 너무도 멀리 떨어져살아오지 않았던가...

아! 자기의 위치와 존재를 잃었을 때의 인간! 자기의 위치, 자기의 존재, 자기의 힘을 찾았을 때의 인간! 그 인간의 존재가치, 삶의 가치는 실로 하늘과 땅, 산과 바다처럼 차이나는것이다!...

문순보소장은 물기가 번뜩이는 뜨거운 눈길로 사무실을 내려다보았다.

안에서는 강정구가 무엇인가 불러주고 은희가 부지런히 받아쓰고있었다.

훌륭한 청년들이였다. 강정구의 뜨거운 열정과 그의 눈에서 비치는 광채는 아무런 가식도 꾸밈도 없는 순결한것이였다. 그것은 20대인 그가 나서자라며 받은 시대의 깨끗한 자양분의 덕택일 것이다.

문순보소장은 기관책임자로서 강정구청년에 대해 무엇인가 여쭙고싶은 충동으로 군당책임비서를 향해 힘있게 걸어갔다.

주체75(1986).

극형에 처하라!

조영사

여기는 서울 광화문거리
매국역적 죄명박놈에 대한
모의공판장
재판장은 지방재판소의 판사
배심원은 조각가 초불시위자
그리고 미친소병피해자 등...

죄명박 네 아무리
청와대의 폭신한 《대통령》자리에 앉았어도
그것은 재판장의 피고석
인간이기를 그만둔 네놈을
형사소송법에 룬할바는 못되어도
죽어도 알고 죽어야 할 죄이기에
천만가지 죄행중 몇가지만 재판하기로 한다

—죄명박 이놈아
민족의 대국상에 칼질하고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미제와 짝자꿍하여 감히 어찌보려던
만고의 대역죄와
6.15와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통일념원에 전쟁으로 맞선 대죄를
너는 죽어도 알고 죽어야 할 놈이다
너는 그 죄를 시인하는가?

—재판장님
나라고 어쩔수 있나요
민심은 온통 북조선에만 쏠리는데
칼질이든 불질이든 입질이든 안하면
이 죄박이신세가 꼭지 떨어진
썩박이신세가 될텐데요...

—웁다 또 한가지
《천안》호와 연평도사건을 조작하고
《보복》과 《응징》을 떠벌이는 전쟁광신자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서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은 남조선이 미친소병으로 도란에 빠졌거늘
이 죄도 너는 알고 죽어야 마땅하리

—재판장님
나라고 어찌겠나요
미국의 미친소고기를 먹지 않으면
무기도 안 주고 내 목을 때겠다는데
은 나라가 미친들 상판할바가 있나요
죽기보다야 미친것이 훨씬 나은판인데

—참말로 력사에 없는 재판이로다
집승중에도 제일 못되고 치사한
죄를 피고석에 세워놓고 재판한다는것은
동화나 우화에서나 볼수 있는 망칙한 재판
저런 털등동물이 《대통령》병거지를 썼으니
이 세상은 꺼꾸로 된 세상이로다

재판장은 판결을 내렸네
저놈은 분명 미국개와 일본쥐의 혼혈종
인간의 가족을 쓴 죄명박놈을
교수대에 매달고 화형에 처한다!
네놈은 똑똑히 알아야 하리
네놈의 한줌도 못되는 재를
지구밖으로 날려보내도 시효가 없는
대역적범죄임을 네놈은 알고 죽어야 함을!

조선문학 주체101(2012)년 제10호 (루게 제780호)

편집위원회

낸 곳 문학예술출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주체101(2012)년 10월 1일
발행 주체101(2012)년 10월 5일

ㄱ-26457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2
D P R Korea
ISSN 1727-9437